

스리랑카

정보수정일자: 2011. 4. 12

작성처: 콜롬보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국가개요 /1
정치사회동향 /2
한국과의 주요이슈 /4

경제동향 및 전망 /5
주요 산업 동향 /8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6

-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18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1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4
대한수입규제동향 /26
관세제도 /26
주요인증제도 /26
지적재산권 /28
통관운송 /30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2
- 외국기업 투자동향 /35
- 우리기업 투자동향 /37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40
- 진출형태별 절차 /42
- 투자입지여건 /51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53
- 조세제도 /58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62

- 시장특성 /64
- 물가정보 /68
- 바이어발굴 /69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72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77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78
- 이주정착 가이드 /80
- 출장가이드 /84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93
- 유관기관 웹사이트 /97

KOTRA 99개 KBC에서 전하는 Global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KOTRA InfoPass 안내

'InfoPass'란? 정보(Information)와 자유이용(Pass)을 결합한 KOTRA 정보 자유이용 서비스로 KOTRA 국가정보의 온·오프라인 이용 뿐만 아니라 KOTRA 발간하는 모든 유·무료자료를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는 VIP 정보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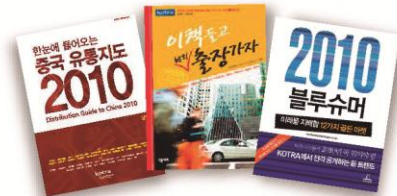
1. 국가정보 서비스 (전세계 136개국)

- KOTRA 주재 7개국 및 비주재 관할 65개국 국가정보의 이용 ID부여
 - * 비주재국 관할 65개국 국가정보 InfoPass 고객에게 최초공개
- 국가정보 (7개국) 전질 인쇄본 무료 제공 (150만원 상당)



2. KOTRA 발간 유·무료자료 무료 배송 서비스

- 서비스 이용기간내 발간하는 모든 KOTRA 자료 실시간 배송
 - * '09 유·무료 자료 (약 180여권) : [유료단행본] '2010 블루슈머', '중국유통지도' 등 21권 / [무료자료] '한-EU FTA 10대 수출유망상품' 등 163권



판매가격(VAT 포함)

대상

500만원/년
250만원/년대기업, 지자체, 연구소, 대학, 유관기관(협회 등)
개인 및 중소기업

*InfoPass ID는 기관내 공유 가능하나 동시접속은 불가 (ID추가시 20% 적용)

- ✓ 가입방법 : www.globalwindow.org 내 InfoPass 가입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E-mail 송부
- ✓ 담당자 : KOTRA 구미팀 정은정, 김한나 대리
- ✓ Tel : 02)3460-7319, 7322 / Fax : 02)3460-7924
- ✓ E-mail : cocoej@kotra.or.kr (정은정)
hanna@kotra.or.kr (김한나)

kotra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위 치	인도남동부 인도양 (북위 5.5 ~ 9.5도에 위치한 섬나라)
면 적	65.6천 km ² (한반도의 1/3정도-남북간 거리 435km, 동서 간 거리 225km)
기 후	열대 몬순기후
수 도	Sri Jayawardenapura이나 Colombo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수도역할을 하고 있음. (콜롬보와 수도는 경계선이 붙어있음)
인 구	2,045만명 (2009년) 인구 증가율 1.0%, 인구밀도 322명(2008년)
주요도시	수도권 : Colombo(226만), Gampaha(207만), Kalutara (118만) 기 타 : Candy(128만), Kurunegala (146만), Ratnapura(107만), Galle(110만)
민족(인종,%)	Sinhalese(74.0), Sri Lankan Tamils(12.6), Moors(Muslim 5.5), Indian Tamils(7.1), 기타(0.2)
언 어	싱할라 및 타밀어(국어), 영어(상용어)
종 교 (%)	불교(63.9), 힌두(15.5), 회교(7.5), 기독교(7.6), 기타(0.1)
건국(독립)일	1948년 2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이원집정부제
국가원수	대통령: Mahinda Rajapaksa (2010-2016년) / 수상: D.M. Jayarathne
입 법 부	단원제(의석 225석)
정당(225석)	○ 여당(160 석): UPFA (SLFP 등 12개 정당연합)중 SLFP가 117석 차지 ○ 야당(64 석): UNP(43), ITAK(13, Tamil 당), DNA(7, JVP 지원), CF(1) ○ 국회의장(Chairman): Chamal Rajapaksa(대통령 형)
정부성향	과거 사회주의 정권 경험으로 사회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으나 현재는 자본주의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있음

나. 경제 지표 ('09년까지 : 스리랑카 중앙은행 자료, 2010년 : EIU자료)

G D P (US\$)	486억(2010년), 420억(2009년), 430억(2008년),
실질경제성장률	7.8%(2010년), 3.5%(2009년), 6.0%(2008년)
1인당 GDP(US\$)	2,399(2010), 2,057 (2009년), 2,014 (2008년), 1,634(2007년)
실 업 율	5.4%(2010년), 5.7%(2009년), 5.2%(2008년)
소매물가상승률	6.9%(2010년), 3.4%(09년), 22.6%(08년), 15.8%(07년)
화폐단위	Sri Lanka Rupee (RS)
환 율	US\$ 1 = RS 110.3589(2011년 3월), 114.9448(2009년), 108.3338(2008년) ('08-09년 : 연간 평균환율)
외 채	179억불(2010년), 186.6억불(2009년), 151억불(2008년),
경상수지	17.0억불(2010년), -2.1억불(2009년), -38.8억불(2008년)
외환보유고	72억불(2010년말), 51억불(2009년 말), 18억불(2008년)
산업구조(% GDP)	농수산업 12.0, 산업 28.6, 서비스업 59.3 (잠정치)
교역 규모	US\$83.1억(수출), US\$135.1억(수입) 무역적자: US\$52억(2010년) US\$70.8억(수출), US\$103억(수입) 무역적자: US\$32.2억(2009년)
교 역 품	○ 수출: 섬유-의류(35 억불), 차, 고무, 코코넛, 보석 ○ 수입: 오일, 섬유원부자재, 기계, 철강, 종이제품, 전자, 자동차

자료원: Annual Report 2009 (스리랑카 중앙은행), 2010년 : EIU자료('11.03월)

다. 한-스리랑카 관계

체결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1986), 투자보장협정(1980), 무역협정(1984)
교역규모(2010년)	US\$ 302백만 (우리나라 수출: US\$ 245백만, 수입: US\$ 57백만)
교역품	(수출) 섬유/원단,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기계 (수입) 농수산물, 섬유제품, 고무제품, 임산물, 비금속광물 등
투자교류	대 스리랑카 US\$ 724백만(우리나라 진출), 국내유치 2백만불
교민	스리랑카 내 한인 체류자 약700명 (한국 내 스리랑카 근로자 약15,000명)

라. 스리랑카 시장 개요

- 중하위 소득수준(lower- middle income)의 개발 도상국이며 주변국과 비교하여 양호한 사회지표가 강점.
- 1978년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경제로 전환하였지만 개혁 속도가 일정치 않음.
- 내수 시장, 자원 및 국토가 협소하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으며 수입(식품 및 소비재, 원자재 및 설비재), 수출(의류, 차 및 고무 등 1차 상품), 서비스(관광포함), 농업, 해외 근로자 국내송금, 외국의 원조자금에 주로 의존.
- 과거 26년간 반군 LTTE 가 장악했던 북부 및 동부 지역의 개발이 미흡하여 정부는 2009년 5월19일 승전 선언과 함께 북부 및 동부 지역의 대대적인 사회, 경제, 인프라 개발을 선포.
- 경제성장률은 2008년 6.0%, 2009년 3.5%, 2010년 7.8%로서 민간부분, 서비스, 건설 부문, 해외 근로자 국내 송금 증가(2009년: 33억불, 전년대비 14% 증가)가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내전종식(2009.5.19)으로 인해 2009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급격히 상승세로 반전
- 만성적인 재정 및 무역적자, 정부의 취약한 재정관리,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최대 수입항목) 및 국제 원유가의 불안정이 스리랑카 경제성장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원조자금을 통한 SOC 투자 증가와 외국인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2011년 1/분기 기준 경제는 그 어느때보다 활황세를 유지

2. 정치 사회 동향

2010.1.27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라자팍사 현 대통령이 재선되었으며 임기는 2016년 11월까지이다.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라자팍사 후보가 57.88%, 야당 대표인 폰세카 후보가 40.15%를 차지하였으며 라자팍사 후보는 타밀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동북부지역 및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수표를 획득하였다. 또한 2010.4.8 (일부지역 재선거는 4.20), 총선이 실시되었다. 동 선거결과 총225석중 여당연합 (UPFA)이 144석, 제2당연합(UNP) 60석, TNA 14석, DNA 7석을 차지함으로써 여당연합이 64%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 이후 야당의 일부가 여당으로 이동하면서 여당연합의 비중은 160석까지 증가하여 2011년 1분기 기준 71%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1.3.17일 치러진 지자체 선거에서도 여당연합이 선거가 치러진 234개 지자체중 205개 지자체에서도 승리 하였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국민 및 국가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정치 및 사회적인 상황 변화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9년 5월 18일, 1983년부터 26년간 지속된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엘람 해방전선(LTTE, Th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Tamil Tigers)과의 내전이 종식되어 스리랑카 정치 및 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LTTE의 세력이 해외에서 다시 재기한다는 소식이 있고 LTTE정령이었던 동북부지방의 개발이 자원부족으로 인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스리랑카 내전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싱할리족과 소수민족 중 하나인 타밀족(인구의 12.6%)과의 종족(종교)분쟁으로 휴전과 전쟁을 반복하면서 7만 명의 희생자와 3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타밀엘람 해방전선은 타밀인으로 구성된 무장 반군(1976년 결성)으로 타밀족의 주거주지인 스리랑카 북동부에 타밀인의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1983년 스리랑카 정부를 상대로 무력투쟁을 개시한 후 무장독립 운동(요인암살, 폭탄테러 등)을 전개해왔었다.

'08.1.2일, 정전협정을 폐기하면서 스리랑카 정부는 타밀반군에 대해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전개, 승리를 거둬하면서 동부 해안지역 4km² 반경 내에 타밀반군을 포위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타밀반군이 일반시민들을 인질로 활용하면서 수 천명의 사상자가 발생,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미국, 유럽, UN 등은 내전으로 인해 분쟁지역에 갇힌 일반 시민의 희생 및 보호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해왔으나, 스리랑카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을 강행해, 향후 대 서방과의 관계 정립 문제가 또 다른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스리랑카의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하면서 스리랑카에 대한 GSP+혜택을 2010. 8월 15부로 잠정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주력산업인 의류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전종식에 따른 동북부지역 개발계획(마스트 플랜)은 최근 구성된 대통령직속 Task Force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약 25만 명에 달하는 타밀 난민의 지원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 동북부 지역의 상황은 2010년 5월까지도 우리나라 등 여러 나라에서 여행제한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을 정도이며 정부에서도 방문자들의 안전을 위해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다.

약 5,000명에 달하는 반군 잔존세력들이 난민과 섞여있어 위험요소는 상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대선, 총선 및 2011년 지자체 선거에서 여당연합이 압승을 거둬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져 이를 토대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직 연임제한(중임까지 허용) 법률을 2010년 하반기에 국회의결을 통해 철폐함에 따라 대통령 장기집권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선진사회로 가기위한 집권당 주도의 부패척결 가능성에 시민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가. 한-스리랑카 관계 요약

외교수립	1972년 주 스리랑카 통상대표부 개설, 1977년 외교관계 수립
체결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1986년), 투자보장협정(1980년), 무역협정(1984년)
교역규모(2010년)	US\$ 302백만 (우리나라 수출: US\$ 245백만, 수입: US\$ 57백만)
교역품	(수출)광물성연료, 직물, 수송기계,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산업기계 (수입)농산물, 섬유제품, 고무제품, 임산물, 비금속광물, 섬유사
투자교류	대 스리랑카 US\$ 930만(우리나라 진출), 국내유치 2백만불
교민	스리랑카 내 한인 체류자 약700명 (한국 내 스리랑카 근로자 약15,000명)

나. 한-스리랑카 관계 개요

스리랑카와는 1977년 외교관계수립이후 공식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스리랑카의 위기 때마다 (2004년 쓰나미 사태, 2009년 내전난민 발생) 한국은 그 누구보다 먼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믿음직한 우방의 역할을 해왔다. 현 대통령 라자팍사는 국무총리 시절 한국을 2번씩 방문한 경험이 있고, 양 정부는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경제협력현황을 보면, 스리랑카는 우리정부의 유상원조 (EDCF) 지원대상국으로 한국은 20개 사업(2009년 말 기준) 총 405.3백만 불을 지원하였다. 또한 스리랑카는 한국의 무상원조사업(KOICA) 중점 협력대상 국가로서 지난 18년간(1991-2008) 총 5724.6만 불을 지원 받았다. 2011년 2월에는 한국정부에서 스리랑카 홍수피해 지원을 위해 30만불 규모의 물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한국은 스리랑카에 대해 한-스 직업훈련원 및 개방대 자동차 실습실 건립, 원양어선 항법장치 지원, 쓰나미 새마을주택, 공무원 주택, 컨벤션센터(한반토타), 한스친선병원, 재해 대책본부, 기술학교(연수원) 건설 및 도로, 교량, 상수도 개발, 전자정부 등 다방면의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스리랑카는 최초의 한국 해외봉사단 파견국의 하나로서 한국은 스리랑카에 대해 지속적인 파견인력 확대, 연수생 초청인원 증대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인적 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협력분야에서 한국의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스리랑카 근로자들에 대한 한국 취업기회가 대폭확대(2011년 구직자 명부 배정인원: 15,000명) 됨에 따라 스리랑카정부는 우리정부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다.

한국의 대 스리랑카 투자는 한국투자업체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던 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는 노동집약적이며 저임과 섬유쿼터를 활용하기 위한 봉제 의류, 모자, 가방, 텐트 등 섬유관련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그 이후 스리랑카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중국, 베트남 등 생산성이 높은 제3국으로 거의 이전하였으며 2011년 기준 스리랑카에 남아있는 한국 제조업체들은 현지에서 원자재(고무, 세라믹제품 생산용 흙)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과 일부 봉제업체 그리고 서비스업체 등을 합쳐 총 40여개사 정도이다. 최근에는 한국의 원조 사업, ADB차관사업(콜롬보항 확장 건설 프로젝트), e-Government 프로젝트 (EDCF 지원)를 시행키 위하여 한국계 건설, IT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스리랑카 기업의 한국 진출은 '62년부터 '10년까지 총 42건이나 총 투자규모는 2백만불 밖에 되지 않는다.

□ 2009년 이후 한국과의 주요 이슈

- 스리랑카 정부는 자국 내 경제, 사회 및 인프라 개발 분야에 한국의 무상 원조 기대
- 한국측은 대 스리랑카 수출 증가가 우선목표
- LTTE반군 점령지역이었던 동북부 지역의 인프라 재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기업들의 진출 및 정부 원조를 기대
- 재생에너지 전력발전, CDM 등 녹색 산업 개발 관련 업종. 사업들의 진출
- 스리랑카정부는 자국 노동자의 한국 내 고용확대를, 우리 나라는 스리랑카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 2012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의 한국유치에 스리랑카 정부의 협조 기대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근 스리랑카 경제동향 및 전망

2009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감소와 외국자본의 철수는 물론 외환 보유고 부족, 내전에 따른 국방비 지출증가, 전후 재건 복구비 지출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IMF로부터의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 확보와 정부의 적절한 금융시스템 안정화 조치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국제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킨 결과 3.5%의 경제성장율을 달성하였다.

2010년에는 본격적인 경제활황으로 전년대비 GDP가 15.7% 증가(420 억불→486 억불)하였으며 외환보유고 또한 51 억불에서 72 억불로 증가하였다. 한편 무역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액 83 억불, 수입액 135 억불로 52 억불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제조업이 매우 취약한 반면 경제활황으로 수입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 물가가 '09년 3.4%에서 '10년에는 6.9%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11년에도 소비자 물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매우 고심하고 있다.

한편 스리랑카는 EU로부터 GSP+ 특혜관세조치를 받은 16개 수혜국 중 하나로 2005.7월부터 EU로부터 GSP+ 지위를 부여 받아 무관세로 7,200 품목을 EU 시장에 수출하여 왔으나 EU는 동 지위의 연장조건인 국제인권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0.8.15부로 동 GSP+ 향하 지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대 EU 주요 수출품목인 의류, 수산물 등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베트남 등 타 의류생산 강국에서도 노동자 임금이 급속히 인상되는 바람에 스리랑카로의 오더 물량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의류분야의 수출액은 예상보다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는 막대한 전후 국가재건비용의 소요로 예산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실시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통해 현정권이 재집권함에 따라 2016년까지 보다 안정되고 강력한 정부의 통치 바탕 위에 선진각국의 전후 복구사업 지원에 힘입어 향후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2011년에는 수입증가, 물가인상 및 내전 종료 후 재건사업 확충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가 우려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며

2011년도 정부예산 편성 시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요 수입원 확보를 통한 투자자금 마련이 이 나라 정부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다.

나. 2010년 경제실적

1) 경제 지표

G D P (US\$)	486억(2010년), 420억(2009년), 430억(2008년),
실질경제성장률	7.8%(2010년), 3.5%(2009년), 6.0%(2008년)
1인당 GDP(US\$)	2,399(2010), 2,057(2009년), 2,014 (2008년), 1,634(2007년)
실업률	5.4%(2010년), 5.7%(2009년), 5.2%(2008년)
소매물가상승률	6.9%(2010년), 3.4%(09년), 22.6%(08년), 15.8%(07년)
화폐단위	Sri Lanka Rupee (RS)
환율	US\$ 1 = RS 110.3589(2011년 3월), 114.9448(2009년), 108.3338(2008년) ('08-09년 : 연간 평균환율)
외채	179억불(2010년), 186.6억불(2009년), 151억불(2008년),
경상수지	17.0억불(2010년), -2.1억불(2009년), -38.8억불(2008년)
외환보유고	72억불(2010년말), 51억불(2009년말), 18억불(2008년)
산업구조(% GDP)	농수산업 12.0, 산업 28.6, 서비스업 59.3 (잠정치)
교역 규모	US\$83.1억(수출), US\$135.1억(수입) 무역적자: US\$52억(2010년) US\$70.8억(수출), US\$103억(수입) 무역적자: US\$32.2억(2009년)
교역 품	○ 수출: 섬유-의류(35 억불), 차, 고무, 코코넛, 보석 ○ 수입: 오일, 섬유원부자재, 기계, 철강, 종이제품, 전자, 자동차

자료: Annual Report 2009 (스리랑카 중앙은행), EIU Sri Lanka Country Report 2011.03.

2) 부분별 실적

□ 실물 부문

2009년에는 군사적인 내전종식 및 정치안정과 IMF의 26억불 구제금융 승인등으로 2/4분기 부터 인프라개발 확대와 투자자들의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심리 등이 제고되었으며 세계경제 회복 전망이 수출회복, 관광증가,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로 이어져 경기를 자극하였다.

이로 인해 2009년에는 3.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7억불의 종합수지 흑자와 51억불이라는 기록적인 외환보유액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2008년의 28.2%의 인플레이션 이 2009년에는 3.5%로 급격히 낮아졌다.

2010년에는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특히 두드러졌다.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44%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로인한 호텔건축붐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대외원조자금을 기반으로 한 도로, 항만, 전력 등 SOC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활성화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대외 부문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흐름속에서 2009년도 수출은 전년대비 12.6% 감소한 71억불에 그쳤으며 거의 모든 산업에서 수출이 저조하였다. 전체 수출의 감소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분야는 농업, 의류 등으로 농업은 전년대비 8.9% 감소, 직물과 의류수출은 전년대비 5.6% 감소하였다.

수입은 38.8억불이 감소하였는데 유류 12억불 등 중간재에서 총 30억불 규모, 기계 설비류 등 투자재에서 6억불 규모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수출감소액보다 수입감소액 비중이 매우 높아 무역수지적자는 전년도의 59.8억불 대비 47.8%가 감소한 31억불 규모이다. 한편 2008년 해외 근로자 송금액은 미화 29.19억, '07년 대비 16% 증가하여 무역적자의 50%를 충당했고 2009년에는 33억불을 달성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을 상쇄시켰다.

2008년 9월 금융위기의 결과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회수 및 막대한 군사경비 지출, 동부 지역의 재개발 비용 등으로 외환 보유고는 2008년 말에는 U\$17.53억(1.5개월 분 수입)으로 최저의 보유량 유지하기도 했으나 2009년 말에는 51억불이라는 기록적인 외환보유액을 가지게 되었다.

2010년에는 수입규모 135억불, 수출규모 83억불로 52억불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 제조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수출분야의 경우 고속성장을 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애로가 있는 반면 각종 SOC공사 증가, 경제활황으로 인한 소비재 수요증가는 물론 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수입 또한 대폭 증가함에 따라 무역적자폭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현상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물가 부문

'08년 국제적인 고유가, 식량 위기 등의 여파로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서 연평균 콜롬보 종합소비자물가지수(CCPI)는 28.2%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2009년에는 3.4%를 기록하여 198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7.8%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소매물가가 '09년도 3.4%에서 '10년에는 6.9%로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의류, 고무산업 등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외국투자기업 위주의 제조업체들에게는 생산제품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나 정부의 정책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다. 정책 기초

개방경제정책 기초와 외국인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는 지속될 것이다. 이는 사회, 경제 개발, 인프라건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관 및 외국원조국들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07/8년 동안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보여준 강화된 규제 금융 정책은 고금리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 결과 융자의 감소를 초래 하였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인하 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0-11년에는 국내외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세금의 부과율을 낮추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2010년에 자동차 수입관세 및 관련 연동세율을 대폭 낮춤에 따라 자동차 수입액이 '10년도에 220% 증가하는 기록을 보여주기도 했다.

투자유치 부문의 경우 대규모 투자유치에 집중한다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최저투자 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 하였으며 스리랑카 투자청도 구조조정을 통해 MEGA PROJECTS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스리랑카 주요 경제 부문별 성장추이 및 전망

	2007	2008	2009	2010
실질GDP 성장률	6.8	5.8	3.5	7.8
GDP(U\$ 억)	323	428	420	486
1인당 GDP(U\$)	1,634	2,014	2,057	2,399
산업생산증가율	7.6	6.4	4.2	7.9
농업생산증가율	2.2	10.0	3.2	4.7
실업률(평균)	6.0	5.8	5.7	5.4
소비자물가상승률(평균)	15.8	22.6	3.4	5.9
소비자물가상승률(연말)	18.8	17.0	4.8	6.9
은행간 단기금리	17.0	21.0	11.0	9.5
재정수지(GDP비중)	-6.9	-6.4	-9.7	-7.7
수출(억 달러), FOB	77	82	70	83
수입(억 달러), FOB	102	123	97	135
경상수지(억 달러)	-15	-40	-3	-17
대외채무(억 달러, 연말)	122	135	201	179
환율(미달러화 대비, 평균)	110.6	108.3	114.9	110.3

자료: 중앙은행 Annual Report 2009 및 EIU(2011.3월호, 2010년 통계)

2. 주요 산업 동향

가. 농수산업

농업은 홍차, 코코넛, 고무 등이며 수출용 홍차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세계 최대 홍차 생산국이며 외화 획득 수출 2위 품목으로 전체인구의 6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로 차(tea)의 수출이 저조하였지만 이 현상은 한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42개의 Tea 생산(제조)업체가 HACCP 인증서를 획득하여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입지가 만들어졌다.

스리랑카의 농업은 최근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충격으로, 자급용 식용작물 재배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농수산업 장려는 정부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예산에는 쌀, 차 재배 농민에게 저렴한 비료 지원을 위해 약 8,500만 불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2,200만 불의 예산이 버 구매 및 보관 작업을 위해 책정되었다. 토양 보호 및 비옥화를 위한 정책이 발표되었고 농작물 재배와 수출에 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내전지역인 북동부지방은 주요 쌀생산 지역이나 내전으로 인해 황 폐화되어 오히려 쌀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내전지역인 동북부지역의 쌀생산 증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물론 농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 Home Garden Project: 2009년까지 40만개 지원, 2010년에는 10만개 지원
- 관개수로 공사: Moragahakanda Kaluganga 프로젝트를 통해 Anuradhapura 등 3개지역 총 5천헥타르가 신규 쌀 경작지로 사용
- Uma Oya 프로젝트, Weheragala Reservoir 프로젝트 추진
- 비료를 저가로 공급, 십만 명의 농부에게 경작지 무상제공, 정부에서 고가로 쌀구매 등을 통해 생산량 증가 독려

수산업 비중은 GDP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이나 내륙지방의 수산업보다 스리랑카 인근의 해양수산업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도 생산량은 34만 M/T로 전년대비 6.5% 증가하였다.

나. 제조업 일반

섬유 및 의류산업 위주의 제조업분야는 경제성장 주도 부문으로, 전체 산업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공산품 수출액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스리랑카 2차 산업은 광산업, 제조업, 건설업, 유틸리티업 (전기, 가스, 상수도)으로 구분되며 총 GDP의 28.6%에 달한다. 이 중 제조업이 가장 큰 분야로 GDP 비중은 17.4%, 그 다음이 건설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다(2009년 기준). 스리랑카의 주요 제조업은 섬유, 의류, 피혁제품, 식품, 음료, 담배, 석유, 고무 및 플라스틱, 비철금속이다.

섬유 및 의류업계는 미주, EU 바이어들의 구매력 감소로 수출이 약10~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 및 의류업계의 침체로 인해 2009년 1월 중 30~40,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차후 2년동안은 침체기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에서 스리랑카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GSP+를 2010년 8월에 중단하면서 연간 약 5억불 가량의 세금 혜택을 잃게 되었다. 지속적인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제, 지역별 노동인력 수급의 어려움 해소, 섬유 및 의류 수출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산업구조 등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임금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도로, 항만, 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도 스리랑카 산업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스리랑카정부는 지방 경제발전을 위해 '300 EAP' 투자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책은 현재 콜롬보가 소속된 Western Province 에 밀집되어 있는 생산 공장들을 원거리 지방에도 유치하기 위해 공장 위치에 따라 5년~10년간의 세금 감면 혜택 등, 여러 가지 투자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한편, EU의 대스 GSP+ 혜택 (3년 연장, 2009~2011), 인도-스리랑카 FTA 협정을 통한 거대시장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은 수출증가 및 산업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 관광산업

해양관광 및 다수의 Natural Parks 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내전과 쓰나미로 인해 관광산업이 위축되었으나 종전 후 해외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National Geographic 은 관광과 관련, World's 20 best 에서 스리랑카를 2 위로 평가(2010 년판)하는 등 2010 년 1 월과 2 월의 전년동기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각각 32%, 66% 증가 하였으며 2010 년에는 총 45 만 명 정도 방문이 예상된다. 이는 내전이 일어나기 전인 1966-1982 년에는 매년 40 만 명 정도 방문할 정도로서 이는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 될 것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서두르고 있는데 2009 년 기준, 가용한 호텔 룸 수는 15,000 정도로서 1992 년 대비 50%만 증가하였으며 향후 2 년 이내 호텔 룸 수를 30,000 개까지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에 대해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업계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6 까지 추진할 관광산업 발전전략 수립 하였는데 주요골자는 보다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2016 년까지 연간 1.5 백만 명의 관광객 유치, 내전지역이었던 동북부 집중 개발, 세계수준의 서비스수준 및 시설 건립 등이다.

라. 통신 및 IT 분야

1) IT 산업 개황

스리랑카는 기존의 농업 중심 국가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인 ICT 산업을 적극 육성해 빈곤의 감소와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식과 부의 재분배를 꾀하고 있다. 2009년도 4만 명 인력, 산업규모 U\$2.75백만 수준이나 2-3년 이내에 15만 명의 인력과 산업규모 U\$10억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스리랑카 ICTA자료)

스리랑카 통신 현대화 프로젝트의 주요 재원은 일본정부(OECF), 스웨덴 개발청(SIDA), 한국정부(EDCF) 등이며 NTT 의 SLT 지분 인수, Bell 사의 합작투자, 싱가포르 허치슨사의 이동통신사 설립 등 민간투자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있다.

특히 스리랑카 정부는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남아시아 중 가장 먼저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다. Lanka Government Network 이라는 프로젝트로서 중앙정부-지 방정부간 통신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월드뱅크의 스리랑카 전자정부 구축지원 사업 일환으로 삼성네트웍스가 시행사 이다. 2004 년 시작하여 동북부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총 475 개의 NOC (Network Operation Center)설치 중이다.

2) 전반적인 ICT 인프라 수준

고정 통신 (Fixed Line)은 Sri Lanka Telecom만 Wire Line (유선)을 공급하며 Lanka Bell 과 Suntel 은 Wireless Line(무선) 을 공급하고 있다. Sri Lanka Telecom이 가장 많은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87%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동 통신은 Dialog, Tigo, Mobitel, Hutch, Airtel 5개의 이동 통신 사업자가 있다. 이중 Dialog 가입자수가 가장 많다. 스리랑카가 남아시아 7개국 중 이동 전화 보급률과 발전속도가 앞선 이유는 문맹률이 10%를 넘지 않고 영어가 공용어라는 점이 이동통신 사업발전에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 18세에서 35세까지의 인구가 강한 테크노 세비(Techno Savy: 최신기술을 동경하는 마니아적 성향이 강한)적인 성격으로 최신 IT장비 구매 욕심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인도에서 넘어오는 모조품들, 외국에서 사용하고 버린 물건들을 손질하거나 케이스만 바꾸어 파는 중고품, 또는 밀수품들이 시장에 많아 나와 있어 트리휠(삼륜택시) 운전사나 일용직 근로자들도 쉽게 이동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하여 기본요금이 없고 자신이 쓰는 만큼만 요금을 내는 Pre-paid (선불카드) 제도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신만’ 하는 전화로도 사용된다. 선불 SIM카드는 약 1달러 정도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큰 특징이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는 10개가 있으나 아직 ADSL을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 속도는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다.

아울러 많은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지 않고 홈페이지를 구축한 업체들도 충분한 콘텐츠를 서비스하지 않고 있어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홈페이지 운영여부로 회사의 건실도를 판단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마. 항만

콜롬보항의 화물처리물량 증가는 인상적이다. 주로 환적 서비스(주로 인도항 화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스리랑카 국영 스리랑카 항만청(SLPA)의 새로운 사업개발과 공격적인 마케팅 캠페인이 콜롬보항의 화물 처리량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리랑카 항만청은 방글라데시 치타공, 파키스탄 카라치 환적화물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feeder서비스 시장개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는 콜롬보항이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주요 동서 해상 운송라인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남아시아 국제 환적 화물 허브화 전략이다. 아울러 스리랑카 항만청(SLPA)은 대대적인 항만 인프라 확충 공사를 진행 중이며 동 공사가 완료될 경우 스리랑카는 서남아의 허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표적인 항만(확장, 건설) 공사 추진현황(2011.4월기준)

- 콜롬보 사우스항 방파제 공사: ADB 자금, 현대건설이 수주, 2012 완공 예정.
- 함반도타(스리랑카 남부지방) 항만 공사 - 중국 정부 지원 자금, 2011 완공 예정으로 서비스+산업 항구, 향후 환적항으로 사용될 계획
- Galle 항구공사: 일본 정부 지원 자금 2009년 초에 공사가 시작. 주로 유람선, 요트 정박장으로 사용 될 계획으로 2012 완공 예정
- Oluvil 항구공사: 동부지역의 경제 발전 및 주민들의 사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사중인 Oluvil 항구 공사는 네덜란드 정부 지원 자금으로 2010 완공함. 주로 상업, 어업 항구로 사용되는 소규모 항구

□ 향후 계획 중에 있는 공사 (2011.4월)

- 콜롬보 사우스 항,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공사: 8,000 TEU 물량을 동시 2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콜롬보항 개발이 최종 완료되는 2020에는 1천만 TEU의 처리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 2011년 4월 기준 F/S를 계획중

- 트린코말리 항만 공사: 트린코말리 항구는 콜롬보항에 비해 10배 정도 자원이 (수심, 지형) 풍부한 세계 2위의 천연 항구

바. 석유 및 가스

석유 와 Gas는 100% 수입에 의존하며 석유는 국영회사인 Ceylon Petroleum Corporation (CPC) 과 민영회사인 인도계 Indian Oil Corporation (IOC)를 통하여 공급하고, Gas는 민영회사인 Shall Gas 와 Lauf Gas가 공급 한다. 이 업종들은 외국인 허가가 제한된(Regulated) 업종 중의 하나이다. 실론 석유 공사 (Ceylon Petroleum Corporation)은 CEB (스리랑카 전력청)등을 포함한 국가 공공기관들이 기름값을 지불치 않아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석유 개발과 관련해 스리랑카 석유 자원 개발부는 Mannar 해저 Block 2 개발권을 국제 입찰을 거쳐 인도의 Cairns Lanka Ltd에 낙찰하였다. 석유 개발 활동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 되면 다시 오를 국제 유가를 감안할 때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2009년 수입액은 원유 9.7억불, 정유 10.9억불, LPG가스 1억불규모로서 전년대비 34%가 감소하여 무역수지의 적자폭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사. 전력

2008년 기준 스리랑카의 발전설비 용량은 2,644MW 이다. 발전 비율은 수력발전-40%, 화력 (오일)발전-60%. 공급 비율은 산업용-40%, 가정용-38%, 상업용-22% 이다. 매년 약 8%의 수요 증가를 전망하여 2010년까지 전력 수요는 약 3,000MW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의 전력수요를 예상하여 동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규모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확정 한 상태이다. 이중 중국정부의 차관을 통해 건설될 1천 MW급 화력발전소가 가장 큰 규모이다.

스리랑카 연도별 전력수급 현황

(단위: GWh)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예상)
수 요	8,644	9,533	10,393
공 급	10,314	11,313	12,283
- 재래식 발전	9,952.6	10,843.2	11,668.7
- 재생에너지	361.4	469.8	614.3

자료: Long Term Generation Expansion Plan(스리랑카 전력청 보고서 2010년)

재생에너지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 수준이 미흡하지만 정부에서는 2015 년까지 스리랑카 총 전력에너지의 10%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조달할 계획에 있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프로젝트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스리랑카 전력청과의 전기매매협약 체결 프로젝트 현황, '10.3 월 기준

구 분	개발프로젝트수(개)	용량(MW)
소수력	27	59.5
풍 력	8	95.6
바이오메스	2	1.8
계	37	159.9

자료: CEB(스리랑카 전력공사) 홈페이지

신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할 경우 적정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한 주요골자는 "Energy Fund" 조성추진으로 신 재생에너지 개발 시 향후 15 년간은 resource cost(royalty)를 부과하지 않으며 정부에서 징수하는 resource cost 는 "Energy Fund"에 귀속된 다는 것이다.

신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IPP 를 통한 민간 베이스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는 기술지원, Cost based 전력구매가격 보장 및 필요 시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 하고 있다.

아. 도로 및 철도

스리랑카는 육로가 국가의 중추로서 2009년도 기준 11,919KM가 National Highway (class A&B), 16,532 KM가 Provincial roads (Class C&D, 차량 통행 가능도로)이다.

□ 현재 공사중인 육로 공사

- Southern Expressway (Colombo-Matara) 2011 완공 예정 (GALLE까지는 7월 완공예정)
- Colombo-Katunayake Expressway 건설을 위하여 China EXIM과 용자 협정을 2008년 체결. 2012년 완공 예정
- 콜롬보 외곽지 순환 고속도로 (Colombo Outer Circular Highway) 프로젝트가 계획에 있으며 현재 부지 매수 및 입찰 서류를 준비 중
- 2017년 완공 예정인 Northern Expressway 계획 중. 첫 단계인 Katunayake-Anuradhapura Road는 2012년 완공 예정
- Padeniya-Anuradhapura 공사 (80KM) 도로 개선 사업을 한국기업인 경남기업이 수주. 이 도로는 한국의 EDCF자금으로 건설
- 이 외 Colombo-Kandy, Colombo-Badulla 간 Alternative Highway Project 들에 대한 타당성 검사 (Feasibility Report) 가 진행 중

육로에 비해 발달이 미약한 철도망은 총 8,790KM(2009년)로서 2008년 8,971km대비 오히려 감소하였다.

콜롬보-Matara 간 철도 up-grade (2012년 완공 예정) 및 확장 공사 자금 용자를 인도 정부와 협정하였으며 Matara-Kataragama 간 27KM 확장 공사 (2014년 완공 예정)를 위한 부지매수가 완료 되었다.

스리랑카 철도청은 281KM에 달하는 동부 지역의 철도망을 up-grade (2012년 완공)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미확정이다.

자. 스리랑카의 주요 프로젝트

스리랑카 주요 프로젝트 지도



Road Development Authority(턴키 베이스 공사)

No	Project	길이 (km)	비용 (U\$백만)	Budget Source	Procedure
1	Hatton – Nuwara Eliya		37	EDCF	‘10.12.15마감
2	Anuradhapura– Trincomalee	101	45.0	ADB	2011Tender
3	Dambulla– Habarana	23	16	Saudi Government	2011Tender
4	Matara – Akuress	4	5.7	ADB	2011Tender
5	Hambantota Hub Development	315	200	ADB	2011Tender
6	Peradeniya – Badulla – Chenkaladi	150.86	85.2	ADB	2011Tender
7	Kandy – Padiyathalawa	29.13	11.2	ADB	2011Tender
8	Ambalangoda – Pitigala	13.13	8.0	ADB	2011Tender
9	Badulla – Andaulpotha	47.98	18.8	ADB	2011Tender
10	Battaramulla– Pannipitiya	3.32	5.8	ADB	2011Tender
11	Colombo – Horana road	28	38.15	JICA	2011Tender
12	Kurunegala – Madampe	23.6	13.0	ADB	2011Tender
13	Pelawatta – Morawaka	36	18.8	ADB	2011Tender
14	Moratuwa – Piliyandala	2.49	4.0	ADB	2011Tender
15	Polagahawela – Kegalle	11.7	6.4	World Bank	2011Tender
16	Kegalle – Karawanella	35.2	28.5	World Bank	2011Tender

Tourism Development Project

No	Project	비용 (U\$백만)	Budget Source	Procedure
17	Kalpitiya Tourism Resort	–	PPP *주)	Tender 2011
18	Trincomalee Resort Development	–	PPP	Tender 2011
19	Batticaloa Resort Development	–	PPP	Tender 2011
20	Arugam Bay Surf Resort	–	PPP	Tender 2011

*주) PPP :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Urban Development Projects

No	Project	비용 (U\$백만)	Budget Source	Procedure
21	Jaffna Township Development	–	PPP	Tender 2011
22	Colombo Galle Face (Defense Head Quarters Relocation)	–	PPP	Tender 2011
23	Battaramulla (Administrative Capital Defense)	–	PPP	Tender 2011

Water Supply and Drainage Projects

No	Project	비용 (U\$백만)	Budget Source	Procedure
24	Makandura, Pannala & Kuliypitiya	13 Million	PPP	Tender 2011
25	Alawwa – Polgahawela	107 Million	PPP	Tender 2011
26	Ruwanwella WSS	22 Million	PPP	Tender 2011
27	Jaltara – Ranala	11.8 Million	PPP	Tender 2011
28	Pathadumbara Integrated	79.5 Million	PPP	Tender 2011
29	Dambadeniya	42.5 Million	PPP	Tender 2011
30	Puttlum/ Anamaduwa	51.4 Million	PPP	Tender 2011
31	Matara WSS – Stage IV (With Salinity Barrier)	57.4 Million	PPP	Tender 2011
32	Northern Province (Jaffna – Kilinochi)	90 Million	ADB	Tender 2011

Port Projects

No	Project	비용 (U\$백만)	진행사항
33	Hambantota Port 개발	6억불 규모 (유상원조)	- Port공사는 중국원조로 진행 중 - 부대시설공사는 BOT방식
34	Trincomalee Port 확장	-	- 추진 필요성 검토 중
35	Galle Port 개선	-	- F/S 진행 중

Airport Development Project

No	Project	비용 (U\$백만)	진행사항
36	Hambantota Air Port 개발 (스리랑카 제 2 국제공항)	2억불규모 (유상원조)	- 공항공사는 중국원조로 진행 중 - 부대시설, 위락시설은 BOT방식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 (ISL FTA): 2000년3월1일 발효

□ 원산지 기준 규정

- FOB가격에 최저 35%의 국내 부가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자국산 재료를 사용치 않은 제품일 경우에는 제품의 HS 코드 첫 4자리 숫자에 변동이 있어야 한다.
- 충분한 공정(sufficient process)이 이루어진 상품
- FOB가격에 최저 25%의 국내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으로서 상대국(수입국)산을 최소한 10% 추가한 상품

□ 현황

스리랑카의 茶, 향신료 및 의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도보다 기계화된 의류 제조산업을 통해 스리랑카 의류제품의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여 인도의 의류 제조산업을 위협시키기도 하였다.

양국의 주력산업 보호를 위해 교역 제한품목을 선정하였는데 스리랑카는 농업, 가축, 고무, 제지, 철강, 기계류, 전기제품 등이고 인도는 의류, 플라스틱, 고무 등이 FTA 체결 후 인도 정부에서 다른 국가에도 상당수 품목, 특히 스리랑카의 대인도 주력 수출 품목들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스리랑카 수출제품의 관세우위가 상당히 악화되어 수출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 파키스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 (PSLFTA): 2005년6월12일 발효

□ 원산지 기준 규정

- FOB가격에 최저 35%의 국내 부가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자국산 재료를 사용치 않은 제품일 경우에는 제품의 HS 코드 첫 4자리 숫자에 변동이 있어야 한다.
- 충분한 공정(sufficient process)이 이루어진 상품
- FOB가격에 최저 25%의 국내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으로서 상대국(수입국) 산을 최소한 10% 추가한 상품

다. EU GSP+ 혜택: 2011년12월31일까지 유효하나 EU집행위원회에서 한시적 유예발표

EU의 GS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권 및 노동에 대한 권리,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양호한 지배구조(good governance) 분야의 27개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하나 EU의 조사(08.10-09.10)결과 스리랑카는 인권 및 노동에 대한 권리부문에서 몇 가지 중대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자료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발표자료, 09.10.19)을 내리고 2010.8.15부로 EU GSP+ 혜택을 한시적 유예하고 있다.

26년간 지속된 타밀반군과의 내전이 2009년 5월에 종식되었는데 동 내전의 승리를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2005년부터 비상조치를 선포하고 자국민에 대해 인권 및 노동부문을 비적절하게 통제 및 관리하였다는 것 이며 동 기간 중 언론인 살해 등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 일반인 실종 및 구금, 정부군 통치지역에서 소년병 모집을 하였다는 것이 유예조치의 주요 원인이다.

유예조치로 인해 스리랑카 의류협회에서는 연간 5억불 규모의 손해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예상외로 2010년 하반기에 의류수출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는 각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자체적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라. 투자 보호 협정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s)

- 협정 국가들: 영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란, 중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파키스탄, 프랑스, 태국, 독일 등 20여 개국

마. 이중 과세 면제 (Double Taxation Relief)

- 협정 국가들: 인도, 말레이시아, 일본, 파키스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미국, 태국, 중국, 캐나다, 한국, 프랑스, 이란, 독일 등 30여 개국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총괄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더욱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오히려 개선되었다. 2010년에는 수출도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보다 많이 증가함으로써 52억불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

대폭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한 사유는 국내 제조기반이 취약하여 대외경쟁력을 갖춘 수출제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가 활황세로 이어짐에 따라 기계, 건설자재 등 자본재는 물론 소비자들의 생필품 수요도 동반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에 자동차 수입세금을 약 25%정도 인하함에 따라 차량부문의 수입이 '09년 대비 7억불 증가하였다.

무역수지 추이

(단위: US\$ 백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수 출	7,640	8,110	7,084	8,307
수 입	11,296	14,091	10,296	13,512
무역수지	-3,656	-5,981	-3,212	-5,205

자료: Annual Report 2007-2010(스리랑카 중앙은행)

나. 수출동향

2009년도 공산품의 수출이 전년대비 10억불 정도 감소하였으며 농산물의 경우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차 생산이 감소, 약 1억불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09년대비 12억불의 수출이 증가하였는데 의류 2.5억불, 고무 2억불, 차(Tea) 2억불 등 주력 수출상품에서 큰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US\$ 백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1. 농산물	1,507	1,855	1,690	2,041
- 차	1,025	1,272	1,185	1,375
- 천연고무	109	125	99	170
- 코코넛제품	141	171	166	174
- 기타	232	287	240	322

2. 공산품	5,967	6,158	5,305	6,173
- 식음료 담배	514	458	406	503
- 섬유직물 의류	3,340	3,469	3,274	3,504
- 고무제품	482	542	384	568
- 석유제품	169	135	135	216
- 보석(가공)	367	461	330	335
- 기계장비	542	435	330	488
- 기타	553	658	446	560
3. 광산물	128	98	89	93
- 보석	105	77	69	70
- 기타	23	21	20	22
4. 기타	38	0	0	0.3
계(1+2+3+4)	7,640	8,111	7,084	8,307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2010년도 수출대상국중 10대국가 수출비중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으로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77%)와 고무(1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영국은 의류가 82%, 인도는 향신료, 고무, 사료가 3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외에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로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가 대부분이다.

국가별 수출동향

(단위: US\$ 백만)

수출대상국	2007	2008	2009	2010
1. 미국	1,980	1,886	1,590	1,769
2. 영국	1,017	1,090	1,024	1,023
3. 인도	515	418	325	467
4. 이탈리아	391	444	438	464
5. 독일	437	405	348	401
6. 벨기에	406	408	368	387
7. UAE	209	255	211	247
8. 러시아	202	220	192	243
9. 싱가포르	(순위밖)	(순위밖)	142	187
10. 네덜란드	151	157	156	185
11. 일본	161	162	140	169
40. 한국	28	34	74	30

자료: World Trade Atlas

다. 수입동향

2009년에는 수입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우선 정부의 쌀 확대생산 독려 및 비료제공, 일정 가격에 쌀 전량 정부수매 등에 힘입어 쌀 생산이 확대되어 수입물량이 축소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석유의 수입을 전년 대비 12억불 축소하는 등 중간재의 수입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0년도에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문은 석유와 생활소비재 부문이다. 소비재는 9억불 증가, 석유도 9억불 정도 증가하였다. 또 하나는 차량수입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3/4 분기에 관세 및 이와 연동되는 세금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경기활황세와 맞물려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욕구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기인하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중고자동차는 너무 많이 수입되어 수입상들은 재고처리에 고심하고 있을 정도이다. 자본재중 석유를 제외

한 증가금액이 약 8억불 정도인데 이는 경제활황에 따른 자본재 수요 또한 증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US\$ 백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1. 소비재	2001.8	2,559.6	1,971.8	2,870.3
○ 음료	1064.8	1,513.0	1,246.2	1,641.8
- 쌀	38.7	44.3	22.9	59
- 설탕	154.1	206.4	218.7	363.3
- 밀	233.9	375.5	259.3	257.2
- 기타	638.0	886.8	745.4	962.3
○ 기타 소비재	937.1	1,046.6	725.6	1,228.5
2. 중간재	6517.3	8,344.3	5,669.2	7,495.9
○ 석유	2500.7	3,368.2	2,166.6	3,018.7
○ 비료	192.5	576.6	193.4	240.5
○ 화학	281.4	361.4	312.5	389.9
○ 섬유의류	1632.2	1702.0	1,442.0	1,732.3
○ 기타	1910.5	2,336.1	1,554.6	2,114.5
3. 투자재	2685.2	3,047.9	2,450.8	2,969.6
○ 기기장비	1246.7	1,330.7	1,012.8	1,205.9
○ 운송장비	364.5	438.8	436.3	642.2
○ 건축자재	780.3	942.6	714.5	809.6
○ 기타 투자재	293.6	335.9	287.3	311.9
4. 기타	92.2	139.4	114.8	175.9
계(1+2+3+4)	11296.5	14,091.2	10,206.6	13,511.7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2010년 주요수입국가중 인도, 싱가포르,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주요 수입품목은 운송장비(자동차, 오토바이, 트리스 등, 5억불), 석유(4억불), 의약품(1억불) 등으로 '09년대비 차량의 수입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싱가포르는 석유/LPG (6억불), 기계류 (1.5억불), 가공식품(1.4억불), 비료(1억불) 등이 주요 수입품목으로 석유와 유가공제품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계류, 섬유원단, 철강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이란은 석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인 자동차 수입이 스리랑카 정부의 자동차세금 축소에 따라 수입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US\$ 백만)

수입대상국	2007	2008	2009	2010
1. 인도	2,784	2,840	1,695	2,549
2. 싱가포르	1,107	1,601	1,105	1,616
3. 중국	928	1,107	881	1,242
4. 이란	747	1,200	845	659
5. 일본	(순위밖)	232	96	587
6. 홍콩	724	695	516	581
7. 말레이시아	348	359	261	384
8. UAE	372	464	295	336
9. 태국	231	298	271	316
10. 파키스탄	(순위밖)	192	196	281
18. 한국	183	199		202

자료: World Trade Atlas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총괄

2009 년까지 대 스리랑카 수출규모는 2008 년도 정유수출액 393 백만 불을 제외할 경우 2 억불 내외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규모를 감안할 경우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1 억불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광물 및 식물의류에 편중되어 있다.

2010 년에는 스리랑카와의 교역규모가 302 억불로 전년대비 23.7% 증가하였는데 주 요인은 수출증가에 기인한다.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44.7%가 증가한 246 백만 불로서 수출 주력품목 대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출품목 종류도 전체적으로 보다 다변화하였다.

2011.2 월까지의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대비 43%가 증가하였는데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2011 년의 수출액도 전년도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수입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다.

한-스리랑카 무역수지

(단위: US\$ 백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금액	증감율
수 출	186	627	170	246	44.4
수 입	47	59	74	57	-22.9
무역수지	139	568	96	189	96.8

자료: KITA 무역통계

나. 대 스리랑카 수출동향

대 스리랑카 수출규모는 2002년을 정점으로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까지 계속 감소추세를 기록하였다. 그 원인은 스리랑카의 의류수출 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한국 진출기업들도 철수내지 사업 규모를 줄임에 기인한다.

특히 2000년 후반기에는 타밀 반군과의 내전으로 치안불안이 가중되면서 스리랑카 경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교역도 더욱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8년도 정유수출액 3.9억불을 제외할 경우 최근 4년간 매년 2억불 내외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내전이 종료된 2009년 하반기부터 스리랑카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전년대비 44.4%의 수출증가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2011.2월까지의 수출실적 역시 전년대비 43%가 증가한 것으로 추산해보면 2011년도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대 스리랑카 연도별 수출현황

(단위: US\$ 백만, %)

연도	금액	증가율
2001	335	-12
2002	305	-9
2003	287	-5.8
2004	243	-15.2
2005	205	-15.7
2006	193	-5.7
2007	186	-3.7
2008	627	236.7
2009	170	-72.8
2010	246	44.4

자료: KITA 무역통계

품목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석유류가 2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편직물, 폴리에스터 및 면사가 많이 수출되고 있다. 두번째로는 화학공업제품으로 윤활유,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그 이외에 기계류(17%), 철강금속제품(16.3%) 순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재제품보다는 산업재의 비중이 높은 작지만 유망한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대 스리랑카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2008		2009		20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	총계	627	236.7	170	-72.8	246	44.4
1	편직물	25	-13.8	24	-3.4	26	7.6
2	아연도강판	10	54.6	8	-18.1	13	49.8
3	윤활유	0.03	90.9	6	20,619	13	103.3
4	합성고무	10	20.3	5	-48.8	13	141.1
5	폴리에스터직물	14	-7.9	12	-10.5	12	-5.9
6	합성수지	12	-4.7	9	-19.3	11	17.0
7	승용차	26	130.9	6	-77.3	10	59.7
8	동조가공품	0.1	-48.6	0.4	287.9	9	1,925.7
9	기타석유화학제품	3	35.2	4	43.0	8	78.8
10	기타농기계	4	91.0	4	9.4	7	63.0
11	건설중장비	10	928.2	3	-72.2	6	134.3
12	수산통조림	2	신규진입	2	5.1	6	177.6
13	기타정밀화학원료	2	14.1	2	-5.3	4	147.7
14	신문용지	6	35.2	3	-50.2	4	19.6
15	면사	-	-	0.2	-76.7	4	1,962.1
16	의약품	2	-37.7	2	9.1	3	49.9
17	철강관	0.5	-75.5	2	182.5	3	108.3

주: 품목분류는 MTI 4단위

자료: KITA 무역통계

다. 수입동향

대스리랑카 수입규모는 2000년 후반기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연간 1억불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스리랑카의 주력 수출품목이 의류와 홍차(Tea)인데 의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아니며 홍차(Tea) 제품도 우리나라의 소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입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2010년에 우리나라의 대스리랑카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스리랑카로부터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보면 단기間に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진 않는다.

대 스리랑카 연도별 수입현황

(단위: US\$ 백만, %)

연도	금액	증가율
2001	41	-28.9
2002	39	-6
2003	31	-21
2004	45	46.1
2005	38	-14.9
2006	39	1.7
2007	47	22.2
2008	59	25.6
2009	74	-24.4
2010	57	-23.5

자료: KITA 무역통계

스리랑카로부터의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농산물, 섬유제품 그리고 고무제품을 제외하고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산물(42%)은 식용이 아니라 사료 등의 첨가물 또는 코코넛 재료 등이 대부분이며 섬유제품(34%)은 편직물 의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 스리랑카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2008		2009		20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감율
-	총계	59	25.6	74	24.4	57	-23.5
1	박류	17	22.3	11	-33.9	15	37.9
2	직물제 의류	8	36.4	11	35.6	9	-16.7
3	기타식물성재료	6	2.5	7	10.1	6	-2.5
4	편직제 의류	6	65.5	6	-2.0	5	-17.7
5	기타섬유제품	7	7.1	5	-25.4	5	11.3
6	타이어	3	48.0	2	-48.3	3	47.0
7	기타비금속광물	1	-21.5	2	73.3	2	-8.0
8	천연고무	2	239.2	1	-27.6	2	51.2
9	마사 및 기타	1	0.7	1	0.6	1	-1.6
10	곡분	3	신규진입	0.02	-99	0.9	5,086
11	계	0.2	-50.9	0.4	111.8	0.8	103.3
12	주방도자기용품	0.2	-53.8	0.3	51.5	0.7	192.0
13	기타고무제품	0.5	-41.1	0.3	-32.0	0.6	100.7
14	자동차부품	0.3	-21.1	0.3	-10.0	0.6	125.6

주: 품목분류는 MTI 4단위

자료: KITA 무역통계

3. 수입규제제도

스리랑카의 통상정책 기본방향은 대외지향적 무역제도, 스리랑카 상품의 해외시장 개척 강화,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수입규제 장벽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1995년 스리랑카는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었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협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FTA가 발효중인 인도, 파키스탄 국가로 수입되는 품목들은 특혜 관세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제조산업 발달이 미흡하여 대부분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조세수입 확대를 위해 수입제품에는 총 9 가지의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수입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다. 자국산제품에는 부가세 및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물세(NBT, 총금액의 3%)만 부과하고 있다.

수입제품의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품세, 부가세, 수입관세 및 인프라개발세 등이다. 스리랑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lk)의 “Tariff Calculator”를 이용하면 HS CODE 별로 세금종류에 따른 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CIF 가격에서 소비자가 총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세금종류별 계산식

세 금	계산식
수입관세(Custom Duty)	- CIF 가격 x 세율(HS CODE 별 관세율)
할증료(Surcharge)	- 수입관세 x 세율(15%)
추가수입세(Cess Levy)	- (CIF 가격 x 1.1) x 세율(HS CODE 별 상이)
항만/공항개발세(PAL)	- CIF 가격 x 세율(5%)
부가세(VAT)	- (CIF 가격 x 1.1+ 수입관세+할증료 +추가수입세+ PAL+물품세) x 세율 · 부가세율: 면제, 12%(대부분) 또는 20%
물품세(Excise Duty)	- (CIF 가격 x 1.1+ 수입관세+할증료 +추가수입세 +PAL+ 부가세) x 세율 (HSCODE 별 상이)
사회공헌세(Social Responsibility Levy)	- (수입관세+할증료+물품세) x 세율(1.5%)
인프라 개발세(RIDL)	- (CIF 가격+수입관세+할증료+추가수입세+PAL+부가세+물품세+1) X 세율(HS CODE 별 상이)
건물세 (한시적 부과) (National Building Tax)	- 상기 전체금액 x 3%

자료: KBC 자체조사

한편 자국의 규모있는 제조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통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만들고 있는데 예를들면 문구류, 담배, 치솔, 식품류, 신발류 등이다. 또한 자동차, 에어컨, 가축핸드백, 장신구 등 사치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 및 이와 연동되는 세금이 높아 소비자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아울러 자체소비 비중이 매우 높은 차(Tea)산업의 경우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커피의 소비를 축소시키기 위해 관세를 높게 책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 커피제조업을 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가격으로 스리랑카에 커피를 수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가. 수입 라이선스 및 쿼터

스리랑카는 일부품목에 대해 수입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해당품목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수입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품목이 수입관리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입라이선스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중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스리랑카의 수입수요가 많은 반면 수입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절차도 복잡하여 수출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수입라이선스를 받은 현지 에이전트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에이전트와 거래를 하고자 할 때인데 기존 에이전트는 5년간의 독점 판매권을 넘겨주는 대신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에이전트의 동의가 없으면 그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에이전트가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제도 때문에 기존 에이전트가 보상금을 요구하면 협상을 하더라도 약자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구 분	주요 대상 품목
Drugs	Western drugs, Veterinary drugs, Ayurvedic drugs, Homoeopathic drugs, Chinese Herbal, Surgical Equipment etc.
Vehicles & Parts	Heavy vehicles, Ambulance, Hearses, Garbage Truck, Fire brigade Truck, For Donation, For Embassey office, 일부 자동차 부품 등
Chemicals, Animal Products, Agro Products	Petroleum, Gas, Cereals etc
Telecommunication	Telecom products, Used refrigerators, Air conditioners etc
기타	폭발물, 무기, 게임기, 전자장난감, 담배종이, 코인/메달, 중고 가구, Sludge Oil 등

자료: Import & Export Control Department (보다 세부품목은 www.imexport.gov.lk --> Services 참조)

아울러 수입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 해당품목 관할부서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면, 약품/의료기기 수입의 경우 보건부(Ministry of Health)내 약품 및 화장 장치위원회(CDDA- Cosmetic and Drugs Devices Authority)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와 유사하게 무기류 및 탄약은 국방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스리랑카는 WTO에 수입쿼터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한바 있으며 2009년 기준 수입쿼터품목은 없다.

나. 최근 수입 규제 동향

□ 중고차 수입 규정 강화

2006.11.1일부로 중고차 수입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는 자동차 등록증을 위조하여 폐차(고물) 수준 의 중고차 수입을 방지하고, 고질적인 수입상들의 언더밸류 관행 시정, 차량이 1-2년 된 대형 사고차가 정상적인 차로 둔갑 수입되어 고가에 팔려 중고 수입상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수출국내 공인 지정된 검사소의 검사증 첨부, 선적전 검사 의무화, 수출 전 일정 크기의 하자 수리 및 에어 필터 등 주요 소모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중고자동차는 출고되어 처음 등록된지 3년 이하의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 스리랑카 세관 의류 불법 원산지 위조활동에 대한 단속 강화

스리랑카 세관은 콜롬보항을 경유한 의류수출활동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스리랑카 세관은 현재까지 실제로는 중국산 의류이면서 콜롬보항에서 스리랑카 산으로 둔갑된 의류를 역류 조치한 바 있다.

스리랑카 의류는 EU GSP+제도하에서 관세 없이 EU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중국산 의류는 12.5%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EU가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위조하는 것이다. 콜롬보세관은 콜롬보항을 경유한 환적 물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스리랑카 상무부, 투자청과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한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없다.

5. 관세제도

기본적으로 대외무역과 관세정책은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2년 시행된 관세제도는 1,663개 품목에 달하는 무관세품목이 새로운 2% 관세밴드로 포함되었고 59개 품목은 20% 밴드, 일부 기계류와 장비 등 820개 품목은 5% 밴드를 그대로 유지하며, 1260개 품목은 25% 밴드를 유지하였다.

스리랑카 관세율 체계는 수시로 변경되는데 현재는 HS분류제도에 기초한 다수 밴드 수입 관세 스케줄을 적용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 밴드는 0%, 2.5%, 6%, 15%, 28%이다. 대부분의 농산물 및 식품, 소비재, 화학, 국내에서도 제조되는 중간재는 28%이며, 기초 원자재는 2.5%, 반가공 원자재 6%, 중간재 15%, 완성제품은 대부분 28%이다.

관세는 일반관세율(General Rate)과 특혜관세율(Preferential Rate)로 구분되는데 특혜관세율 적용은 한국이 포함된 방콕협정 즉 Asia-Pacific Trade Agreement(AP) 회원국을 비롯하여 Least Developed Countries(AD)/ Bangladesh(BN)/Agreement on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GT)/ INDIA(IN)/ Pakistan(PK)/ SAARC(SA)/ SAFTA(SF)/ 최저개발국중 SAFTA에 해당되는 국가(SD) 등 상기 9개 항목에 해당되는 국가에 일반관세율과 다른 특혜관세율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상기의 9개 항목별로도 관세율을 상이하게 적용한 품목이 많다.

6. 주요인증제도

스리랑카 표준원(SLSI: Sri Lanka Standard Institute)은 스리랑카 국가표준기관으로 1965년에 설립되었으며 관련법은 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Act of 1984이다. 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스리랑카도 상품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국제 표준 채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품질관리 및 보증에 관한 ISO 9000시리즈 표준, 환경관리시스템인 ISO 14000 표준, 식품안전 표준인 HACCAAP(Har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보증, GMP(Good Management Practices Certificates)를 채택하고 있다.

스리랑카 강제기술 규정은 87개가 시행되고 있다. 수입(표준 및 품질관리)관리규정 2001은 스리랑카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허되는 85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 수입시에는 스리랑카 표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수입검사 스킴(IIS: Import Inspection Scheme)을 받아야 한다. 수입상은 수출국 실험기관(스리랑카 표준원이 인정한 기관, 또는 공인된 증명기관)이 발급한 규정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인증서는 스리랑카가 규정한 표준에 부합됨을 인증하는 것이다.

스리랑카 인증제도는 스리랑카 부합성 평가를 위한 스리랑카 인증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스리랑카 인증 위원회(Sri Lanka Accreditation Board)는 스리랑카 국가인증 기관으로 2005년에 설립되었는데 근거법은 Act 32 of 2005이며 주요 수행업무는 부합성 평가에 관계된 검사시험소, 의료실험실의 인증, 검사, 공인을 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품 검사 제도에 관한 기술규정은 관보(Gazette Extraordinary 1203/29, September 28, 2001)을 참고하면 된다. 동식물, 씨앗, 생피 등의 수입은 특별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출국의 검역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입 전 수입허가서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데, 수입허가서에 정부가 요구하는 검역 방법 (인증서)를 명시해 준다.

1) 표준 시행

규제당국이 법률로 표준을 정했을 경우 이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강제적이며 이들 강제 표준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보호국, 식품국, 수입/수출 통제기관, 자동차 등록부, 살충제 등록소 등이 정하고 있다.

2) 스리랑카 표준마크 (SLS MARK)

스리랑카 표준원(SLSI-Sri Lanka Standard Institution)은 1984.ACT NO6에 의거하여 스리랑카 표준마크의 심사접수, 심사, 승인 등 제반 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SLSI는 ISO회원이기 때문에 ISO기준에 부응하도록 스리랑카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표준의 종류는 총 1,250여 개가 있으며 심사 및 승인비용은 거의 무료이나 SLS마크를 받으면 매년 판매규모에 비례하여 SLS MARK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인증 (Certifications)

SLS MARK 이외에 SLSI에서는 ISO 9001, ISO 14001, HACCP (SLS 1266/ISO22000), GMP, OHSAS 18001, SA8000를 심사 및 인증한다.

- ISO 9001
 - 국제 ISO 9001 기준에 따라 심사 및 인증을 부여
 - 사전인증 수수료 약 200 달러, 연간 등록 수수료 약 800 달러
- ISO14001
 - 12 개 품목군이 대상이며 국제 ISO 기준에 따라 심사 및 인증을 부여
 - 사전인증 수수료 약 500 달러, 연간 등록 수수료 약 900 달러
-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Certification
 - HACCP 국제기준에 따라 심사 및 인증을 부여
 - 사전인증 수수료는 감사일자에 따라 다르며 1,000 달러 이상 소요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식품산업에서 사용하는 스리랑카 자체 인증제로 식품의 생산과 관련된 위생, 교육, 폐기물 처리 등 총 10 여 개 이상 분야를 모니터링하여 인증
- OHSAS 18001-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 피고용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심사 및 인증
- SA8000- Social Accountability
 -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국제인권선언 및 UN 아동권리 협약에 의거하여 심사 및 인증
- EEL- Energy Efficiency Labelling
 - 에너지 절약 용품(전구 등)에 대한 인증
- Sri Lanka National Quality Award Symbol
 - 이 상을 수상한 회사는 로고를 수상 일시를 기준으로 5 년간 부착사용가능

2) 공정무역(Fair Trade) 인증

세계공정무역기구(WFTO)에 스리랑카의 유관기관 및 업체들도 상당수 가입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차(Tea), 의류, 고무, 코코넛 등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공정 무역 인증에 대해 관련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차 및 의류부문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수출제품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7.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개황

스리랑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등 기타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 협약의 체약국으로 2003년 11월 12일 부 시행령 제 36호 (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No. 36 of 2003)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련의 상세규정을 구현화하였다. 아울러 WIPO 및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회원국임에 따라 동 국제협약의 보호를 받는다.

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 상표권, 발명특허, 공업의장, 불공정경쟁에 대한 보호, 지적재산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권리(예: IC설계, 미공개 무역정보 등)의 관리 및 시행에 대한 기준을 설정 하고 있다.

세계 무역기구 (WTO) 하에 스리랑카의 조약의무에 따라 시행된 이 신법은 국민의 창조성 증진, 통상확대, 지식지향의 글로벌경제로의 스리랑카 경제통합을 기도하고 있다. 이 법은 특허·상표등록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특허·상표 등 등록신청은 특허·상표 등록기관에 출원 한다. 이 법은 1979년 법률 제 52호인 지적 재산권법 (구법: 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1979) 을 새로 대체하는 것으로 상기밀 (예컨대, 생산방식) 보호강화,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데이터베이스, 정보기술 기타분야에서 재산을 강화하고 있다. 지적재산 기밀 침해에 대해서 예술가·배우·작가에 대해 구제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즉, 신 법은 미국과 지적재산권 양자협상결과와 WTO의 TRIPs 의무조항을 반영한 것이 특징인데,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적재산권 소유자에 대한 구제조치로 강제금지명령, 침해 물품 및 플레이트, 침해물품 제조시설의 압류 및 폐기, 수출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여러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 보호 : 보호기간은 작가의 생애기간 및 사후 70년
- 공업의장 : 보호기간은 5년간. 단, 연속 5년간의 기간갱신이 2번까지 가능
- 특허권 : 보호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년
- 상표 : 보호기간은 10년간, 연속 10년간 기간갱신이 무제한 가능

저작권, 공업의장, 상표에 관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2003년 법률 제 36호 규정에 따라 RS 500,000 (미화 5,000불 상당) 벌금 및 6개월 징역, 또는 이들 2개 벌칙을 부과한다. 스리랑카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TRIPS)조약을 비준했다. WTO (세계무역기구) 는 TRIPS 조약을 도입·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스리랑카 국내법안의 조사·심사를 종료하였다.

스리랑카 지적재산권 등록관련 문의처는 the Registry of Patents and Trade Marks of Sri Lanka이며 지적재산권문제는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Consumer Affairs에서 담당한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ATTN: Director General,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400, D.R. Wijewardena Mawatha, Colombo 10, Tel. 011-2669176”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스리랑카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정부의 규제나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다. 예를들면 음악 CD 나 DVD 타이틀의 경우 대부분의 소매상점에서 불법복제된 것을 팔고 있으며 캐릭터 또한 라이선스를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관련업계 전문가의 의견이다. 대부분의 DVD 타이틀 소매상점에서 영화 타이틀 1개에 2천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2) 특허권 (Patent)

1906년 특허령, 1938년 개정령, 1979년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근거해 등록,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호기간은 20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스리랑카 정부에 따르면 특허권 취득 소요기간이 신청 후 6~8개월이 소요되며 신청서류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연간 300~400여건의 특허신청 중 100~200여건이 등록된다. 2008년에는 450건 신청에 159건이 등록되었다. 신청서 및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www.nipo.gov.lk를 참고하면 된다.

- 관할 기관: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ri Lanka (www.nipo.gov.lk)
- 특허 출원 시 구비서류
 - 특허 출원신청서
 - 신청인의 인적 사항, 스리랑카 비거주자인 경우는 스리랑카에 법적 대리인의 인적 사항
 - 발명의 타이틀
 - 특허의 설명
 - 도면, 필요 시
 - 요약서
 - 스리랑카 비거주자에 의한 신청일 경우 날짜 및 번호

3) 상표권 (Trade Mark Right)

주재국법상 등록대상 상표(Mark)로는 Trade Mark와 Service Mark가 있으며 등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의적 혹은 가공의 명칭, 이름, 익명, 지명, 슬로건, 도안, 문자, 숫자, 스탬프, 제품모양 등이 가능하다.

- 관할 기관: Registry of Patents and Trade Marks, No.267, Union Place, Colombo 2
- 제출서류
 - 상표도면 4장
 - 출원서(Form M1): 성명, 주소, 신청인 관련사항
 - 수수료: www.nipo.gov.lk 참조

신청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등록일을 상표출원일로 간주하고 있으며 상표권 유효기간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스리랑카 내에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국 규정에 따라 별도 등록해야 한다. 스리랑카는 Madrid System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Paris Convention회원국이기 때문에 동 회원국 내에서는 해당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스리랑카는 매년 5천건 내외의 신청이 있으며 이중 1,500건 정도가 등록된다. 2008년에는 5천9백 건 신청에 1천9백 건이 등록되었다. 신청서 및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www.nipo.gov.lk를 참고하면 된다.

8. 통관 / 운송

1) 통관

대부분 투자기업들은 통관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특히 BOI기업들은 세관이 아닌 BOI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통관절차, 검사, 서류작성 등에 있어 편리하다. 보통 항구에 화물이 도착한 통보를 선사로부터 받는 시점으로부터 약 2-3일이면 원부자재 통관을 완료하여 생산에 투입시킬 수 있다.

수출입업자 등록은 먼저 국세청 (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납세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받고, 다음으로 세관에 수출입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스리랑카 관세청의 수입담당부서는 콜롬보항의 해상화물과 카투나야케(반드라나이케) 국제공항의 항공화물 통관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뉜다.

수입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명된 세관신고서(CUSDEC: a Completed Customs Declaration)를 기타 수입관련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 관련서류는 케이스 별로 다르나 대체로 Delivery Order, Bill of Lading,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영어로 번역된 자동차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수입라이선스(제출 요구 시) 등이다.

스리랑카 세관은 특정 수입화물의 반출에 앞서 수입허가품목의 경우 관련 정부기관 (Import and Export Control Department, Sri Lanka Standard Institution, Health Department 등)으로부터 필요한 수입 승인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통과 화물 (보세지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수입되어 재수출되는 화물)에는 제반 관세가 부과 되지 않으며 아울러 선적 전 검사 제도도 없다.

EAN(International Article Number System) Numbering System 은 일종의 국제 무역 용어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스템이며, 전세계적으로 101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스리랑카에는 EAN Sri Lanka에서 EAN Bar Code번호를 할당 부여하고 있다. 한편, Uniform Product Code(UPC)는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특별 코드 시스템으로서 스리랑카 무역업체가 필요한 경우 EAN 스리랑카에 요청하면 된다.

□ 통관절차 (BOI기업의 경우)

선사에서 화물도착 통지서(Delivery Order) 수령 → 선사에 B/L송부 (포워딩 에이전트를 통해) → Customs Declaration 작성제출 → B/L과 C/D일치 여부 확인(세관 또는 BOI) → 화물 검사(BOI, 또는 세관)

BOI기업들은 BOI가 통관 전 과정을 관장함으로 투자 기업들의 통관이 비교적 신속하고 서류의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배려 등 절차가 우호적이다. 특히 화물에 대한 최종 검사도 항만 세관 구역 내가 아닌 해당 업체의 공장에서 이루어 진다. 단 LCL화물의 경우는 화물 검사가 항만 내 세관구역에서 이루어진다

2) 운송

□ 반다라나야케 국제공항

Bandaranayake International Airport가 스리랑카의 유일한 국제공항으로서 Colombo 시내로부터 30 Km 떨어진 Katunayake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콜롬보에서 승용차로 약 1시간 소요 거리이다.

□ 콜롬보 항구

콜롬보항은 인도양의 해상간선루트에 위치하고 있고 수심이 깊은 양항이어서 인도관련 국제 환적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콜롬보 항만청 홈페이지: <http://www.slpa.lk>

□ 한반토타 항구

한반토타 항구는 스리랑카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2010년 11월에 1차공사가 완료되어 항구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2차공사가 완료되면 총규모는 콜롬보 항구를 능가한다. 그러나 아직 인프라 시설이 완비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는 교통이 불편하여 국제항구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 국내 운송

국내 운송은 거의 100% 트럭, 트레일러를 이용하는 육로 운송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철도나 국내 항공 운송 서비스는 상업용 수준이 아니다.

□ 스리랑카 화물통관 및 포워딩 에이전트

Company	Telephone (국가번호 94)
Ace Cargo (Pvt) Ltd	11-2330580-4
A F Cargo Service (Pvt) Ltd	11-2501487, 11-2503433
A M G Freight Lanka	11-2341933, 11-2421433
A M T Transport Service	11-2433391
Aero-Marine (Clearing & Forwarding)	11-2440624
Arab Lanka Agricultural Produce Co	11-2327716
Asian Exports	11-2330481
Bestair Services	11-2576235, 11-2565684
C Sivasamy & Co	11-2449371
Ceylon Operators	11-2329400, 11-2448415
Creasy & Co Ltd E B	11-2421311
Diddeniya Enterprises	11-2423070, 11-2436054
Famous Pacific Shipping Lanka Ltd	11-22575482, 11-22577291
Freight Services (Pvt) Ltd	11-2447455, 11-2445592
Master Freight Agencies Clearing & For.	11-2329372, 11-2438028

□ Logistic Links

- The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of Sri Lanka
- Central Freight Bureau of Sri Lanka
- Shipping & Cargo logistics (Pvt) Ltd
- Network Cargo Services (Pvt) Ltd
- Marine Logistics (Pvt) Ltd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 긍정적 요인

1) 투자자 권리보장 관련 법규

스리랑카는 외국인 투자활성화 및 투자기업 보호를 위해 헌법에 투자보호 조항(157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1978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모체가 되는 투자법 (Law No.4 of 1978, 일명 BOI Act라고도 함)을 제정, 시행 중이다. 이 투자 법은 1980, 1983, 1992년에 수정되었으며, 이 모법을 근거로 세부 규정이 만들어졌다.

2) 개방적인 투자환경

1977년부터 제조업분야의 육성, 수출증대, 기술개발, 고용증대 등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자본 및 기술을 도입하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스리랑카 투자환경은 "100%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설비재. 원부자재의 수입관세 면제, 법인세 면세기간, 기업 이익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투자 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스리랑카 헌법은 외국과 체결한 쌍무투자협정은 투자보호협정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157조에 명시하고 있다. 투자보호협정의 효력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혹은 행정적 조치로 동 협정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정지 혹은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 5월까지 스리랑카와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20여 개국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은 BOI법이다. 외국 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분야는 자금 대출업, 전당포업, 자본금 100만 불 미만의 내수 소매업, 연안어업 등이다.

- 투자보장협정국(20개국 이상)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태국, 말련, 인니,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프랑스, 독일 등
- 이중과세방지협정국(30개국 이상)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UAE, 인도, 태국, 싱가포르, 말련, 파키스탄, 프랑스, 독일, UAE 등
- 인도-스리랑카 FTA: 4,232개 품목(무관세)
- 스리랑카-파키스탄 FTA: 206개 품목 무관세, 4480개 품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관세
- EU GSP + : 7,200개 품목 무관세 ('10.8.15부 한시적 종료, EU GSP만 적용, 8% 관세)
- 스리랑카-미국 FTA: 1차 협상 완료. 2011년 안에 최종협상 완료목표로 추진 중

3) 현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진흥 정책

투자청(BOI)은 2011년도에 미화 20억불 투자유치를 목표로 정책추진 중에 있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고려 중에 있으며, Jayampathy Bandaranayeka BOI청장은 내전지역이었던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지역의 투자자에게는 15~20년 장기 면세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2010년 5월 발표하였다.

4) 투자 인센티브

2008년 이후 정부 재정적자 확대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일부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에 대한 개방도가 매우 높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매우 자유로워 투자환경은 좋은 편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 이익배당의 자유, 자유로운 주식양도 및 면세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입이나 임차가 가능하다.

- 제도적으로 2개 종류(BOI법 17조에 따른 우대조치, BOI법 16조에 의한 통상의 국내법상의 우대조치)가 있으며 기업은 이들 중 어느 한쪽의 우대 조치 수혜가 가능
- 외국인 투자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투자분야, 고용, 투자지역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면세(Tax Holiday)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혜택규모를 축소하는 추세

□ 인도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진출

스리랑카와 서남아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간의 FTA 가 2000 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인도시장으로 수출시 5,224 개 품목이 무관세 대상품목이다. 아울러 2010 년 기준 CEPA

체결에 대한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양국간 원칙적인 합의를 한 상태로서 CEPA 가 체결될 경우에는 무관세 대상품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기업은 인도시장에 우회 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 스리랑카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인도-스리랑카 FTA 의 무역확대 효과를 보면 2000 년 3 월 발효 이래 양국간 무역은 크게 증가하여 스리랑카의 대인도 수출비중은 2000 년 1% 미만에서 2009 년에는 스리랑카 총수출의 4.6%를 점하였으며, 스리랑카의 대인도 수입비중은 2000 년에 8%를 기록하였으나 2009 년에는 스리랑카 총수입의 15%를 점하였다.

인도시장을 겨냥한 투자일 경우 인도에 투자하는것보다 스리랑카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점으로는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을 예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하나는 노동인력이 우수하면서 온순한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산성이 높다.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근로자의 경우 한국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력이 서남아 지역에서는 스리랑카라는 견해를 보면 이해가 된다.

□ 부정적 요인

1) 거시경제환경의 결여

오랜 동안의 반 정부군과의 전쟁으로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거시경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기업신뢰 구축이나 기업가정신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단기적인 경제정책, 지속적인 재정적자 문제, 인플레이션을 위한 긴축통화정책으로 금리가 높아 민간부문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부문별 산업 정책간에 총괄조정이 잘 되지 않으며 종합산업정책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여러 산업부문을 여러 부처가 각각 관장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면 산업정책 기조도 바뀌어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인프라개발의 부진

인프라 개발이 부진하고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전기, 수도 및 공업용수, 도로, 철도, 항만시설이 부실하고 노후화되어 있으며, 시골지역에는 특히 이러한 인프라 자체가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이중 전기문제가 비즈니스에 가장 큰 장애요인인데 도시 제조업체의 40% 이상이 높은 전기요금(Kw당 미화 19센트정도), 불안정한 전압과 잦은 정전을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도로상태가 나쁘고 도시지역과 도시간 연결도로의 정체 현상, 연결도로망 및 수송수단 부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3) 내수시장 협소

스리랑카는 인구 2천만명 규모의 협소한 시장이며 제조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소비재는 물론 자본재의 내수시장 판매 확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진출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애로가 있으며 투자진출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인근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4) 노동관련법의 경직

노동관련법이 아주 경직적이어서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근로고용관계 종료법(TEWA: Termination of Employment of Workers Act of 1971)으로 고용주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일년 이상 일시 해고, 정리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들은 본인의 사전 서면동의서나 근로감독관의 사전 서면동의서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러한 승인절차는 사유가 발생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해고의 경우 극단적으로 높은 보상을 지불하도록 노동심판소나 근로감독관이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고 승인 행정절차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이어서 고용주가 영업환경변화에 따른 해고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 기업환경에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다.

노동심판소(LT)에서 해고 건을 심리할 때 소요되는 기간 자체가 불확실하고 많은 경우 수년이 걸리고 있다. 스리랑카는 정리해고 보상 수준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아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할 경우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청산하기 어렵고 기업이 어려울 경우 인력구조 조정이 어려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재정적자 확대

2009년도 세계경제침체, 전후 재건과 복구, 국내피난민 복지, 사회간접기반시설 건설가속화 등으로 재정적자 목표치 7.0%를 초과한 9.8%, 2010년은 7.7%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국내금융기관을 압박하여 높은 이자율을 부추기며,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을 이끌고, 더 많은 부채는 그만큼의 채무상환을 의미하며 이는 더 높은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

2011 년도 스리랑카 정부예산 구조

(단위 : Rs Bn)

구 분	2010 년	2011 년
수입 및 보조금(1)	828.3	986.1
지출(2)	1,275.0	1,419.9
예산과부족(1-2)	-446.7	-433.7
예산부족분 조달방법		
- Foreign Financing	205.5	94.5
- Domestic Financing	241.2	339.2
GDP 대비 예산적자비율	8.0	6.8

자료원 : 스리랑카 재정경제부, 주) 1US\$=109.5(2010.12 월 현재)

2. 외국기업 투자동향

대 스리랑카 외국인 직접투자 (FDI)는 섬유 및 의류 제조업 중심의 한국이 주도하였으나 동업종의 한국 기업들이 2000년도 이후 대량 타국으로 이전하고 2000년대부터는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네덜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미국 등으로부터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9년 5월 21부로 타밀반군과의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결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 정부에서는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외국기업으로부터 관광지에 대한 호텔건립, 및 레조트 단지 건립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스리랑카 투자유치 현황

(단위 : USD백만)

구분	2007	2008	2009
투자 승인 *주1)	2,602.89	3,119.42	3,835.72
투자 실행 *주2)	734.36	888.94	601.25

*주1): 스리랑카 중앙은행 발표자료(Annual Report), *주2) : 스리랑카 투자청 내부자료

□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FDI) 현황

실행기준으로 살펴보면 섬유, 의류, 피혁부문의 투자감소는 현저하나 아직까지 동 부문의 실투자유치 규모가 가장 크다. 반면 금속가공, 기계, 운송설비의 경우 투자승인대비 실투자유치는 매우 적다. 아울러 2007년까지는 이동통신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신규로 진입한 외국 이동통신사가 없어 투자유치 금액이 매우 낮아졌다.

업종별 FDI 실행 현황

(단위: US\$ 백만)

업종	2007년	2008년	2009
제조업	174	189.259	163.220
1. 식품, 음료, 담배	25.93	14.782	10.088
2. 섬유, 의류 & 피혁 제품	62.60	72.289	51.398
3. 목재, 목제품	0.77	2.208	1.693
4. 종이, 종이제품, 인쇄 & 출판		0.428	20.773
5. 화학, 석탄, 석유, 플라스틱	49.03	39.987	15.398
6. 비금속 광물 제품	4.71	12.769	11.178
7. 조립금속, 기계 및 수송수단 설비	12.54	14.383	14.035
8. 기타 제조업	18.42	32.413	38.657
기타/농산업	33.89	2.616	3.689
서비스업	526.47	36.249	52.805
1. 호텔 & 레스토랑		3.093	5.495
2. IT & BPO		14.013	12.468
3. 기타 서비스업		19.143	34.842
인프라사업		660.811	381.536
1. 주택 및 오피스 건물 개발		19.854	17.740
2. 전화, 통신		553.097	296.064
3. 전력발전		87.860	67.732
총계	734.36	888.935	601.250

자료: 스리랑카 투자청(BOI) Monitoring Dept.

□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FDI) 현황

실행액 기준 국가별 투자현황을 보면 2000년대 전반기까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이 주요 투자국이었으나 후반기에는 중국, 인도의 투자유입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항만, 전력은 물론 호텔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는 유전개발을 비롯한 IT와 서비스분야 등에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이 對스리랑카 투자를 증가시키는 이유중의 하나는 스리랑카의 지리적 위치가 인도양 항로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스리랑카에 본격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인 2008년부터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동통신업체인 DIALOG사의 투자규모가 컸으며 현재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FDI 실행현황

(단위: US\$ 백만)

국가명		2007년	2008년	2009년
1	중국	-	27.356	144.717
2	영국	95.87	87.436	79.762
3	인도	42.88	125.925	77.714
4	홍콩	36.04	73.855	39.598
5	말레이시아	296.4	150.407	39.517
6	네덜란드	28.63	117.222	30.919
7	룩셈부르크	5.98	82.254	23.866
8	싱가포르	19.99	20.612	21.598
9	미국	26.38	56.816	21.524
10	스웨덴	31.45	37.776	19.786
11	일본	48.78	16.727	19.357
12	아랍에미리트	16.02	9.294	16.095
13	이탈리아	(순위밖)	(순위밖)	7.114
14	호주	(순위밖)	(순위밖)	5.971
15	노르웨이	(순위밖)	(순위밖)	5.301
16	스위스	(순위밖)	(순위밖)	5.250
17	벨기에	13.88	13.35	2.872
18	한국	10.64	9.293	1.771
	기타	43.18	48.446	38.518
총계		734.36	888.935	601.25

자료: 스리랑카 투자청(BOI) Monitoring Dept.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투자우대조치

스리랑카와 한국간에는 투자보호협정(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s)과 이중과세 면제협정(Double Taxation Relief)이 체결되어 있다. 별도의 국가별 특별투자우대조치는 존재하지 않지만 스리랑카 정부는 활발한 외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대 투자 분야가 있다. 최근 스리랑카 투자청은 IT, 인프라 관련 투자,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우대하고 있다.

나. 한국기업의 투자 현황

□ 투자의 상당부분은 섬유 및 의류분야 제조업

스리랑카는 베트남이나 중국이 섬유 및 의류분야 투자적격지로 부상하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섬유 및 의류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대상 국가였다. 누계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투자 기업(150 개)중 섬유 및 의류분야가 38%(57 개)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투자금액(U\$ 171 백만) 비중을 보더라도 이분야가 56%(U\$97 백만)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투자기업수(총 150 개)를 기준으로 볼 때 투자분야중 제조업 비중이 약 83%(125 개)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들 제조업중 섬유의류가 46%, 금속/비금속이 10%, 화학 6% 등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주요 투자분야로는 건설업이 6%, 도소매업이 4%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분야는 분야별로 1-2 개 기업들만이 진출하였다.

분야별 한국기업의 대 스리랑카 투자현황(2010 년까지 누계치)

(단위 : USD천)

분야	신고건수	투자기업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농/임/수산업	1	0	150	0
광업	9	3	3,863	1,080
제조업	290	125	605,223	159,755
- 식료품	6	3	900	180
- 섬유 (의복제외)	80	30	463,850	79,580
- 의복 및 모피	70	27	46,291	18,307
- 가죽, 가방, 신발	10	2	3,077	877
- 목재 및 나무	3	2	1,275	295
- 펄프 및 종이	2	2	1,100	227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1	1,000	1,000
- 화학 (의약품제외)	16	8	6,620	4,547
- 고무 및 플라스틱	11	5	4,064	3,577
- 비금속 광물제조	10	6	7,169	3,267
- 1차 금속 제조	12	6	28,002	16,194
- 금속 가공 (기계, 가구 제외)	2	1	616	580
-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 통신	7	3	13,098	8,187
- 의료, 정밀, 광학, 시계	3	3	1,210	1,204
- 전기장비	5	2	4,125	3,925
- 자동차 및 트레일러	2	1	1,370	639
- 기타 제품	50	23	21,457	17,169
건설업	19	8	109,228	7,790
도매 및 소매업	8	6	1,145	641
운수업	6	3	650	638
숙박 및 음식점업	1	1	50	5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5	0	305	0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2	552	315
전문, 과학 및 기술	6	0	257	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6	2	3,100	1,741
교육 서비스	1	1	40	4
예술, 스포스 및 여가관련	1	0	500	0
N/A	1	0	0	0
계	358	151	725,063	172, 01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01 년 이후 한국투자 감소세

노동집약적 생산기업이 베트남, 중국등으로 투자하기전에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1991 년과 1992 년에 스리랑카의 제조업 분야에 투자 진출하였다. 이는 국내 임금상승 및 인력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해 노임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스리랑카를 선택하여 투자한 결과이다.

그러나 2001 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대 스리랑카 투자진출 기업수는 감소세(2000 년 최대 120 개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중국,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이 임가공분야의 투자 유망처로 새롭게 부상되어 현지 투자업체들이 이들 지역으로 투자거점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투자분야인 의류분야에서 주요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쿼터를 적용받게 되는 바람에 스리랑카 투자유치는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04 년 말 쓰나미 재건 복구 수요, 스리랑카 아파트 건설경기 호조, 인도-스리랑카 자유 무역협정 등을 활용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아파트 건설 분야, 건설기자재 분야, 인도시장 유망 제조업 투자에 관심을 보였으나 큰 규모의 투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2001 년 이후, 투자기업수는 연간 5 개 내외 또는 그 이하로서 신규투자 기업수 보다 철수하는 기업수가 많아 2009 년말 기준으로 스리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60 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과거에는 섬유 및 의류기업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투자품목들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의 영업실적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 한국기업 직접투자 (FDI) 현황

(단위: US\$백만)

업종	2007년	2008년	2009년
Section 17	0.755	9.032	1.771
신규 투자	0.755	8.251	0.490
확대 투자		0.781	1.281
Section 16		0.259	-
신규투자		0.259	-
총 합계	0.755	9.291	1.771

자료: 스리랑카 투자청(BOI)

□ 스리랑카 기업의 한국투자현황

스리랑카의 對韓 투자는 건수나 금액면에서 미미한 수준임. '62 년 ~ '10 년 스리랑카의 對韓 투자총액은 2.15 백만불(신고기준)

스리랑카의 對韓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천불, 건)

구 분		'05	'06	'07	'08	'09	'10	누계*
對韓 투자	금액	198	213	451	416	259	449	2,157
	건수	4	4	8	8	6	8	42

* 누계 : 對韓 투자 ('62년-'10년)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스리랑카 투자법 내용

스리랑카는 외국인 투자활성화 및 투자기업 보호를 위해 헌법에 투자보호 조항(157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1978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모체가 되는 투자 법 (Law No.4 of 1978, 일명 BOI Act라고도 함)을 제정, 시행 중이다. 이 투자 법은 1980, 1983, 1992년에 수정되었으며, 이 모법을 근거로 세부 규정이 만들어졌다.

“BOI 법 제17조”에 의해 BOI는 스리랑카 정부의 투자우대 조건에 합치하는 투자 건에 대해서는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합치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는 “BOI법 제16조”가 적용되며,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경쟁국에 비해 후한 편이다. 내국인 역차별에 대한 스리랑카 기업인들의 반발로 점차 축소되는 추세였지만, 2009년도 스리랑카 반군과의 내전종식 후, 전후 복구사업으로 보다 많은 외국투자자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제도적으로 2가지 종류(BOI법 16조에 따른 통상의 국내법상의 우대조치, BOI법 17조에 의한 우대조치)가 있으며, 기업은 이 중 하나의 우대조치 수혜가 가능하다.

□ BOI Act 제 17조(Section 17) 적용대상 기업

이 조항을 적용 받는 것으로 승인된 외국인 투자자(주식회사, 유한회사, 상거래 활동을 하는 지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적용 받는 대신 BOI ACT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일부 비즈니스 활동내역도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예 : 생산품의 80% 이상 수출조건 등)

제 17조 적용기업의 주요 인센티브 및 자격조건

- 주요 인센티브
 - 국세청, 세관, 외환관리법 및 수입 규제상의 면제 (단, 품목, 고용인원, 투자지역 및 투자금액에 따라 면제기간 차등 부여)
 - 주식 매매 차익(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수출입관리법의 적용면제, 수익/배당의 자유로운 본국송금가능. (단 FCBU 구좌의 외화에 한함)
 - 상품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관세 면세 및 통관상 편의 등 제공
- 자격조건
 - 제조회사는 생산품의 80%를 수출해야 하며, 수출 품목관련 서비스회사는 서비스의 70%를 외국통화로 지불 받아야 함
 - 최소 투자액 USD 3,000,000 (2011년 중 10백만 달러로 상향조정 할 가능성 있음)
 - Annual fee : USD2,200 + VAT
 -
- * 단, 자격조건은 산업별, 최저투자금액별, 수출비중별, 고용규모별, 기술수준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이에 따라 세금면제/감면 기간 인센티브도 연동되므로 BOI와 협상필요

BOI법 제17조 에 의거 주요 산업별 인센티브 내용

산업별	인센티브					
	면세기간	특혜기간			수입관세 면세	
		10%	15%	20%	자본재	원자재
수출지향 제조업 및 서비스	5년	2년	2년 후		면세	면세
IT 및 IT 서비스업	고용창출에 따라 5년~ 12년	2년	수출지향 일 경우	비수출지향 일 경우	면세	
중소형 인프라 (병원, 발전소, 건축 등)	5년	2년		2년 후	면세	
대형 인프라(도로, 항만, 공항, 상수도 등)	투자금액에 따라 6년~ 15년		면세기간 만료 후		면세	
농업 R &D	5년				면세	

□ BOI Act 제 16조 (Section 16) 적용대상 기업

- 이 조항을 적용 받는 것으로 승인된 외국인 투자자(주식회사, 유한회사, 지점, 연락 사무소, 프로젝트 오피스)는 면세특혜가 없고 내국인과 같이 국세청, 세관, 외환 법 및 수입 규제의 적용을 받음
- 최소 투자액은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USD 1,000,000(2011년중 5십만불로 하향조정 가능성 있음), 지점은 USD200,000, 연락 사무소 및 프로젝트오피스는 납부불요

나. 외국인 투자장려 및 제한분야

□ 투자장려 분야

스리랑카 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내국기업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분야를 투자 장려분야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 수출품(무형 수출을 포함)생산
- 비전통산품의 생산/수출관련 서비스/공작기계 및 기계 생산
- 소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 정보기술(IT), IT 이용 가능 서비스, IT 관련 교육기관
- 지역영업본부/BOI가 승인한 산업,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활동
- 연구개발
- 홍차 가공을 제외한 농업 및 농산품 가공
- 수출무역상사
- 인프라 건설(고속도로, 항만, 공항, 철도, 수도, 공업단지, 기타)/대규모 프로젝트.

□ BOI 조건부 승인 분야 (스리랑카 기업과의 합작투자가 원칙인 분야)

외국인 투자 지분이 40%까지일 경우에는 자동승인이나, 그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조건부로 검토 및 승인되는 분야이다.

- 수출 대상국의 수입쿼터 시스템에 적용되는 수출 제품의 생산
- 홍차, 고무, 코코넛, 코코아, 쌀, 설탕, 향신료의 재배(Growing)와 1차 가공(Primary Processing)

-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Non Renewable natural resources)의 채굴 및 1차 가공
- 국산 원목을 사용하는 목재산업
- 심해어업(Deep Sea Fishing)
- 대중 통신 (Mas Communication)
- 교육
- 화물운송, 통관(Freight Forwarding)
- 여행대리업(Travel Agency)
- 해운업(Shipping Agency)

□ BOI 이외 타 정부기관의 승인대상 분야

다음과 같이 일부 업종의 경우 안보 및 정책적인 면을 고려하여 현지정부(관련부처 또는 투자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항공 운송
- 연안 해운
- 무기, 폭발물, 군용 차량, 비행기 부품 등 군용 물품 제조
- 독극물, 위험한 약품들 제조
- 화폐, 동전, 보증 증권 인쇄 업
- 복권업
- 대규모 장비를 동원한 보석 채광 업
- 카지노사업은 불법이었으나 2010년 10월에 의회에서 이를 합법화시켰다. 그러나 2011. 4월 까지도 시행규정(Regulation)이 마련되지 않아 외국기업들의 관심과 요구는 많으나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카지노허가 특별구역지정과 불법으로 운영되는 카지노는 2013년부터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

다음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분야이다.

- 자금 대부업 (Money Lending)
- 전당포업 (Pawn-Broking)
- 자본금 US\$ 1백만 미만의 소매업(Retail Trade) (슈퍼마켓 등)
- 연안 어업 (Coastal Fishing)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상 구분

1) 주식회사 (Limited Company)

-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법정 납입자본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입 불필요함.
- 최소 7명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음. 아울러 최소 2인 이상의 Director를 두어야 함.

-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 참석자(의결권 보유기준)의 75% 이상
-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임
- 주식회사는 상장기업(Public Limited Company)의 경우 기업명 끝에 PLC로, 비상장 기업(Limited)의 경우 Ltd로 표기함.

2) 유한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 유한회사 설립 시 주식회사와 같이 최소 법정 납입자본금 규정이 없으므로 납입 불필요함.
- 최소 2명 이상 최대 50명 이하의 투자가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최소 1명 이상의 Director를 두어야 함.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금(Share)을 공개모집(Public Subscription)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금이 개인(Private hands)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책임한계는 주식회사와 유사함. 아울러 출자금 공개모집을 원할 경우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추진하면 됨
- 1인 유한회사는 없음
-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 대부분의 외국인 현지법인은 유한회사로 등록하고 있음.
- 유한회사는 기업명 끝에 (PVT) Ltd 또는 (Private) Limited로 표기함.

3) 개인회사(Sole Trader, Proprietorship)

회사 형태가 아닌 Proprietorship 형태를 취하는 영업 행위로 사업주에게 무한책임이 있고 외국인에게는 허가가 주어지지 않음

나. 투자형태별

1) 현지법인

- 상기 법 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외국인 투자가는 스리랑카 투자청(BOI-Board of Investment Sri Lanka)의 사전승인(Letter of Approval)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함.

2) 지사(Overseas Company)

- 외국인 투자가의 스리랑카내 지점(Branch office), 연락사무소(Liason Office) 및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시 이를 통칭하여 'Overseas Company'(Corporate Act 2007에 근거)로 부름.
- 현지법인 설립과 마찬가지로 스리랑카 투자청(BOI)의 사전승인(Letter of Approval)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함.

□ 지점(Branch Office)

- 모기업 현지사무소로서 지점설립의 목적은 모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제고, 모기업의 전략에 따른 판매활동 전개 등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임.
- 지사와 현지법인간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책임소재에 관한 것으로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내의 법적 책임이 현지법인에 귀속되지만 지점의 경우는 모기업에까지 그 책임소재가 있다는 것임.
- 지점의 업무 영역 중 영업활동(Commercial Trading & Industrial Activity)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USD200,000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조사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에는 최소자본금 납입의무가 없음.
-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의 영업분야가 소매업(Retail Trade)일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투자 금액이 1백만불 이상이어야 함. 이유는 자본금 1백만불 이하의 소매업은 외국인 투자 금지분야이기 때문이다. (상기 4-나, 외국인 투자 금지분야 참조)

□ 연락사무소(Liason Office) 및 프로젝트 오피스 (Project Office)

- 상기 지점(Branch)의 업무 영역 중 영업활동 (Commercial Trading & Industrial Activity)을 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 형태로 최소자본금 납입의무가 없음.

다. 투자주체별

1) 단독투자

- 외국인 투자가는 100% 자기자본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산업분야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금 대부업(Money-lending)/전당포 업(Pawn-broking)/ 자본금 1백만불 미만의 소매업(Retail trade)/ 연안어업(Coastal fishing)
- 또한 다음과 같이 일부업종의 경우 현지정부(관련부처 또는 투자청)의 승인을 필요로 함
 - 항공 운송/ 연안 해운/ 군용물품 제조(무기, 폭발물, 군용 차량, 비행기 물품 등)/ 독극물 등 위험한 약품 제조/, 화폐, 동전, 보증 증권 인쇄업/ 복권업/ 대규모 장비를 동원한 보석 채광업

2) 합작투자

- 스리랑카는 외국인투자자가 단독투자를 할지 합작투자를 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합작투자 시에도 외국인 지분소유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일부 분야는 법에 의거하여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해야 승인하며 지분소유도 외국인 투자가가 원칙적으로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만일 외국인 투자가 지분소유 비율을 40% 초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리랑카 투자청과 건 별(Case by case)로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해야 승인되며 지분소유 비율 또한 40% 미만을 원칙으로 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스리랑카의 수출품이 국제적으로 수입쿼터에 의해 제한을 받는 제품의 생산
- 홍차, 고무, 코코넛, 코코아, 쌀, 설탕, 향신료의 재배(Growing)와 1차 가공(Primary Processing)
-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Non renewable natural resources)의 채굴 및 1차 가공
- 국산 원목을 사용하는 목재산업
- 심해어업 (Deep sea fishing)
- 대중 통신(Mass Communication)
- 교육(Education)
- 화물운송, 통관(Freight Forwarding)
- 여행대리업(Travel Agency)
- 해운업(Shipping Agency)

라. 외국인 진출 선호형태

□ BOI Act 제 17조 및 제 16조

-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프로젝트 오피스)은 투자청령(BOI ACT) 제 17조(Section 17) 또는 제 16조(Section 16)중 한 개를 적용받게 됨.

□ 외국인 투자자 선호형태

- 대부분의 외국인투자자는 유한회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함. 스리랑카는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현지기업들도 대규모 사업에 적합한 주식회사보다는 소규모에 적합한 유한 회사를 선호하고 있음.
- BOI Act 제17조를 적용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용 제품(또는 수출용 제품의 원부자재) 위주의 제조기업으로 대규모 부동산(공장부지 등)이 필요하며 생산용 기계설비를 많이 수입해야 하는 유형에 적합함.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이 제17조를 적용 받으면 장기간의 소득세 면제는 물론 공장부지 구입비 및 생산용 기계설비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임.

BOI Act 제 17조 주요 적용분야(산업)

수출용 비 전통품 제조/수출산업 지원서비스/산업공구, 설비부품 및 기계제조 /기반산업 / IT관련산업/R&D/홍차를 제외한 농산물 가공/수출무역업/대규모 SOC 구축사업 /산업 단지 조성/의류 원부자재 생산,염색, 세탁 등 수출에 준하는 사업 등

- 그러나 스리랑카 내수시장 진출을 주목적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은 상기 제17조 적용대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BOI Act 제 16조를 적용 받는 기업으로 승인됨.
- 만일 제16조로 승인 받은 외국투자기업이 부동산 이전세(구입가격의 100%) 면제 또는 기계설비 수입제품에 대한 면제를 희망할 경우 BOI와 협상이 가능함. 그러나 BOI에서는 이를 면제해 주는 대신 거액의 최소 투자자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최소

투자자금 요구액과 세금감면에 따른 이익 정도를 비교하여 검토하여 협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

- 제16조로 승인된 기업은 BOI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은 없으나 내수시장에서의 영업활동이 내국인과 같이 자유롭기 때문에 내수시장 진출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제16조 적용을 선호하기도 함.
-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1천만 불 이상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들에 한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그 이하의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보다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FDI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전망됨.

바.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1)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BOI Act 제 17조 적용기업AQ 경우)

- BOI Act 제 17조로 등록 하고자 하는 외국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등록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음의 설립절차를 따름

순서	구 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 및 비용
1	신청서 제출 및 정관 확인	- 투자신청서(투자의향서) 제출 - 투자내용/모국은행레퍼런스/투자 계획/StreetLine(투자처)/회계감사 의견/업체개요/회사정관 첨부요 - 제출시 투자기업 직인날인 필수, 양식은 BOI에서 입수		Legal Dept. of BOI	비용: USD172.5
2	사무실 임차 가계약	- 회사 설립 신고 시 주소 필요			
3	투자 승인	- BOI에서 발급한 투자승인서 (Letter of Approval) 접수		“	정관 확인 후 3일 또는 2주 이상 (건 별 상이)
4	승인서 회신	- 투자자는 투자승인서 검토 결과를 반드시 회신해야 함 (BOI 승인조건 승낙 여부)		“	
5	회사명 중복여부 검사	- 법원등기소(DRC-Dept.of Registrar of Companies) 홈페이지에서 등록 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이미 존재 하는지의 여부 검색		DRC 홈페이지 (www.drc.gov.lk)	
6	회사명 미중복 승인번호 획득	- 법원등기소에서 미중복 승인번호를 발급받으면 3개월간 유효			3-4일소요/ 소요비용: 402.5루피

순서	구 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 및 비용
6	회사명 미 중복 승인 번호 획득	- 법원등기소에서 미중복 승인번호를 발급받으면 3개월간 유효			3-4일 소요/ 소요비용: 402.5루피
7	회사 설립 신고	- DRC(Dept. of Registrar of Companies, 법인 등기소) 등록 - 필요서류 · 스리랑카에서 사업계획 (Memorandum) · 회사정관 2부(Articles of the Association) · 신고서(Form #1) · Directors 인적 사항(Form #18) · Secretary 인적 사항(Form #19) · 1명 이상의 현지직원 인적 사항 모국의 사무실 주소 및 스리랑카 사무실 주소	사전 사무실 임차 가계약 채결필요	DRC (법인 등기소)	3-4일 소요/ 비용: 10,984루피 (약100불상당)
8	설립 공고	- 설립 신고 후 30일 이내에 시행 * 그러나 설립공고는 30일 이내에 시행하면 되므로 설립공고 전 세무서등록(Tin번호획득), 구좌 개설,거주 비자, 취득업무를 먼저 시행 가능	미시행시 벌금부과	3개 일간지 및 관보	매체 별 비용 상이
9	회사 설립 서류 제출	- 제출서류(BOI에 제출) 정관/ 대리인 (Name of Secretary)/ Director 인적 사항/면세 반입 품목 명단		Legal Dept of BOI	
10	협정서 초안 접수	- BOI에서 발급한 협정서 (Agreement) 초안 접수		“	USD1,150 + USD600~1,725 (투자 업종별 상이)
11	협정서 검토 및 확인	- 협정서 초안에 대해 BOI와 투자 자간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	인센티브 조건 아주중요	“	
12	협정서 서명	- BOI와 투자자간 서명			Annual fee 납부: USD2,530
13	거주 비자 획득	- 이민국(Immigration) 방문 · BOI관리기업은 BOI의 거주 · 비자추천 레터 · Form A (이민국에서 입수) · 회사설립증명서 · 여권사본 · 사진(6x5)		BOI& Immigration	비자 취득비 : 2만 루피 (인당/1년)
14	행정 처리	- 세무서 등록 및 TIN번호획득 - 은행구좌 개설 - 자본금 입금 등		세무서(De pt of Inland Revenue)은 행 등	
15	건축 도면 확인	- BOI에 건축도면 확인 받음 (Section 17조 해당기업 한함)		BOI/ 관할관청	
16	면세 원부 자재 수입	- Section 17조 해당기업에 한함		BOI	

2) 주식회사, 유한회사 (BOI Act 제 16조 등록기업AC 경우)

BOI Act 제 16조로 등록코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음의 설립절차를 따름

순서	구 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 및 비용
1	사무실 임차계약	회사 설립 신고 시 주소 필요			
2	회사명 중복 여부 검사	법원등기소(DRC-Dept of Registrar of Companies)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고 자 하는 회사명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 검색		DRC홈페이지 (www.drc.gov.lk)	
3	회사명 미 중복 승인 번호 획득	법원등기소에서 미 중복 승인번호를 발급받으면 3개월간 유효			3-4일 소요/ 소요비용: 402.5루피
4	회사 설립 신고	- DRC (Dept. of Registrar of Companies 법인 등기소) 등록 - 필요서류 · 스리랑카에서 사업계획 (Memorandum) · 회사정관 2부(Articles of the Association) · 신고서(Form #1) · Directors 인적 사항(Form#18) · Secretary 인적 사항(Form#19) · 1명 이상의 현지직원 인적 사항 · 스리랑카 사무실 주소	사전 사무실임차 계약 체결필요	DRC (법인등기소)	- 3-4일 소요 - 비용: 10,984루피 (약100불상당)
5	설립 공고	설립 신고 후 30일 이내에 시행 (그러나 설립공고는 30일 이내에만 시행하면 되므로 설립 공고 전 <u>세무서등록(Tin번호획득)</u> , <u>구좌개설</u> , <u>거주비자취득</u> 업무를 먼저 시행 가능)	미시행시 벌금부과	3개 일간지 및 관보	매체별 비용 상이
6	거주 비자 추천서 획득	- 소관부처의 거주비자 추천서 획득 - 주식/유한회사 · 회사설립증명서 · 지정,연락 사무소 등 · 회사설립증명서 · 모기업의 해당직원 비자 · 필요 확인서		- 소관부처 · 투자기업소관 산업부처(소관 부처가 없는 경우는 기획재정부(Dept of External Resources))	
7	거주 비자 획득	- 이민국(Immigration) 방문 · 거주비자추천서 · Form A (이민국에서입수) · 회사설립증명서 · 여권사본 · 사진(6x5)		Immigration	비자취득비: 2만루피 (인당/1년)
8	행정처리	- 세무서 등록및 TIN번호 획득 - 은행구좌 개설 - 자본금 입금 등		세무서(Dept. of Inland Revenue),은행	
9	건축 도면 확인	- 건축도면 확인 받음		소지재 관할관청	

3) 지사(지점, 연락사무소, 프로젝트 오피스)

- 스리랑카 Corporate Act (2007년)에 의거, 지점, 연락사무소 및 프로젝트 오피스는 통칭하여 Overseas Company로 분류
- 지사(Overseas Company)로 등록되는 외국기업은 BOI Act 제 16조를 적용(단, 상거래 활동하는 지사의 경우 BOI Act 제17조에 적용하는 투자금액을 투자할 의향이 있을 경우 BOI와 협의를 통해 제17조 등록 가능)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설립절차는 상기 '나' 항과 비교하여 법인등기소(DRC)의 회사설립을 위한 등록비 및 제출서류의 종류만 상이(상기 절차 제4번)하며 기타 절차는 동일함.
- 지사설립 (상기 절차 제4번) 필요서류 및 비용
 - 해당기관: 법인등기소(DRC-Dept. of Registrar of Companies)
 - 필요서류 (단, 구비서류는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대사관의 공증 필요함)
 - 회사정관 (모기업)
 - Director 인적 사항(양식 #45)
 - 해당기업을 대표하여 서류나 공지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스리랑카 거주인 인적 사항 (양식 #46)
 - 모기업 주소 및 스리랑카에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의 주소 (양식 #44)
 - 등록비: 29,153루피 (약 미화 270달러)

바. 추천 법무법인/회계법인

1) 법무법인

Company Name	Lanka Company Secretaries (Pvt) Ltd
Address	278/7/1, 4 th Lane Kalapaluwawa, Rajagiriya, Sri Lanka
Tel	94 11 3106400
Mobile	94 77 3577082
Fax	94 71 9378865
Website	www.srilankalawyer.com
Contact point	Mr. Andrew Smith – Managing Director, Mr. Amitha Jayatunga – Corporate
E-mail	Secretary andrew@srilankalawyer.com
Activity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주로 컨설팅 및 설립대행

Company Name	S B P Pvt. Ltd.,
Address	Lower Block, Level Six, World Trade Centre, Colombo 01. Sri Lanka
Tel	94 11 5235443
Mobile	94 77 7342557
Fax	94 11 2423177
Contact point	Mr. H B Koralegedara – Chief Executive Officer
E-mail	korale@live.com, business47@sltnet.lk
Activity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지원(컨설팅 및 설립대행)

Company Name	Ananda Sirisena & Co (Pvt) Ltd.
Address	70/15A/SP, YMBA Building, D.S. Senanayake Mawatha, Borella, Colombo 08. Sri Lanka.
Tel	94 11 4651761
Fax	94 11 2684309
Web	www.anandasirisena.com
Contact point	S. Ananda Sirisena, Chairman and Managing Director
E-mail	ananda@anandasirisena.com, contactus@anandasirisena.com
Activity	로컬 및 외국기업 설립지원

2) 회계법인

Company Name	Earnst & Young
Address	201, De Saram Place, Colombo 10. Sri Lanka
Tel	94 11 2463500
Mobile	94 11 2463502, 2463552
Fax	94 11 2697369
Web	www.ey.com/LK/en/Home
Contact point	Mr. Asitha Thalwatta – Country Managing Partner
E-mail	asite.talwatte@lk.ey.com
Activity	재정, 조세, 회계 서비스

Company Name	KPMG
Address	32 A, Sir Mohamed Macan Markar Colombo 03, Sri Lanka.
Tel	94 11 542 6426
Mobile	94 11 5426 301
Fax	94 11 244 5872
Web	www.lk.kpmg.com
Contact point	Mr. Suren Rajakarier – Audit Services Partner
E-mail	srajakarier@kpmg.com
Activity	재정, 조세, 회계, 감사서비스

Company Name	Price Waterhouse Coopers Sri Lanka
Address	100, Braybrooke Place, Colombo 2 Sri Lanka.
Tel	94 11 7719838
Fax	94 11 2303197
Web	http://www.pwc.com/lk/en
Contact point	Mr. Sujeewa Mudalige – Market Leaders
E-mail	sijeewa.mudalige@lk.pwc.com
Activity	감사, 조세, 회계 서비스

6. 투자입지여건

스리랑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의 장기 임대 허용 혹은 산업공단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쉽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혹은 외국 지분이 30% 이상인 외국기업의 토지 취득을 권장치 않으며 토지를 취득할 경우 원금 이외에 100%의 양도세를 추가 징수 한다.

단 1) 100채 이상의 주택 혹은 콘도미니엄 건축 2) 최소 투자액이 미화 1천만 불이며 호텔 혹은 병원 건축 3) 최소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 불이며 스리랑카 재무부가 인정하기에 스리랑카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인프라 건설 4) 최소 투자액이 미화 1백만 불인 제조업 5) 콘도미니엄 5층 이상의 부동산 매입 경우는 제외이다. 토지 장기 임대(보통 30년)의 경우, 은행은 임대 증서를 모기지로 인정한다.

조업은 공단 내, 공단 밖 어디에서든지 가능하다. 공단 밖의 장소에서 조업할 경우 업종에 준하는 환경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투자 청이 보유하고 있는 LAND BANK 자료에서 투자 입지로 개발할 수 있는 사유지 및 국유지 대지와 건물들 리스트들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BOI는 11개의 조성된 공단 (Export Processing Zone 혹은 Industrial Park)을 갖고 있으며 2개의 공단이 추가로 Trincomalee 와 Puttalam에 조성 중이다.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에게는 건축할 수 있도록 대지를 조성해 주며 공단 내부 도로, 전력, 통신, 용수 공급, 용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경비도 제공한다.

□ BOI (투자청) 산업 공단/수출 자유 지역 리스트

공단명	Katunayake
위치	Gampaha District, 반다라나야카 국제 공항 맞은편
총면적	190 헥타르 (1,900,000 sq.m)
콜롬보에서의 거리	29 KM
조성년도	1978
대지 임대료 (30년간)	에이커 당 미화 5만불
대지 연사용료	에이커 당 미화 3천850불
중요 입주 업체	봉제 및 의류 (미국, 홍콩, 영국)

공단명	Koggala
위치	Galle District (남부지역)
총면적	91 헥타르 (910,000 sq.m)
콜롬보에서의 거리	132 KM
조성년도	1991
대지 임대료 (30년간)	에이커 당 미화 1만 5천불
대지 연사용료	에이커 당 미화 3천850불
중요 입주 업체	봉제 및 의류 (스리랑카, 스웨덴, 홍콩)

공단명	Biyagama
위치	Gampaha District
총면적	180 헥타르 (1,800,000 sq.m)
콜롬보에서의 거리	24 KM
조성년도	1985
대지 임대료 (30년간)	에이커 당 미화 5만불
대지 연사용료	에이커 당 미화 3천850불
중요 입주 업체	의류, 고무제품 (미국, 호주, 네덜란드, 파카스탄, 홍콩, 영국)

공단명	Malwatta
위치	Gampaha District
총면적	10 헥타르 (100,000 sq.m)
콜롬보에서의 거리	38 KM
조성년도	1998
대지 임대료 (30년간)	에이커 당 미화 1만5천불
대지 연사용료	에이커 당 미화 3천7백불
중요 입주 업체	봉제/의류/모자 (한국, 홍콩, 영국, 스리랑카)

공단명	Mirigama
위치	Gampaha District
총면적	105 헥타르 중 개발면적 40 헥타르 (400,000 sq.m)
콜롬보에서의 거리	57M
조성년도	1998
대지 임대료 (30년간)	에이커 당 미화 1만불
대지 연사용료	에이커 당 미화 3천7백불
중요 입주 업체	마블 가공 (인도, 스리랑카)

공단명	Wathupitiwela
위치	Gampaha District
총면적	27 헥타르 중 개발 면적 20 헥타르 (200,000 sq.m)
콜롬보에서의 거리	42 KM
조성년도	1998
대지 임대료 (30년간)	에이커 당 미화 4만불
대지 연사용료	에이커 당 미화 3천7백불
중요 입주 업체	봉제 및 의류 (영국, 스리랑카)

공단명	Mawathagama
위치	Kurunegala District
총면적	20 헥타르 (200,000 sq.m)
콜롬보에서의 거리	115 KM
조성년도	2000
대지 임대료 (30년간)	에이커 당 미화 7천5백불
대지 연사용료	에이커 당 미화 3천7백불
중요 입주 업체	봉제 및 의류 (스리랑카)

공단명	Polgahawela
위치	Kuurunegala District
총면적	20 헥타르 (200,000 sq.m)
콜롬보에서의 거리	75 KM
조성년도	2000
대지 임대료 (30년간)	에이커 당 미화 1만불
대지 연사용료	에이커 당 미화 3천7백불
중요 입주 업체	봉제/의류, 자동차 조립 (이탈리아, 스리랑카)

공단명	Horana
위치	Kalutara District
총면적	20 헥타르 (200,000 sq.m)
콜롬보에서의 거리	50 KM
조성년도	1999
대지 임대료 (30년간)	에이커 당 미화 2만불
대지 연사용료	에이커 당 미화 3천7백불
중요 입주 업체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공단명	Kandy
위치	Kandy District
총면적	83 헥타르 (830,000 sq.m) 중 개발면적 12 헥타르
콜롬보에서의 거리	133 KM
조성년도	1994
대지 임대료 (30년간)	에이커 당 미화 6천불
대지 연사용료	에이커 당 미화 3천7백불
중요 입주 업체	봉제 및 의류, 식품 (미국, 스리랑카)

공단명	Seethawaka
위치	Colombo District
총면적	415 에이커 (1,679,505 sq.m)
콜롬보에서의 거리	47 KM
조성년도	1999
대지 임대료 (30년간)	에이커 당 미화 5만불
대지 연사용료	에이커 당 미화 3천850불

7. 노무관리

□ 고용계약

고용계약은 업무영역, 근무시간, 임금, 교육기간 (필요 시), 수습기간, 휴가, 공휴일, 사회 보장 등 고용 조건들을 명시한 문서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 노동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법정 최저 근로 연령은 18세이다. 법정 퇴직 연령은 55세 이나 고용주의 전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부득이 16-18세 사이의 근로자를 채용코자 할 경우에는 월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시켜서는 안되며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시켜서는 안된다.

공단지역의 경우 Job Bank를 통하여 고용할 수도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신문광고나 광고지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다.

비교적 노동력이 풍부한 편이나 콜롬보에서 가까운 Katunayake EPZ, Biyagama EPZ 등 공장이 밀집한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자를 구하는데 애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방은 노동력 수급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항구나 공항까지의 교통, 숙련공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숙련공 확보가 쉽지 않다.

숙련공이나 젊은 인력들이 급여 수준이 높은 해외근로자로 취업해 나가고 있어 봉제, 기타 어렵고 힘든 일자리는 구인난과 잦은 전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사무직원 구인은 보통 일요 신문(Sunday Observer 등)에 구인 광고를 내거나 콜롬보 대학 등 대학에 졸업생 혹은 졸업예정자 중 구직 희망자 리스트를 보내주도록 의뢰하기도 한다. 스리랑카 정부가 노르웨이 정부의 무상원조를 받아 시작한 JobsNet에 구인회사들이 게시하면, 구직 희망자가 신청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대부분의 풀 타임 정규직 근로자 (Permanent Full Time Workers)는 최장 근로시간, 최저 임금, 휴가, 노조결성 권, 안전 및 건강기준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 해고 관련 법 (TEA: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of Workmen Act)은 6개월 이상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하는 사유 혹은 증빙서류가 확실한 근로 기강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해고(fire, 또는 lay off)가 어렵도록 규정되어 있다. 노사 및 해고 관련 노무분쟁은 법무부 산하 노동심판 소(Labour Tribunal)에서 관장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업무, 근로시간, 임금, 훈련(필요시) 및 수습기간, 휴가 및 휴일, 퇴직금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Fringe Benefit

노동자 보상법(Workman's Compensation Act)에 의거 고용주는 고용인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무 항목은 아니지만 미 가입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고용인에 대한 보상은 고용주 책임이다. 스리랑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보험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급여 및 근무시간, 퇴직금, 국민연금

- 2009년 BOI가 제시하는 급여(월급) 수준

구분	월급 (미화 불)
이사, 최고경영자 급 (Directors)	기준 없음
엔지니어 (Engineers)	300-650
회계사 (Accountants)	300-650
시니어 관리자 (Senior Managers)	250-550
중간 관리자 (Middle Manager)	160-300
관리자 (Junior Manager)	125-170
사무실 일반직원 (Minor Staff-office)	58-98
조장 급 (Supervisors)	80-145
숙련공 (Skilled Workers)	64-97
중간숙련공 (Semi-Skilled Workers)	50
미숙련공 (Unskilled Workers)	45
훈련생 (Trainees), 6개월까지	43

○ 법정 근무 시간

공장근로자의 경우 주당 45.5시간(월-금요일에는 8시간/일 및 토요일 5.5시간), 사무실 근로자의 경우 주당 45시간(월-금요일에는 8시간/일 및 토요일 5시간)이다. 기본 근무 시간은 하루 9시간 (정상근무 8시간 + 휴식 1시간)이며 일 9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정상임금의 1.5배(일요일의 경우에는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은 월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 보너스

-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스리랑카 신년 (4월) 연휴 혹은 연말에 회사 형편에 따라 지급한다. 통상 년100%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 EPF (종업원 퇴직 준비기금, Employees' Provident Fund)

- 종업원의 근무시작일부터 마지막 근무일 까지 총 급여의 20% (종업원 부담 8%, 사용자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기금에 불입하는 것으로 급여는 근무초과 수당을 제외한 임금과 수당을 포함한다.
- 사용자, 종업원 모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ETF (종업원 신탁기금, Employee's Trust Fund)

- 사용자는 종업원이 퇴직하는 날까지의 총 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기금에 불입하는 것으로 종업원 부담은 없는 기금이다.
- 사용자, 종업원 모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퇴직금

- 5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퇴임 시 퇴직금을 지급하며 퇴직금은 퇴직하는 가장 최근 월의 급여 총액 기준에 의하여 1년당 1/2개월을 계산한다.
-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1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지만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피고용자가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변호사업계의 의견이다. 이는 노동법의 상/하위법간 모순되는 부문이 있으나 그럴 경우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법을 해석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 휴가. 공휴일 제도

연차(Annual Leave) (유급)는 만 1년(12개월)을 근속한 경우, 2년 차부터 14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고용된 첫해의 경우 1/4분기에 고용된 자는 14일, 2/4분기는 10일, 3/4분기는 7일, 4/4분기는 4일이 주어진다. 사용치 않은 연차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다음해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캐주얼휴가(Casual Holidays)(유급)는 근속 2년째부터 연7일의 캐주얼 휴가를 준다. (미사용된 캐주얼 휴가는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이 제도는 사무실 직원에만 적용된다.

병가(Sick or Medical Leave) (유급)는 100% 고용주의 재량에 의하여 허가되는 휴가이다. 통상 최대 연간 21일이 주어지며 메디칼 증명서를 제시 하여야 한다.

출산 휴가(Maternity Leave) (유급)는 여 고용인에게만 해당된다. 첫째, 둘째 아이의 분만 시는 12주 (84일), 셋째 아이의 분만 시는 6주 (42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이 출산 휴가는 분만 14일 이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은 정상임금의 월 급여를 지급한다.

매달 Poya Day (Full Moon Day)는 유급 휴일이다. 그 이외에 법정 공휴일(Mercantile Holidays)은 유급 휴일이다.

2011년 스리랑카 공휴일 현황

일 자	공 휴 일 명	비 고
1.15(토)	Tamil Thai Pongal Day	
1.19(수)	Duruthu Poya Day(음력 보름)	
2.4(금)	National Day (독일기념일)	
2.16(수)	Milad-Un-Nabi (Holy Prophets Birthday)	
2.17(목)	Navam Poya Day(음력 보름)	
3.2(수)	Maha Sivarathri	은행,공공부문만 휴일
3.19(토)	Medin Poya Day(음력 보름)	
4.13(수)	싱할라/타밀 신년	스리랑카 출장지양
4.14(목)	싱할라/타밀 신년	스리랑카 출장지양
4.17(일)	Bak Poya Day(음력 보름)	
4.22(금)	Good Friday	은행,공공부문만 휴일
5.1(일)	노동절	
5.17(화)	Wesak(베삭) Poya Day	스리랑카 출장지양
5.18(수)	Wesak Poya Day	스리랑카 출장지양
6.15(수)	Posan Poya Day	
7.14(목)	Esala Poya Day	
8.13(토)	Nikini Poya Day	
8.31(수)	Id-UI-Fitr (Ramazan Festival)	은행,공공부문만 휴일
9.11(일)	Binara Poya Day	
10.11(화)	Vap Poya Day	
10.26(수)	Deepavali Festival	은행,공공부문만 휴일
11.6(일)	Id-UI-Alha (Hadji Festival)	은행 공공부문만 휴일
11.10(목)	IL Poya Day	
12.10(토)	Unduvap Poya Day	
12.25(일)	성탄절	

□ 해고절차와 조건

정당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사유(예 : 비행,사기, 준법질서 준수거부 등)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를 당할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재판소에 제소 가능하다.

해고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다. 예비심사(Preliminary Investigation)→1차 경고(Warning)→2차 경고 (Show Cause)→내부 조사(Domestic Inquiry)→최종 징계(Final Action)의 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비심사는 관리자가 범칙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증인 및 관련 근로자의 서면진술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판단시 경고가 정당하다고 할 때 서면형태로 해야한다.

해고된 근로자는 자신의 과실에 의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심판소(labour tribunal)에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결도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최종 판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인력의 잉여 상태에도 정리를 주저하고 있다.

근로자 해고 시 동료들간에 동정 파업을 일으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고 근로자와의 법정 분쟁에 따르는 불필요한 인력, 시간 낭비 및 소송 비, 위로금 지급 판결 등의 우려로 신축적인 노무관리는 쉽지 않다. 한국인의 온정주의적 노무관리를 벗어나 징계 사유(예로 비행, 사기, 준법질서 준수 거부)가 있을 경우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를 하고, 시달서나 경고서한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향후 노무관계 발생 대비에 반드시 필요하다.

2005년 이후 해고 정리 기준을 돕기 위하여 Termination Formula가 공시되었다. 아울러 정리해고의 경우 사전에 스리랑카 투자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적합성 여부를 허가받아야 한다.

2005 이후 적용되는 Termination Formula (정리 해고 방정식)

근속 년 수 (Number of Years services completed at the date of termination)O	적용 달수 (Number of months salary to be paid as compensation for each year of service)	최대 보상 한도 (Max.compensation)
1-5 년	2.5	12.5 개월 분
6-14 년	2.0	30.5 개월 분
14-19 년	1.5	38.0 개월 분
20-24 년	1.0	43.0 개월 분
25-34 년	0.5	48.0 개월 분
* 전체적 최대 보상금액 한도는 Rs.1,250,000.—이다. * 급여(Salary)라 함은 기본급 이외의 생계수당, 이와 유사한 수당을 포함한다. * 근속 연수라 함은 12개월을 1년으로 한다. 12개월이 차지 않는 달수는 무시한다.		

국가가 제시하는 해고 방정식이 다소 높은 감은 있지만, 고용주로 하여금 고용인 해고를 감행할 때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지표가 됨으로 고용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불필요한 고용주, 고용인 간의 분쟁도 많이 줄었다.

□ 노조 활동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가장 큰 골치거리가 노사분규이다. 과거 사회주의 전통을 배경으로 스리랑카 헌법은 노동조합 결성 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7인 이상의 노동자가 모이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999년 개정된 산업 분쟁 법(Industrial Disputes Act amended in 1999)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노조 구성 또는 지지를 금지할 수 없고 노조 구성원을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없으며 또한 근로자의 노조 가입 또는 탈퇴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 40% 이상이 가입한 노조와 단체협상을 거부할 수 없다.

수출장려를 위해 조성된 수출공단(EPZ)의 경우는 노조대신 노사협의회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1999년 관계법규가 개정되어 공단 내 외부에 관계없이 노조구성 및 노조가입이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스리랑카의 노조 결성율은 약 25% 정도이다.

공단이나 업종별 노조가 있으나 별다른 영향력이 없고 공산주의 성향의 JVP 정당이 기업의 노조활동에 깊숙이 개입해 노동쟁의, 파업 등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공장폐쇄 등 대응조치가 쉽지 않아 파업 시 노조의 조건을 일정 수준 수용하는 선에서 분쟁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

□ 노동 생산성

스리랑카 생산성은 아시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낙천적인 국민성과 잦은 휴일, 생산 설비 (기계)가 미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스리랑카 문자해독율은 평균 90.8% (남자 92.7%, 여자 89.1%) 로 높은 수준이지만 일정 기술 능력 및 일반인들의 영어가 취약하다. 컴퓨터 및 비즈니스 능력 교육 프로그램, 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적격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해외취업을 선호하여 많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스리랑카의 노동생산성은(봉제 의류 기준)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약 30% 정도 생산성이 뒤진다고 평가 된다. 하지만 다른 서남아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평균 결근율은 5% 정도이다.

8. 조세제도

스리랑카는 26개국과 이중과세면제(Double Tax Relief)협정을 맺고 있으며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그 외 스리랑카는 호주, 방글라데시, 벨기에, 캐나다, 중국,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핀란드, 독일,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요르단, 대한민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नेपाल,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폴란드, 필리핀,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태국, 영국,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미국, 유고슬라비아 (39개국) 와 Tax Treaties (조세 조약)를 맺고 있다.

가. 조세체계

BOI(투자 청)은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 방식으로 외국자본 투자를 허가하며 그에 따른 조세 부과 및 혜택을 주고 있다.

1) Section 16 of the Act

이 규정은 외국인 투자 희망 분야가 비록 정부의 경제 발전 정책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투자 가능분야로 선정된 종목에 한하여 일반법(Normal Laws)을 적용 받는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허가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 투자는 국세청, 세관, 외환법 및 수입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2) Section 17 of the Act

이 규정은 BOI로 하여금 정부의 경제 발전 정책에 부합된 분야 및 특별히 고시된 조건들을 이행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가는 물론 특혜를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한에 의거하여 BOI는 국세청, 세관, 외환법 및 수입규제의 면제 등을 허가한다. (별첨: 스리랑카 투자인센티브 제도 참조)

3) 300 Enterprises Program

이 프로그램은 현 정부 정책 골격은 “Mahinda Chinthana Program”에 의한 것으로 그 의미는 “마힌다(현 대통령의 이름)는 희망(Hope) 혹은 꿈(Dream)” 이란 뜻이다.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산업기지를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BOI Law “Section 17”의 형태를 따르되, 정치성을 많이 띤 정책인 만큼 기존의 “Section 17”혜택보다 더 많은 특혜를 부과하고 BOI수수료 또한 저렴하다.

나. 조세종류

1) 법인세

☐ 법인 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스리랑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법인들은 35%의 법인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BOI회사의 경우 투자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가 100% 면제(Tax Holiday), 10% 또는 15%의 특혜 법인세 (Concessionary rate) 적용을 받는다.

외국회사(Foreign Company)의 경우 ‘이익금(Taxable Profit)’의 1/9 또는 ‘배당금 제외한 해외송금액(Abroad Remittance exclude dividends)’의 1/3 중 낮은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배당 과세 (Dividends)

법인의 Tax Holiday (면제) 기간 중 또는 Tax Holiday 만료 후 다음 1년에 발생한 이익 배당금은 소득세 면제이다. 이후 발생하는 배당금에는 15%의 Withholding Tax가 적용된다. 이 15% Withholding Tax 중 10%는 차후 개인 소득세 납부의무 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SRL(Social responsibility levy)

법인소득세 (Income Tax) 의 1.5%

☐ ESC (Economic Service charge)

매출액 (Turnover)의 0.1% ~ 1% (ESC는 매출액이 Rs. 3천만 이상일 경우만 해당되며 나중에 Income Tax 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 VAT (부가가치세)

매출액 (Turnover) 의 12%

☐ NBT (Nation Building Tax)(건국 세)

매출액 (Turnover)의 3%

2) 개인 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2011.4월기준)

모든 개인은 개인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소득 Rs.300,000.一까지는 소득세 면제이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a sliding rate scale 계산방식에 의해 산정된다.

- 연봉 첫 Rs 300,000/=는 Nil
- 다음 Rs.400,000/=는 5%
- 다음 Rs.400,000/=는 10%
- 다음 Rs.400,000/=는 15%
- 다음 Rs.400,000/=는 20%
- 다음 Rs.400,000/=는 25%
- 다음 Rs.400,000/=는 30% 이상의 소득에는 35%의 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기 납부한 Withholding Tax 금액은 개인 소득세 납부 의무 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3) 수입 관련 세금

2009년 현재 스리랑카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일반 혹은 특혜 관세) 이외의 과징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Import duty surcharge: 10% (모든 과세대상 수입품) – 제외 품목 있음
- 부가가치세(VAT): 12% – 감면 대상 있음
- 항만 및 공항 개발 세(PAL- Port and Airport Development Levy): 5%
- 사회책임부과금(SRL-Social Responsibility Levy): 1.5%
- 건국 세 (NBT-Nation Building Tax): 3% (May 1, 2009 발효)
- 특별 소비세 (CESS): 품목에 따라 적용 율이 다름
- Excise Duty – 일정 품목에 한함
- SCL (Special Commodity Levy) – 일정 품목에 한함

4) 관광 개발 세

1968년 법률 제 14호, 관광개발법에 기초하여 인가된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2003년 9월1일 이후 매상고 (관광수입) 의 1 %를 관광개발세가 부과된다.

5) 예금 세 (Debit Tax)

0.1%의 Debit Tax 가 당좌 와 저축 예금 계좌에 입금(예치)되는 금액, 예금 증서(Bank Draft) 및 여행자 수표를 현금화 할 때 부과 된다.

6) 도박, 게임 세

2005년 법률 제9호, 도박·게임세법 (동 변경) 에 의거하여 도박성 복권 업 및 게임사업에 2005년 4월 1일 이후 부과된 도박·게임 세의 과세금액은 다음과 같다.

- 카지노 등 노름 업에 대한 과세액
 - 대리인을 통해 행한 노름 : RS 100 만

- 실황방영시설을 이용한 노름 : RS 25 만 (2006 년 3 월까지)→RS 30 만 (2006 년 4 월)
- 실황방영시설을 이용하지 아닌 노름 : RS25,000 (2006 년 3 월까지) → RS 5 만 (2006 년 4 월)
- 게임 업 : RS 5,000 만

7) 비영리단체에 대한 추정과세

2005년 법률 제 8호, 내국세입법 (동 변경) 에 기초하여 비영리단체가 수령한 기부·증여·현금의 3%를 비영리 단체의 수입으로 보지 않고 30%의 세금을 부과. 단 내국세입 국장은 스리랑카 북부·동부 및 지진해일 피해지역 복구활동, 재무장관이 승인한 기타 복구재건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

8) 주식 거래세

2005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파는 자 및 사는 자 양방으로부터 주식거래고의 0.2%의 주식 거래세를 징수한다. 세 징수 당국 : 내국세입 국장

9) 건설산업보증금세

2005년 1월 1일 이후, 건설개발·훈련기관 또는 전국건설업연맹에 등록된 건설청부업자에게 2005년 1월1일 또는 이후에 체결된 신규계약에 기초한 계약고에 대해 아래 세율로 기본세가 징수된다.

- 0.00% - 연간 계약금액 (또는 매출액)이 1 천 5 백만 루피 이하
- 0.25% - 연간 계약금액 (또는 매출액)이 5 천만 루피 이하
- 0.50% - 연간 계약금액 (또는 매출액)이 1 억 5 천만 루피 이하
- 1.00% - 연간 계약금액 (또는 매출액)이 1 억 5 천만 루피 이상
- 세 징수 당국 : 건설개발·훈련기관 이사장

10) 연초 세

담배 또는 파이프 담배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스리랑카산 담배 잎에 대해 연초 세 부과된다. 연초 세 금액은 스리랑카산 담배 또는 파이프 담배 제조 공장에 배달된 연초 잎의 중량에 따라서 계산된다.

11) 매상 세

지방자치단체는 도매·소매 매상고에 1% 매상 세를 부과한다.

12) 인지세 (Stamp Duty)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양도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2006년 예산안』 중에서 인지세 재도입을 발표.

13) 유흥세

지방당국의 관할지역 내 주최되는 흥행 입장료에 지방당국은 유흥세를 부과, 세율은 지방당국이 결정한다.

14) 지방자치 세, 기타 지방공공단체 세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회수되는 적정한 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 세, 도시 세, 기타 지방 공공단체세가 부과된다.

15) 인허가 비용

특정 업종의 영업·사업은 지방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인허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사업에 대해 일정의 명목세가 부과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 외환관리 개황

외환관리는 외환관리법(Exchange Control Act)에 근거하여 스리랑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ri Lanka) 외환관리국이 관할하고 있다. 외환거래는 공인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외국인투자관련 외환통제 현황을 보면, 현금대출업, 전당포, 자본금 1백만 불 이하의 소매 업에는 외국인 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통화 법(the Monetary Law)이 수정되어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회사문서들을 심사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규제 권한이 강화되었다.

참고자료“A Guide to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는 <http://www.centralbank.lk.org/publications.html> 에서 Occasional Publications 항목에 최근 발간자료 리스트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중 A Guide to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를 클릭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2) 환율 결정

환율결정은 관리 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에 의해 중앙은행의 환율변동 관리위원회 (Managed Floating Committee)가 주요국 통화와 SDR을 감안하여 매일 발표한다.

주요 교역상대국 6개국(미국, 영국, 일본, 서독, 프랑스, 인도)의 물가 동향 및 화폐가치 변동과 자국의 물가동향 등을 감안, 상한 및 하한선을 결정한 후, 이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의 주요 공급 동향에 따라 매일 환율을 결정 발표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0년 4월부터 중앙은행의 일일 환율 변동폭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독립적인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외환의 투기적인 요소가 감소되어 환율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해외 송금

BOI Section 17을 통해 허가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환관리법 적용이 면제되어 FCBU (Foreign Currency Banking Unit) 계좌를 통한 외화의 보유, 입금 송금이 자유롭다. 이들의

이익 배당금, Royalty Payment, 지분 금액의 해외 반출은 일반 시중은행을 통하여도 가능하다.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나 외국계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단 당좌구좌로 입금된 루빠화는 국내거래로 인정되어 국외송금 시 중앙은행 산하의 Exchange Control Dep. 의 승인 하에 송금이 가능하나 절차가 까다로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BOI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월급 해외 송금은 월 급여액의 90%까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배당금 송금은 외환 지출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도 거래은행이 요구하는 필요서류 제출만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일반 회사와 일반 거래로 발생하는 해외송금은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자금 조달

스리랑카 내에는 상업 은행, 개발 금융기관, 투자 은행, 금융회사, Leasing 회사, 담보 은행, 자본투자회사, 저축은행, 연금 기관 등이 존재하며 이 모든 금융기관들은 스리랑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ri Lanka)의 관리 통제를 받는다.

총 26개의 상업은행이 성업 중이며 이 중 10개 은행이 스리랑카은행이고 나머지 16개 은행은 외국계 은행이다.

은행융자는 통상 프로젝트의 50% 이상을 허가한다. 담보로는 설비 및 부동산 담보가 가장 많이 요구되며 이사(Director)들의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융자 금액의 withdraw는 자본금 (Equity) 입금 후에 허가한다.

대출이자율은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2008년도 약 20% 수준에서 2009년도에는 17%으로 떨어졌다. (2009년도 중앙은행 Annual Report)

5) 스리랑카 내 주요은행

국내은행	외국계 은행
Central Bank of Sri Lanka	Standard Chartered
Bank of Ceylon	City Bank
Commercial Bank	Deutsche Bank
Hatton National Bank	HSBC
People's Bank	Indian Overseas Bank
Sampath Bank	DFCC Vardhana Bank
National Development Bank	ICICI Bank
Merchant Bank of Sri Lanka	
Nations Trust Bank	
MCB Bank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규모

2010년도 GDP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9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농수산업이 11.9%, 2차산업이 28.7%, 서비스산업이 5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수산업 11.9% 중 쌀(1.8), 코코넛(1.1%), 어업(1.2%), 차(1.1%), 가금(0.8%)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쌀을 제외한 코코넛, 어류, 차 등은 주요 수출대상 품목이다.

2차 산업은 제조업(17.3%), 건설(6.7%)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부품, 기계, 장비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무역 및 내수유통업(23%), 운송 및 통신 (13.9%), 금융/부동산(8.9%), 정부서비스(7.6%)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관광산업 육성이 중요함에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밖에 되지 않는다.

민간부분의 소비비중을 살펴보면(2010년) 식음료/담배(39.6%), 교통(21.2%), 주택/상수도/연료(11.2%), 해외거주자 지출(9.2%) 등이며 교육, 건강, 호텔/음식점비 지출비중은 아주 낮은 편이다. 특히 교육비 지출은 0.1%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무상교육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스리랑카는 고가의 수입상품 사용가능 인구 비중이 약 5%(1백만 명) 내외로 추정되는 전형적인 소량 주문시장이다. 아울러 제조업 발달이 미흡하여 대부분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나 일인당 국민소득이 2,399달러(2010년) 수준이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보다는 중국, 인도 등 저가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규모 면에서는 여러 브랜드의 동시 진출이 어려워 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수입구조가 소비재 중심에서 산업확대, 인프라 개발 및 건설 활동 증대, 수출 확대로 원부자재 등 중간재와 기계설비 등 자본재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으며 중고품의 수입도 활발한 편이다.

특히 내전종식(2009.5월)이후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소비재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2010 기준 6.9%로서 2009. 3.4% 대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the greater Colombo area)에 상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수도권은 스리랑카 전 산업 생산액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소득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25% 높다. 인구는 580만 명이 넘어 전 인구의 거의 30%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수도권인 콜롬보 메트로폴리탄 지구(greater Colombo area)는 콜롬보 및 교외지역인 Gampaha, Kalutara 지구를 포함한다.

나. 일반특성

고가품 및 고품질의 일반 소비제품과 기호식품 및 사치품은 일부 고소득층 및 외국인을 상대로 특정 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높은 관세로 판매가격이 외국에 비해 비싸다.

그러나 가격(저가)이 구매의 결정기준이었던 것이 2009년경부터 점점 품질 위주로 구매 결정 기준이 옮겨지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중고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가전제품, IT제품 등의 경우 고장이 나도 수리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PC의 중고품과 재생타이어 수입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내구성 소비재는 세계 유명 브랜드가 유통되고 있으나 전체 시장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외국 유명기업들은 자회사 또는 지사를 설치하지 않고 대부분 현지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에서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은 세계 유명브랜드 에이전트 보유수 또는 보유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는 괜찮은 편이며, 특히 아시아 국가 중아국 제품을 고급품으로 인식하는 편이다. 공업생산수준이 취약하여 원자재 및 수출용 중간재, 고급소비재 등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상권의 중심인 콜롬보에는 현대식 슈퍼마켓 몇 개가 성업 중이며 도심 외곽을 중심으로 비교적 대형 유통센터가 입점 중이나 아직은 중산층이상 고소득층 혹은 체류 외국인이 주요 고객이며 대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은 일반 재래식 시장에서 식료품이나 일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백화점과 하이퍼마켓의 비중은 매우 작다. 백화점 브랜드는 1개(ODEL), 슈퍼마켓 체인은 대형이 없고 CAGILL, KELLES 등 100~300평 규모의 체인점이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고 그이상은 콜롬보 시내 및 인근에 극소수가 있다. 매장내의 시스템은 POS시스템이다. 그 밖에 개인상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 네고가 일반적이다.

유통구조는 수입업체가 도매유통까지 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소매유통까지 담당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고 있어 이들에 의한 직수입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 대형유통점은 직접 수입은 지양하고 지정 수입상/공급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대형 유통점(KELLES 등) 공급을 희망할 경우 동 유통점에 공급하는 수입상을 접촉해야 한다.

스리랑카 전체 수출입의 90% 이상이 콜롬보항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무역거래도 콜롬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30개 대기업들의 수출입 규모가 전체 수출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중, 소형 수입상의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신흥도시 중산층(NUMC: New Urban Middle Class)이 민간부문의 급속한 확대-관료의 권위와 공공부문의 상대적인 축소에 따라 신흥도시중산층이 새롭게 급속 부상 중이다. 신흥도시 중산층은 주로 사기업의 관리자계층, 시장개방으로 돈을 버는 자영업자, 외국 원조 기관 직원들이 주축이다. 사기업 관리자계층은 높은 연봉 외에 회사제공 자동차 및 유류비 지원 등 부가급부 혜택을 받고 있어 구매력이 높다.

신흥도시 중산층을 모방한 소비행태가 확대되고 있는데, 소득수준은 이에 못 미치지만 스리랑카 주부들은 심정적으로 신흥중산층의 생활을 동경하고 중산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의류, 장식품, 자동차, 주택 인테리어, 가전제품, 외식 등에서 모방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다. 산업집중도

산업별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2010년) 서비스업(43.1%), 농업(32.7%), 제조(24.2%) 순이다. 이 중 서비스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서비스업(17.9%), 무역/호텔(15.5%) 순이다. 콜롬보와 인근지역인 감파[스리랑카 웨스턴프로빈스(서부주)]지역이 대기업 및 중간기업 기업수의 각각 20%, 18%를 점하고 소기업 수의 각각 10%, 13%를 점하고 있어 이들 두 지역이 스리랑카 제조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스리랑카 서던프로빈스(남부주)의 골, 마타라에 제조산업이 밀집돼 있으며 3위로는 센추럴프로빈스(중부주)의 캔디와 누와라엘리아에 제조산업이 밀집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3개 주에 제조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산업 용수 및 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잘 갖춰져 있으며 투자 자원 마련을 위한 금융자본 접근이 보다 용이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배후 소비 시장은 물론 인력 확보가 쉽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내전 종식 이후 반군점령지역 던 자푸나(스리랑카 북부지방)이 산업지역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스리랑카 제조산업 고용인력의 62%가 식음료 및 담배, 섬유봉제피혁 부문에 고용 되어 있는데 이 중 섬유봉제피혁 부문은 직접고용인원이 46만 명으로 전체 제조 부문 고용의 45%를 점하고 있다.

라. 도매유통

스리랑카에서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 및 국영기업은 대부분 입찰을 통해 소요 물품 및 기자재를 조달하고 있고 대부분 자체 조달 형태를 띠고 있다. 일반 수입 전문업체는 도매상 및 소매상을 통한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며 다량 소요되는 제품은 필요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으나 일반 소비제품은 에이전트 혹은 전문업체에 의하여 수입된 뒤 도매상 - 소매상 순으로 유통되고 있다.

한가지 스리랑카의 특징적인 현상은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상이나 여러 매장에서 취급하는 경우를 찾아 보기가 어렵다. 즉 스리랑카의 시장규모가 작고 유통단계가 많지 않아 바이어들은 수입제품에 대해 독점권을 꼭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국단위의 유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입업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다국적 브랜드가 아닌 경우 특정 수출업체의 제품은 한정된 지역 및 한정된 소매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마. 소매유통

백화점, 슈퍼마켓 등 중간 규모의 유통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편리한 쇼핑시설, 현대식 매장 및 높은 위생수준, 고객중시接客 태도, 바코드 시스템 도입, 가격정찰제 실시 등으로 외국인, 중산층 이상 고객들이 주로 찾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의류, 식품 등 소수의 전문 상점을 제외하고는 다수 시민들은 재래시장이나 마을마다 있는 소규모 상점에서 구매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형 할인 매장 등은 아직 진출되어 있지 않다. 현대식 슈퍼마켓 매장 규모도 외국에 비해 초라한 편이다.

미국 카길스사에서 투자한 Food City가 식품, 생선 및 육류, 생필품을 취급하는 슈퍼 체인으로 가장 많은 매장을 주요 도시에 갖고 있으며 이들이 체인 소매 유통시장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

콜롬보에서는 Odel, House of Fashion 등이 현대식 건물에 의류, 신발, 가방, 잡화, 수영복 등 스포츠레저 용품 등을 중상류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의류, 신발, 가방, 가전 등 일반 소비재품의 다양한 브랜드가 한곳에 모인 하이퍼마켓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의류, 가방, 신발과 같이 일반소비재중 소비자의 선호도가 뚜렷한 분야는 우리나라의 80년대와 같이 소규모 전문상점 형태(양장점, 양화점, 컬렉션 등)로 발달해 있다.

나이키,리복, 아디다스 등 신발을 제외하곤 글로벌 유명브랜드를 대규모로 갖춘 상점은 전무하다고 보면 무난하다. ODEL 백화점에 분야별로 유명브랜드가 몇 개 있으나 소비자들이 거의 찾지 않을 만큼 보유상품이 매우 적다.

공구류, 건설자재, 페인트 등 산업자재도 콜롬보에서조차 조그마한 슈퍼마켓 형태의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을 만큼 대형유통망은 없다.

따라서 품질경쟁력 또는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제품을 찾을 경우 정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수입유통업체들이 콜롬보 전체 상점이나 전국단위로 공급망을 확보하기도 곤란한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 제품을 찾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수입상들을 통해 어느 상점에서 공급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콜롬보 및 수도권 지역과 캔디, Galle 등 아주 큰 도시 이외에는 현대적인 소매 유통기반이 아주 미흡한 우리나라의 1980년대 읍/면 소재지 정도 수준이다. 따라서 다국적 브랜드, 일본, 한국 등 중고가 소비제품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한정되어 유통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IT, 가전, 생활소비재품의 수출을 추진 시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으며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만 이들 업체들은 직접 수입업무를 하지 않고 현지 수입상을 통해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현지 수입상과 상담 시 공급 레퍼런스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전국적인 소비재 슈퍼마켓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Cargills, Keellssuper (www.keellssuper.com, Food City(Cargills 소유), ODEL 등이다

2. 물가정보

(US\$=110RS, 2011년 3월 콜롬보 기준)

구분	항목	가격(RS)
식품류	쌀 1kg (안남미 종류)	100
	계란 12개	200
	쇠고기 등심 1kg	620
	돼지고기 등심 1kg	506
	우유 500ml	60
	식용유 1L	250
	생수 1L	55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1,42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42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410
	김치찌개 1인분	75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 사립의료보험 가입시 최대 1,000,000루피 커버기준	15,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5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
차량관련	2000cc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6,000,000
	무연휘발유 1L (90기준)	125
	자동차 등록비	20,000
	자동차보험료 의무 (2000cc신차, 운전경력 10년, 대인/ 대물커버, 1년)	100,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50
	시내버스 기본요금 (콜롬보 시내를 3개 구간으로 분류)	6/ 9/ 12
	택시 기본요금	25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10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100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300
	ADSL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2,9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220,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538,35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679,7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986,05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7,0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3,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42,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12,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65,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5
	출산휴가일수 (*토,일, 공휴일 제외)	84
	연간 국경일수 number of holiday per year	25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발굴

1) 협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 Ceylon Chamber of Commerce (CCC) (협회중 가장 오래되고 회원수도 가장 많음)
 - 주소: 50, Nawam Mawatha, Colombo-2
 - 전화: 94-11-2421745/7,
 - 팩스: 94-11-2449352, 2421747
-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of Sri Lanka
 - 주소: 450, D.R. Wijewardana MW, Colombo 10
 - 전화: 94-11-2689600/2689596
 - 팩스: 94-11-2689596
- Ceylon National Chamber of Industries
 - 주소: 1/F, 20, Galle Face Court 2, Colombo 3
 - 전화: 94-11-2452181
 - 팩스: 94-11-2331443
- Sri Lanka Chamber of Small Industry
 - 주소: No 9,3rd Floor, Galle Face Courts 1, Colombo-3
 - 전화: 94-11-2438715
 - 팩스: 94-11-2336466
-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 주소: 53,Level3 Vauxhall Lane, Colombo-2.
 - 전화: 94-11-2304253/4
 - 팩스: 94-11-2304255
- Ceylon Rubber Buyers' Association
 - 주소: 344, Grandpass Road, Colombo-14
 - 전화: 94-11-2325997/2329566
 - 팩스: 94-11-2533217

2) 기업 정보 회사 및 시장 조사 서비스기관을 통한 발굴

- Kompass 스리랑카 지사
 - 전화: 94-11-2597551
 - 팩스: 94-11-2586135
 - 이메일: compass@sltnet.lk
 - 홈페이지: www.kompass.lk

- Assignment Ltd
 - 전화: 94-11-2589705
 - 팩스: 94-11-2580616
 - E-메일: jimgroup@sltnet.lk
- Key Research & Information Ltd
 - 전화: 94-11-2506530
 - 팩스: 94-11-2586220
 - E-메일: key.research@lanka.ccom.lk

3) 광고 매체를 통한 발굴

□ 신문 및 전문지

스리랑카는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논평, 정경유착 등에 대한 폭로성 및 가십성 기사가 자주 게재된다.

일간지의 경우, 별도로 경제금융섹션을 매일 발간하고 있다.

- Daily News: 영자 일간신문으로 여당지 성향 www.dailynews.lk
- The Island: 영자 일간신문으로 야당지 성향 www.island.lk
- Daily Mirror: 영자 일간신문으로 중립 성향 www.dailymirror.lk

가장 많이 보는 영자신문인 Daily News인 경우 21 cm X 16.2 cm 사이즈 광고비용은 아래와 같다.

	페이지 지정 안 했을 경우	페이지 지정할 경우
흑백	약 280불	약 340불
컬러	약 459불	약 510불

보통 매체광고는 직접하기보다는 대행사를 이용하는것이 편리하며 가격도 보다 저렴하다. KBC에서는 아래의 광고 대행사를 이용한다.

- Three'M' Agencies(Pvt.)Ltd.
- Tel: 94-11-2682503 / 4618791 / 5360093 (3개 라인)
- Fax: 94-11-536 0094
- Email: threem@emsn.net

Daily News가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가운데 Daily Mirror가 2순위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임. 경제분야는 Daily Mirror지와 Financial Times가 가장 많은 부문을 할애하여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Daily News는 스리랑카 각 산업에 대한 특집기사가 많으며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심층기사도 많이 게재하고 있다. Daily Mirror는 기사의 내용이 깊이보다는 사실위주의 기사를 간략하게하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는 차별성이 있다.

주간/월간지에는 Sunday Times 및 Sunday Observer, Midweek Mirror등이 있으며 The Island도 일요일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다. 주요 월간 경제비즈니스지로는 LMD가 있다.

한편 스리랑카의 산업별 전문지는 생활, 취미에 관한 전문지만 있고 IT, 전자, 자동차 등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지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전문지는 대부분 인도판 전문지이다.

아울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리포트 등은 대부분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구입해야 할 만큼 비즈니스를 위한 전문지의 발간 및 유통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라디오 방송

- Sri Lanka Broadcasting Corp: 영어, 싱할라, 타밀어로 방송하고 있음
- TNL 라디오 (101.7 및 90 FM Stereo): 음악방송 전용
- 영어방송 (FM 93.3): 오전 2차례, 오후 3차례 뉴스 방송
- 그 외에 BBC, VOA 등도 청취 가능함

□ 주요 TV 방송

<국영방송>

- Rupavahini: 주로 내국인들을 위한 국영종합방송으로 싱할라어, 타밀어위주, 일부영어
- Channel Eye/Nethra: 국영 종합방송으로 영어위주, Rupavahini 방송이 소유
- ITN: 주로 내국인들을 위한 국영 종합방송으로 싱할라

<민영방송>

- Swarnavahini: 싱할라 민영 종합방송채널로 민영방송중에서 시청률 가장 높음
- ETV: Swarnavahini 방송이 소유한 외국콘텐츠 위주의 영어방송
- Sirasa: 싱할라 민영 종합방송 채널
- MTV: Sirasa 방송 소유, 영어위주의 오락 프로그램이 다수 (홍콩 STAR TV 많이 방송)
- Shakthi: 타밀어로만 방송되는 민영 종합방송 채널로 Sirasa 방송 소유
- 그 이외에 TNL(싱할라어), DERANA(싱할라) 등이 있다

4) 각종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박람회들은 아래와 같다.

- 콜롬보 교육 박람회
- 콜롬보 섬유 박람회
- 콜롬보 Architect 박람회
- 콜롬보 혼수용품 박람회
- 콜롬보 소비재 박람회
- 콜롬보 취업, 인력 박람회
- 콜롬보 가구, 인테리어 박람회
- 콜롬보 산업 박람회

- 콜롬보 교육 박람회
- 콜롬보 하계 박람회
- 콜롬보 건축 박람회
- 콜롬보 식품 포장재 박람회
- 콜롬보 식품 박람회
- 콜롬보 소비재 박람회 2006
- 테크노 전시회
- 직물류 및 액세서리 공급자 박람회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뉴스 및 비즈니스관련 주요 사이트

- 스리랑카 비즈니스 디렉토리 : www.lbdo.com
- 스리랑카 비즈니스 포털(Sri Lanka Business Portal) : www.srilankabusiness.com/
- 스리랑카 아카데미 네트워크(Lanka Academic Network) : www.theacademic.org
- 스리랑카 페이지 : www.lankapage.com
- 스리랑카 비즈니스 리포트 : www.lankabusinessonline.com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1) 약속

한국기업들이 스리랑카 공무원과 약속을 원할 경우 대부분 호의적이다. 그래도 1-2주 전 정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아는 관계는 1주 전에 전화, 이메일 등으로 해도 무방하다. 기업인은 최소 3-4일전에 전화, 이메일로 약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속시간에 대한 관념이 대부분 정확하나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늦게 나타나는 경우와 약속 시간 바로 직전에 급한 일로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공무원일 경우 이런 임박한 약속 취소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 즉석에서 다음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다. 우리 기업인들에게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 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무원이나 비즈니스맨들은 대부분 양복상의와 넥타이를 매지 않고 정장바지에 와이셔츠 차림이 일상적이다. 그러나 초면일 경우 정장차림이 무난하다. 행사에 초청될 경우에는 초청장에 복장을 지정하여 통보함으로 복장종류를 꼭 확인해야 한다.

2) 식사

스리랑카인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 메뉴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의 스리랑카 불교인들은 종교 및 관습의 영향으로 쇠고기를 먹지 않으며,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무난한 메뉴는 닭고기와 생선으로 구성된 요리이다. 스리랑카에는 채식주의자들도 의외로 많다. 상대의 식성을 모르는 경우, 좋아하는 음식 혹은 삼가는 음식을 물어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현지인들 사이 중국음식이 익숙하고 중국음식점도 많아 스리랑카인들을 초청할 때 무난한 선택인 것 같다. 인도문화권이기 때문에 인도음식점도 권할 만 하다. 요리에 매콤한 커리와 고추, 마늘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자극적이며 매운맛에 익숙한 편이다.

한국을 잘 알거나 한국방문 경험이 있는 현지인들에게는, 돼지고기를 삼가지 않은 경우, 한국음식점에서 찜장, 상추, 돼지불고기 또는 오징어 볶음 등을 권할 만하나 국물 있는 음식은 대체로 선호하는 편이 아니다. 동남아와는 달리 한류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 술은 맥주 또는 위스키가 일반적이며, 와인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와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지니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 특히 만찬을 겸한 규모 있는 리셉션의 경우 식사 전 음주시간이 다소 길다고 느낄 정도로 음주를 하는 경향이 있다. 행사와 연계한 오만찬의 경우 주요내외빈 인사말이 의외로 길다. 따라서 만찬시간도 행사시작후 통상 오찬은 30분, 만찬은 1시간 이후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

현지인들은 외국인들과의 식사 시에는 스푼 및 포크를 사용하나 자신들만의 식사시나 비공식 식사 시에는 손으로 먹는다. 이때 오른손만을 사용하며 왼손은 사용치 않는다.

본인의 식사가 끝나도 상대 혹은 일행들이 아직 식사 중이면 일어서거나 손을 씻지 않는다. 부득이 먼저 일어서거나 손을 씻어야 할 경우에는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스리랑카인 집으로 저녁 초대를 받는 경우, 비록 초대 시간이 이른 저녁 시간이라도 대부분 식사는 늦게 제공된다. 식사 전에 위스키, 맥주, 와인 등 주류나 음료를 마시며 가볍게 담소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 자리에는 다른 가족들도 참석 함으로 가급적 심각한 비즈니스 상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사 제공은 저녁이 무르익었을 때 이루어지며 저녁 식사 후 손님들은 자리를 뜨는 것이 예의이다. (저녁식사 제공은 ‘이제 이것이 오늘 저녁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드시고 가십시오. 라는 의미이다).

저녁을 일찍 먹는 습관이 있는 한국인들은 초대에 가기 전 미리 가볍게 음식을 먹는 것이 허기지지 않아 좋다.

3) 선물

선물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지만, 상대에 따라 그리고 선물의 부피, 가격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통 인삼제품(인삼차, 홍삼절편), 탁상용 소품, 위스키 등이 선물로 적당하며, 가격은 US \$30-40정도면 선물로서 가치 있게 생각한다. 가벼운 금속 명함집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탈’과 같은 한국전통 목공예품은 별로 환영 받지 못한다.

스리랑카인의 집에 소규모 인원으로 한정하여 초대받은 경우 위스키, 와인, 케이크 등을 갖고 가는 것이 초대에 대한 감사표시로 바람직하다. 특히 개인 가정에 초청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스리랑카 관습이다.

4) 인사

스리랑카인들은 “노(No)”라는 직접적인 거절의 말은 아낀다. ‘고려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노”라는 의미이다.

스리랑카인을 비롯한 근동지역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대답을 하거나 반응을 보일 때 고개를 좌우로 살짝 가볍게 흔드는 제스처가 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부정의 몸짓으로 오해 한다. 부정 시에는 좌우로 강하게 흔든다.

전통상 스리랑카인들끼리는 양손바닥을 곱게 마주하여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다. ‘아유보완’이라는 인사는 ‘만수무강하십시오’라는 뜻으로 ‘안녕하세요’의 의미로 서로 인사한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인사는 악수가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환영의 인사법이다. 악수는 손에 약간의 힘을 주어 잡고 10초 정도 가볍게 흔든다. 친 할 경우 가벼운 포옹도 가능하다. 여성과 인사할 때는 상대방이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는 한 목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호칭은 스리랑카인은 이름 대신 성씨를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 앞에 Mr. 혹은 Mrs. 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I am 미스터 김. 혹은 My name is 미스터 김 은 아주 우스운 영어이다). 소개가 끝난 후 상대방이 한국인 이름 앞에 Mr.를 붙이거나, 혹은 성이나 이름만으로 호칭하는 것은 스리랑카인 자신의 판단에 의해 한다.

5) 복장

스리랑카 여인들이 입는 전통의상은 ‘사리(saree)’라고 부르며 행사용으로 혹은 정장으로 입기도 하고 평상복으로 입기도 한다. 남자들이 입는 통치마는 ‘사롱’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복장은 와이셔츠에 넥타이 정도가 정장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정장 상의를 입는 경우는 드물다.

스리랑카인들은 공식행사 혹은 평상시에는 주로 전통 의상에 슬리퍼 (엄지발가락을 따라 끼워 넣는 한국식 쪼리)를 착용한다.

방문 시 긴소매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장 무난하다. 특히 공무원들을 만날 때 넥타이 착용은 바람직하다. 양복과 넥타이의 경우, 특별히 호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색깔은 없다.

나. 상담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전반적으로 스리랑카인들은 정서가 온순하며 다소 느린 감은 있으나 합리적인 일처리가 관례화 되어 있어 이들과의 거래시 조급성을 띠어 역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의 성향은 대화 시 연성을 높인다든지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상담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며 생활에서도 싸우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순리적으로 생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웃음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이라 대하기가 편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료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다는 점도 참고 할만하다.

업무 혹은 일상 생활에서 이들과 접할 경우 불교국가의 특성을 감안, 같은 불교도임을 설명하고 불교 관련 사항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스리랑카에 대한 인상을 묻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 매우 좋아한다.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첫인상과 함께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스리랑카인은 주로 스리랑카에 언제 도착했는지, 방문 소감, 체류호텔 등을 묻는 간단한 인부로 시작하여 본론에 들어간다. 상담 중에는 차, 커피, 생수 등 음료가 서빙된다.

Presentation을 위하여 Notebook를 앞에 놓고 상담하는 경우 Presentation이 끝나면 바로 Notebook은 접고 상대방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좋다. Notebook 화면을 보면서 혹은 자판을 두드리며 상대방 말을 듣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스리랑카와 한국간의 산업 및 기술 발달에 격차가 있음을 인지하고 카탈로그만으로 한국의 첨단 제품을 스리랑카 바이어에게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샘플을 보여주거나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가격표는 CIF Colombo로 준비한다.

성공적인 상담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회신이 없을 경우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열악한 전기사정과 통신사정으로 전화, 팩스, 이메일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의 바이어와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스리랑카는 최근에 외환보유고를 최소 적정 수준인 3개월 분 유지를 위해 수입제한정책을 쓰고 있다.

스리랑카정부는 수입 시 L/C거래를 권장하고 있다. L/C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수입대금의 100%를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L/C 개설을 위한 예치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다. 수입 시 관세 등 세금, 경비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인보이스상 언더밸류 (under value)가 일반화 되어 있다. 특히 외국과의 외상거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바이어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액거래는 T/T계약도 많이 한다.

T/T거래시 계약 건당 지불한도금액이 1만불이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싱가포르나 홍콩에 별도 구좌를 개설하여 1만불 이상의 계약에 대해 T/T 결제를 하기도 한다.

다. 신용 확인

상장기업들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주식 브로커들도 상장 기업들에 대한 기업평가를 외부에 발표하고 있다. Fitch Ratings는 은행 및 금융기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대형 계약의 경우, 기업 컨설팅사나 로펌을 활용하는데, 이들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서비스'로 업무를 수행한다. 소규모 거래 시 잠재 고객에게 신용장을 요구하는 것이 표준화 되어 있으며, 에이전트 선정 전에 은행 신용 의견서(bank reference)를 요구하고 아울러 과거 행적을 반영하는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의 신용 및 재무정보, 지분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Lanka Orix Factors Ltd (LOFAC)가 로컬 에이전트로 있는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정보회사인 Dun and Bradstreet (D&B)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상당한 주의(통상의 사려분별력을 가진 개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서비스(due diligence service)’ 수준의 스리랑카 상대방 기업정보가 필요하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요금은 1개 기업 정보당 통상 US \$ 100정도이다. 스리랑카 기업 중 D&B에 등록된 기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중소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세 표준액 4만5천불 정도에서 세금이 두배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상담시 명함을 2-3개씩 건네는 바이어도 흔하며 상담은 A사 바이어와 했는데 계약은 B사 이름으로 하는 것도 다반사이다. 이를 오해하여 계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해당 바이어의 기업구조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된다.

라. 분쟁 시 해결 절차

로컬 파트너와 에이전트와 체결한 모든 계약이나 약정은 구두가 아닌 서면(문서화)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분쟁이나 문제발생시 이러한 라이팅 기록이야말로 소송에서 필요 시 중요한 증거로 해결에 매우 도움이 된다. 스리랑카 주요 로펌은 영국에서 발간되는 International Law List에 등재되어 있다.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중재 기관과 연결된 상업 분쟁 중재 기관 (Arbitration Centre)이 콜롬보에 있다. 이 기관을 통해 분쟁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마. 기타

스리랑카에서는 기업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또한 현지인의 고위층 인맥과시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스리랑카는 국가 규모에 비해 정부공무원 및 부처수가 과다하게 많으며 장관과 부장관은 모두 정치인인 국회의원 출신이다. 이들은 재선을 위해 후원자, 민원인, 선거구민의 민원성 요청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분권적 정치구도와 사법제도, 언론이 나름대로 발달되어 있어 무턱대고 해결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스리랑카내에서 인지도 및 큰 규모의 매출액을 갖지 않으면서 고위층 인맥을 너무 강조하는 바이어는 오히려 다시한번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에는 많은 중소 수입상이 있지만 대부분의 수입물량은 20-30여 개의 대기업들이 취급하고 있다. 오직 소수 수입상만이 스리랑카 전역의 유통망을 커버하고 통제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유통구조는 단순한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나 소매상 (retailer)에게 도매판매 (wholesale) 하는 구조이다. 무역 및 유통에서 정부의 심각한 재정난과 시장 개방, 경영효율이 높은 사기업 발달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줄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가격이 중요한 구매결정요인이기 때문에 가격은 현지시장을 주도하는 경쟁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로컬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들로부터 가격 결정시 필요한 제안이나 유용한 시장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시장진입 초기에는 거점 확보를 위해 소비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낮은 저가 유도가격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인지도와 충성도를 발굴해 나가는 경우도 있다.

점차 품질과 애프터서비스(A/S)가 중요한 판매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삼성, LG, 현대자동차로 이미지가 높은 한국산은 품질이 좋지만 경쟁국산에 비해 가격은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애프터서비스와 소비자 서포트가 점차 중요 요소로 되고 있는 가운데 가전, PC, 핸드폰 등 IT제품 등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스리랑카 주요 수입 에이전트(아반스, 싱하기리, 싱거 등)은 스리랑카 주요 지역에 A/S망을 갖추고 비교적 신속하게 종합적인 소비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에이전트를 선정할 경우 이러한 능력도 중요 고려 요소이다.

소비자 교육 또한 핵심적인 판매요인이다. 광고, 판촉행사 및 전시회 등 무역이벤트에 참가하는 것이 소비자의 인지도를 올리고 시장점유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러한 마케팅기법의 효과성은 상품에 따라 다르다. 마케팅 및 세일즈를 위한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 선정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정부구매는 정부지정 구매사양을 충족시키는 조건하에서 가격기준으로 결정된다.

시장규모 협소로 인해 대부분 바이어들의 수입물량은 많지 않다고 보면 된다. 스리랑카 수입상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량 때문에 협상이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물량 때문에 제조국에서 직수입하지 않거나 재고관리 및 금융 부담 때문에 싱가포르 수입상을 통해 제 3국 제품들을 간접 수입하는 형태가 선호되고 있다. 아울러 소득수준 때문에 중저가 중국산/인도산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품질이 너무 좋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다. 따라서 일반인이 아닌 사무실, 산업용 제품일 경우 품질로 경쟁이 가능하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현지 역량있는 무역, 투자 전문 상담기관 절대 부족

제조산업이 절대부족하고 연관산업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현지 대기업들도 제조업보다는 수입, 유통, 서비스업에 치우쳐 있다. 특히 대기업들은 자회사별 관련이 없는 업종에 문어발식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부문별 전략이나 정체성이 부족하여 미래 예측이 어렵고 전문가 인력 양성이 안되고 있다.

스리랑카 로컬 컨설팅업체들은 해당분야 산업전문가라기보다는 인맥을 활용한 비전문 로비스트가 더 많은 편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분야별 연구활동이 부족하고 스리랑카 산업에 대해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투자와 관련된 사항은 스리랑카 투자청 근무경험이 있거나 해당분야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법체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무법인들은 애로사항이 있는 건들에 대해서 의외로 잘 해결해주는 능력도 있다.

나. 전기, 공업 용수, 도로, 철도, 항만시설 등 인프라 부진과 비싼 경비

전력 사정 (불안정한 전압과 잦은 정전, 높은 전기 요금)이 비즈니스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며 그 다음이 도로 상태이다. 차량 수에 비해 도로가 협소하므로 정체 현상 또한 높은

경비의 발생으로 시간과 경비의 손실이 크다. 이 요소들은 제품의 높을 수 밖에 없는 생산 단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높은 단가는 경쟁력을 잃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다. 노동관련법의 경직성과 모호함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고용 종료에 어렵다. 본인의 사전 서면 동의서나 근로감독관의 서면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노사간 분쟁 심판소인 ‘노동심판소(LT)’에서 심리할 때 소요되는 기간 자체가 불확실하고 대부분 몇 년씩 걸리고 있다. 징계에 의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노동 심판소는 고용주에게 높은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판정한다. 노동관련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법과 시행령간 모순되는 조항이 다수이다. 그러면서도 소송이 걸리면 노동자가 유리한 쪽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많다.

일례로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은 과거 농업근로자(차, 쌀, 사탕수수, 고무 등)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동 법을 적용하여 퇴직금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불만을 품고 고소하면 고용주가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나마 2005년 이후 Termination Formula가 제시되었다. 이 정리해고 보상 수준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종업/폐업 법률 및 인력구조조정에 관한 법률들이 존재하지 않아 많은 경우 ‘자연 도태’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라. 불공정 무역 행위

현지기업들에 의한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정상적인 산업이나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덤핑 판매하거나 인보이스 조작이나 밀수로 중고품, 부품 등을 저가로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스리랑카 산업에 큰 피해를 안기고 있다.

마. 유망 성장산업에 대한 저렴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족

효율적으로 경영되는 민간은행들은 고수익 확보를 위해 높은 대출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업은행들은 안전위주와 주주이익 측면에서 매우 보수적인 대출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저축성 정기예금 금리가 금액에 따라 아직도 10% 이상 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 사례

부산디핑은 스리랑카에 지난 1992년 진출한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사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업체 중 하나이다. 저임 노동력과 천연고무 공급력을 이유로 스리랑카로 투자하였으며, 자매업체로 할로윈 가면을 생산하는 카니발월드가 1990년에, 작업용 다목적장갑을 생산하는 KOATED GLOVES가 2008년에 설립되었다. 지역적으로 바이어 접촉이 어려운 면이 있으나, 미국 독일 홍콩 등 주요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자체 브랜드 육성 및 OEM 다각화로 직접 마케팅 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성공요인으로는 1) 주 원료인 천연고무를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하여 고무 생산량이 적은 중국에 비해서도 원가경쟁력을 다소 누릴 수 있는 점, 2) 관리직원을 대부분 현지화하여 현재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00여명을 현지인체제로 전환한 점, 3) 현지인으로 구성된 20여명의 우수한 자체 설비팀을 가지고 있어, 생산 및 폐수처리 설비 등을 대부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4) 마지막으로 2008 년 시작된 전세계적 경기불황에 대응한 수출 다각화 전략으로 기존의 선호시장인 미국, 유럽에 그치지 않고 중동, 동유럽, 인도, 동남아시아 등에 고급시장과 대중시장에 다양한 품질의 품종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으며, 무역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마케팅으로 직접 해외의 바이어들과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실패 사례

업체명	S사
공개가능여부	X
개요	- 소재지: 3A Vihara Mawatha, Meethottamulla, Wellampitiya, Sri Lanka - 투자형태: BOI, Section 17 - 현지인과의 동업 (현지인 90%/한국인 10%) - 진출연도: 2005 - 업종(품목): 스테인리스 가정용품 제조업 - 투자규모: 대략 U\$500,000.-- - 종업원수: 약 50 여 명
사업경과	○ 배경 - 2004년 말경 한국 내 ‘스테인리스 가정용품 제조 공장의 기계, 설비, 공구 일체’가 공장이 폐업함으로써 아주 싼 가격에 나왔다고 한국인 국제 브로커가 스리랑카인에게 소개하였다. 이 스리랑카인은 소개받은 업종에는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 한국인 중개인은 이 공장만 설립 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한국 고객들과 연결해 100% 판매 보장은 물론 한국인 기술자를 현지 파견하여 현지 직원들에게 기술 전수 도 책임지겠다고 보장했다. 현지 회사는 기계, 설비 대금으로 \$500,000.--계약 외 중개비 \$100,000.--도 계약 하였고, 그 중 받은 실제 지불되었다. 회사는 설립되고 기계, 설비도 도착하고, 한국인 기술자도 도착하였지만, 실제로 도착한 설비는 현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정용품을 제조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기계설비들이었으며, 시험으로 작업한 단순 주전자 조차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없었다. 이런 과정 속에 현지인은 공장을 더 이상 지속할만한 자금력이 없어지고, 나아가 한국의 기계 설비 수출자인 ‘대동’ 이라는 회사에 잔금 지불 거절 등 한국인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 으로 전개되었다. 압력에 밀린 중개인이 한국에서 판로를 개척하는 과정에 위의 투자자인 S사를 알게 되었고, S사는 평상시 외국 작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투자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이 방문 기간 중 현지인 사주와 MOU 작성하였다. - 2006년 3월경 S사는 현지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전량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조건, 현지 회사명을 ‘S사랑가’로 바꾸고, S사제품만 생산한다는 계약 체결했다. 기술 전수와 100% 생산, 판매 보장, 설비 개선금액 보조 등의 보장으로 10%의 지분도 인수 받기로 계약했다. - 현지인은 원활한 생산 환경 보장을 책임지면서 이에 따른 인력, 전기, 전화 등 인프라 그리고 제품 생산용 원부자재 조달의 책임을 지기로 하였지만 자금력 부족으로 이 책임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결국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갔다. 더하여 설비의 주인인 ‘대동’ 이라는 회사는 잔금 지불을 요구했다. 이런 과정에서 쌍방은 서로 상대가 먼저 발을 떼기를 고집하고 이렇게 영킨 상태에서 나오려고 S사는 100% 지분 인수를 제의 하였으나 협상 과정에서 이것 또한 무산 결국은 철수에 이르렀다.
철수원인	- 생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음 - 그 어떠한 약속조차 이행이 되지 않았고, 쌍방간의 신뢰가 없어짐
시사점	- 사기성 내지는 쉽게 이익을 보려는 욕심이 가득한 시작이었으며 거래였음. (4자 모두 ‘현지인’ ‘중개인’ ‘대동’ ‘S사’) - 문제 발생시 대처 방법이 ‘해결을 위한 대화 와 태도’가 아닌 ‘언쟁 혹은 책임 전가’.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구하기

외국인들은 주로 콜롬보 시내 또는 바로 외곽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치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상업의 중심지인데다 각종 문화시설도 이곳에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선호 하는 주택은 방수나 위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미화 월 1,000~1,600불 정도면 집을 구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하며 1년간의 임차료와 1개월간의 보증금을 선불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정을 잘 설명하면 6개월단위로 납부하는 정도는 대개 수용한다.

단독가옥일 경우 경비원, 정원관리사 등 별도의 고용 인원이 필요하며, 도난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보다 약간 비싸며 소규모의 경우는 약 800~1200불, 일반적으로는 약 1,000~1,600불/월 정도이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주인)이 전액 지불한다. 계약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 중도 혹은 해지 시 보증금 일부를 상식을 넘는 높은 하자보수비용 명목으로 공제하고 되돌려 주거나 혹은 전혀 반환치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내국인들보다 높게 임대료,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집을 구할 때 신경 써야 할 것은 파리, 모기 등이 많고 또 도마뱀이 많아 주위가 깨끗한 곳이어야 하며 집에 방충망 및 모기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만약 없더라도 계약 전 집주인에게 설치를 요구하면 대체로 들어준다. 콜롬보 외곽지역 거주 시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밀린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나 사무실이 콜롬보 시내에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큰 길가에 위치한 집들은 소음과 먼지로 고생한다.

가구나 가전제품이 구비된 집도 많은 편이다. 특히 냉장고와 별도로 냉동고는 한국 식품을 대량으로 저장하기 위한 필수품인데, 만약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약 전 집주인과 협상하여 구입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므로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하는 것이 좋다.

다만, 2011년도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수준의 스리랑카인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입주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리한 가구 또는 가전제품 교체를 요청하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나. 은행 계좌 개설

여권과 거주 비자를 취득하며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은행마다 조건과 운영 방침이 조금씩 다르다. 증빙서류로 중앙은행법에 의해 2가지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로 된 전화국 청구서 혹은 전기세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주기도 한다. 외국인은 대부분 직불카드(debit card 또는 Check Card)를 사용하고, 신용카드의 경우 은행에 따라 보증금이나 신용한도 등 제약이 있다. 일부 은행(CITI Bank 등)은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는다. 미화구좌를 개설하여 미화예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송금은 가능하지만 스리랑카내에서의 지불용(Payment)으로는 사용이 안되고 건별로 해당은행으로부터 Bank Draft Check를 발급받아 지불해야 한다. 이에대한 수수료는 비싸지 않다. Current Account는 이자가 아주 낮으나 Saving Account는 이율이 높은 편이다.

다. 비품 구입

스리랑카는 공산품이 고가인 것을 감안하여 현지에서 구입할 물건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비싸며 가구는 마땅한 것이 별로 없거나 있으면 수입품이기 때문에 장식장, 식탁 및 식탁의자, 소파 등은 가급적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 규격은 230-240V, 50hz 이며 잦은 정전에서 가전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와 같은 정밀전자 제품에는 UPS 장착이 필수이다. 아울러 벽에 붙은 콘센트도 종류 4가지 정도가 있을 만큼 규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멀티탭 구입이 필요하다. 콜롬보 등 대부분 지역이 고온 다습 하여 전자제품, 금속제품, 가죽제품이 쉽게 상하며 카메라에 건전지를 내장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건전지가 녹아 카메라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동차나 전자제품의 부품들은 수입에 의존함으로 부품비용이 비싸다. 자동차 등 고가품의 경우 잔 수리가 필요할 때 가급적 빨리 수리하여야 큰 비용 지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가격은 세금 때문에 아주 높다. 산타페 정도의 경우 6-7천만원, 아반떼 정도는 3-4천만원 예상해야 한다. 아울러 오른쪽 핸들만 허용되고 중고차량은 처음 등록된지 3년 미만된 것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한국에서 중고차량을 가져올 경우 현지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

라. 생필품 조달

1) 한국 식품 조달 여건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배추, 무, 대파, 부추 등 야채류 구입은 별 어려움이 없다. 콜롬보의 골피티(골루피티야, Kollupittiya) 시장에 가면 배추, 무는 물론 쪽파, 오이, 당근, 마늘, 고추, 상추 등 채소류와 달걀 등 일반 식품은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2개가 있는데, 'Kmart'와 '하나마트'(골로드에 위치, 줄리아나 호텔 바로 옆)이다. 두 곳 모두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다. 한국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 비싼 편(한국 일반 소비자가격의 2.5~3배 가격)이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양념류(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간장)는 가격이 비싸므로 한국에서 직접 가져오는 편이 좋으며 보관 시에는 더운 나라이므로 대형 냉동고를 구입하여 저장하면 오래 간다. 이삿 짐에 소주, 한국 전통술을 가져오면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며 더운 지방이므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도가 오래간다. 두부, 삼겹살, 떡 등은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먹는 것과 유사한 조기, 갈치류, 조개류도 쉽게 구할 수 있다.

2) 생필품 구입 용이성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한국식품(김, 멸치, 마른나물, 밀반찬용) 및 양념류(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액젓, 간장,)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지 구입을 한다. 쌀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호주산, 일본산, 중국산이 수입되고 있으며 가격은 한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일본쌀 22kg짜리 백미 한포대에 6만5천원선)으로 현지 구입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의류는 날씨가 인해 거의 여름용이다. 아울러 고급원단을 사용한 옷이 많지 않고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아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싱가포르나 한국출장시 구입하곤 한다. 꼭 주의할 것은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 옷장이나 신발장에 옷이나 신발을 2-3개월 넣어두고 내버려 두면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해외여행/출장이 많지 않을 경우 겨울용 옷은 필수적인 것 이외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이불/베개도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단으로 된 것 보다는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기 때문에 구태여 한국에서 새로 구입하여 가져올 필요는 없다.

물파스, 버물리 등 모기에 물렸을 때 바르는 약 이외의 가정 상비약 대부분은 스리랑카에서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기타 수입식품은 높은 수입관세로 인하여 한국보다 가격이 높은 편이다.

3) 식수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물을 식수로 마실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병에 들은 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데 식수 구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 스리랑카는 인접국들에 비해 물의 안전성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고 물값이 싸다.

바. 레저 여건

한국인이 평상시 즐기기에 적합한 레저는 골프 외에는 별로 없다. 스리랑카에 3개의 골프장이 있다. 콜롬보 시내에도 1개의 골프장(Royal Colombo Golf Club)이 있다. 내륙 도시인 캔디 및 누와라엘리아에 각각 1개의 골프장이 있으나 편도 4-5시간 거리에 위치함으로 연휴 때를 제외하고는 이용하기가 거의 어렵다. 콜롬보 시내에 위치한 호텔 수영장, 테니스장, Gym 등을 주중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해안의 일부 호텔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윈드서핑 등 해양 스포츠도 즐길 수 있다.

휴일이나 주말을 이용, 서해안,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해변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고령지 지역과 유사한 중부지역의 누와라엘리아 지역에 갈수도 있으나 편도 5시간이상 소요되며 도로 사정이 열악한 단점이 있다. 산간지방은 한국과 비슷한 봄, 가을 기후이기 때문에 피서를 겸하여 이들 지역을 찾는 경우가 많다.

2009년 종전 이후 트링코말리 등 동부 해안가 지역의 관광개발이 붐을 이루어 해외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사. 치안상태

콜롬보 중심지의 경우 치안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여 주간외출에 큰 문제는 없다. 지방의 경우에는 도심 혹은 관광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단독 외출은 삼가는 것이 좋다. 밤늦은 외출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신변 안전상 유리하며 외출 시 외출 장소를 알리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사정이 열악하여 도로주변에 가로등 설치가 거의 되어있지 않고 대로에서 약간 들어간 도로의 경우 가로등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밤에는 도보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현지인들은 외국인들에게 불리하게 때를 쓰거나 현지인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과격한 감정적인 집단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차량은 그대로 두고 현장을 피해 신속히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리랑카 도로사정은 폭이 좁고 대부분 편도 1차선으로 사람, 우마차, 소, 개, 자전거 및 오토바이, 삼륜차(쓰리휠러)등이 혼재 되어 사용한다. 도로변 바로 옆에 인가가 접하고 있다.

중앙도로 분리대가 없는 도로가 대부분이며 중앙선이 흰색 실선이 아닌 흰색 점선 (추월 가능)인 경우가 많아 추월이 일상화 되어 있으므로 초행인 지역이나 장거리 이동 시는 현지인 기사를 대동하는 것이 교통사고 나 운전 중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아. 삶의 질

2008년 스리랑카 중앙은행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스리랑카는 1인당 국민소득이 U\$2,053, 평균수명 남자 68.2세, 여자 75.8세, 문자해독률 90.8%, 영아사망률이 1.2%이다.

Human Development Index 는 179개 나라 중 104번째 이다. 빈곤층은 2006/7년에 15.2%이며 가정당 평균 가족 수는 4.1명이다.

스리랑카인들의 불교의 영향으로 생존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남을 배려 하는 미풍 양속을 갖고 있다. 국립대학까지 무상 교육, 국립 기본 의료시설, 쌀 등 주식에 대한 정부 식량 보조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국가가 배려하고 있다. 삶의 질에서 1위는 아일랜드, 2위는 스위스 3위는 노르웨이, 한국은 30위, 스리랑카는 43위를 기록하였다. 서남아 국가중에서 방글라데시는 77위, 파키스탄 93위, 인도는 73위를 기록하였다. 즉 스리랑카의 삶의 질은 GNP와 상관없이 높은 편이다.

자. 자녀 교육 여건

1) 국제 학교 (International School)

- 영국과 미국계의 국제 학교(International School) 다수가 운영되고 있다.

학 교 명	계 통	교 과	특 징
Overseas School of Colombo(OSC)	미국계/12년	IB	외교관, NGO 및 해외기업 주재원 자녀들이 주로 다님. 외국인 교사가 많으며, 학비가 가장 비싸 고학년은 연 \$22,000 정도임.
Colombo International School (CIS)	영국계/13년	A/L	전통이 오랜 학교이고 현지 고위층 자제들이 많이 다님. 스리랑카 내 동문이 가장 많음. 공부 많이 시키고 입학요건 중 영어실력을 많이 봄.
Elizabeth Moir School	영국계/13년	A/L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임. (최근 2년 연속 한국인 학생회장들이 선출됨)
The British School in Colombo	영국계/13년	IB, A/L	전체 학생수가 가장 많고 시설이 크고 좋음.
Wicherly School	영국계/13년	A/L	최근 한국 학생들이 늘고 있음.
Royal Institute	영국계/13년	A/L	

- 연령에 따라 유치부, 1-12학년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까지 학급이 나누어 진다.
- 수업료는 학교별로 편차가 있다. 대략 일년에 미화 4천불에서 2만2천불 선이다

주요 학교 연락처

학교명	위치	전화번호	이메일 및 홈페이지
The Overseas School of Colombo	Pelawatte, PO Box 9, Battaramulla, Sri Lanka	94-11-2784920/2	admin@osc.lk www.osc.lk
Colombo International School	28, Gregorys Road, Colombo 7, Sri Lanka	94-11-2697587, 2691644	principal@cis.lk www.cis.lk
Elizabeth Moir School	4/20, Thalakotuwa Gardens, Colombo 5, Sri Lanka	94-11-512275 (Senior School) 94-11-2585682 (Junior School)	moir@eureka.lk moirjnr@eureka.lk www.elizabethmoirschool.com
The British School in Colombo	63, Elvitigala Mawatha, Colombo 08, Sri Lanka	+94-11-5329329	www.britishschool.lk

2) 한인 학교

매주 토요일에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스리랑카 거주 한인 아동이다. 아이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도 하는 등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인식 및 한국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명칭은 ‘재스리랑카 한인학교’이다.

교사들은 주로 한국의 현직 교사, 학부모, 가정 주부 등 많은 분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수업 중이며 학생수는 100여명이고 교사 수 15여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소: D.S. Senanayake College, 62 Gregory's Rd., Colombo 7 (콜롬보 중심부에 위치)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열대 몬순기후로서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며 우기 시즌은 일년에 두 번, 6-8월은 South-West 몬순으로 콜롬보를 포함한 스리랑카 남서부지역에 비를 뿌리며 11월은 North-East 몬순으로 북동 지역에 비가 내린다. 건기는 11월-3월경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2,020mm이며 99일 비가 내렸다. (2008년 연간 보고서) 콜롬보를 포함한 저지대 연평균 최저 기온은 섭씨 24.4도, 최고 기온은 섭씨 31.7도이며 산간 고지대 연평균 최저 기온은 섭씨 17.1도, 최고 기온은 섭씨 26.3도 이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한국과의 시차는 스리랑카가 한국보다 3시간 30분 늦는다. 한국이 정오 12:00일 때 스리랑카는 오전 08:30이며, 스리랑카는 인도와 표준시가 동일하다.

2) 근무시간

- 관공서: 월-금요일 09:00-16:30근무
- 일반기업: 월-금요일 08:00-17:00, 토 08:00-13:00 근무
- 은행: 월-금요일 09:00-15:00근무

다. 주요 규격

1) 도량형

미터제

길이	mm, cm, km
무게	g, kg, ton
넓이	m ² , km ²
부피	m ³ , km ³

원단

단위	미터 환산
1 Inch	2.54 cm
1 Feet	0.3048 m
1 Yard	0.9144 m

토지

단위	미터 환산
1 Perch	25.3 m ² (약 7.6평)
1 Acre	4,046.8 m ² (약 1,226.3평)
1 Hectare	10,000 m ²

2) 전기규격

230-240V, 50Hz

3) 방송통신

한국과 달리 유럽방식을 채택TV 방송은 PAL, 이동통신은 GSM방식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통신 사업자들은 고정식 CDMA기술을 도입하여 스리랑카전화국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케이블TV 방송에는 CNN, BBC, 볼룸버그는 물론 미국, 중국, 홍콩, 독일, 프랑스, 인도 등 외국방송 청취가 가능하다. 아울러 콜롬보 및 인근지역에는 한국의 KBS, YTN, MBC, SBS를 수신 청취할 수 있는 시설을 장착해주는 사업체가 생겨나 식당, 일부 한인가정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나 수요는 많지 않다.

라. 출입국/비자

한국인들은 스리랑카 비자 받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 관광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해 공항에서 30일간 체류 가능한 관광비자를 즉석에서 무료로 발급해 준다. 30일 이상 체류의 경우 2회에 한하여 매 1개월씩 연장 가능하다. 영주권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장기 체류

경우에도 매년 거주비자를 갱신하고 있다(비자수수료 : 2만루피). 단, 주의해야 할 것은 관광 목적의 방문일 경우에 즉석비자를 발급하며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은 사전에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 비즈니스비자를 신청해야 하므로 공항에서 입국신고서 작성시 주의해야 한다.

1) 비자 발급처

- 발급처 :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 주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9-18
- 전화: 02-735-2966/7, 팩스: 02-737-9577
- 휴일: 토, 일요일 및 한국공휴일, 스리랑카 공휴일 일부
- 비자신청시간: 09:00-12:30, 14:00-17:00
- 비자발급시간: 16:00-17:00
- 소요기간: 1일(오전접수, 당일 오후 발급)

2) 비자 연장

스리랑카 체류 중 비자 연장은 이민국(Department Immigration & Emigration, 전화 94-11-5329000 주소: 41 Ananda Rajakaruna Mawatha Colombo 10 Sri Lanka, 업무 시간: 오전 9시- 오후 4시30분, 오후 3시 수수료 수납분까지 당일 발급함)에서 한다.

비자 연장 수수료는 연장기간 및 국가에 따라 다르다. 최초 90일 비자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인의 경우 Rs. 2,750이다. 비자연장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다. (관련 사이트: www.immigration.gov.lk/html/visa)

3) 예방접종 및 음료

황열병 감염지역(yellow fever-infected area)에서 입국 시 방역확인증이 필요하며 여타 지역의 경우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다.

마. 화폐 단위/환율/환전

1) 화폐단위

화폐단위는 스리랑카 루피(Rupee)를 사용하며, 약칭은 Rs. 이다. 통화로는 지폐 2,000, 1,000, 500, 100, 50, 20, 10 루피가 있고 동전은 10, 5, 2, 1 루피가 있다.

2) 환율

변동환율제로 2011년 3월 기준 미화1달러의 환율은 약 109루피 이다. 2009년 118루피를 정점으로 루피화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강세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환전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소 환전환율이 낮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호텔 등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다. 유명 음식점이나 상점에서는 달러가 통용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호텔 이외 상점에서는 달러사용이 안 된다고 보면 된다. 혹시 되더라도 환율이 좋지 않다. 콜롬보공항에 은행 환전소가 설치 되어 있으므로 입국 직후 얼마간의 필요한 현금을 환전하는 것이 좋다.

출국 시 현지화를 달러화로 재 환전할 경우 입국 시 환전한 은행 영수증이 필요 하고 호텔 등지에서 환전한 영수증으로는 재 환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입국 시 은행에서 환전한 영수증은 보관하는 것이 좋다.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 항공편

양국간 직항노선은 현재 없으며, 동경, 싱가포르, 홍콩, 방콕, 팔라렘푸르 중 1~2개 도시를 경유해야 한다. 현재 콜롬보에 취항 중인 항공사는 자국의 Sri Lankan Air(UL)를 비롯하여 다수의 항공사가 있으며 이착륙시간은 대부분 밤11시 이후부터 새벽에 집중되어 있다. 취항 항공사는 국적기인 Sri Lankan Airline(UL) 외에도 Emirates(EK), Singapore Airlines (SQ), Thai Airways (TG), Cathay Pacific(CX), Malaysian Airline(MH), Indian Air, Jet-Air, Sahara Airline 및 중동 국적기 등 다수이다.

□ 선편

콜롬보 항은 유럽과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외국선박의 입항이 많으며 주로 미주나 구주에서 오는 수출입 물량의 환적이 주를 이룬다. 한진해운 입항하나 직항이 아닌 대부분 상해나 싱가포르 등지를 경유하여 들어오며 보통 14~16일이 소요된다.

2) 스리랑카 내 교통

현지출장 비즈니스맨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호텔 택시와 콜택시 등이다. 호텔에서 출발할 경우 호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나 요금이 일반 콜택시에 비해 매우 비싼 편이다. 콜택시를 부를 경우 (주요 콜택시 번호: 2688688, 2588588, 2818818) 약 10 - 15분 정도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요금은 미터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흥정은 필요 없다. 모든 콜택시는 전화 요청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지 사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동 거리가 가까운 경우 Bajaj (삼륜택시)을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다. 그러나 에어컨 없는 오픈카이기 때문에 매연을 그대로 마셔야 하며, 교통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단거리나 경험 삼아 한두 번 타는 것 외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는 통상 요금의 2배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다반사이며 무작정 타면 오히려 택시요금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타기 전에 반드시 목적 지까지의 가격을 흥정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5km정도에 300루피면 적정하다.

장기출장이나 차가 현지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렌트카 이용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공항에서 콜롬보까지는 공항 택시(약 20-25불 수준) 또는 사전에 체류할 호텔에 요청하여 호텔택시(45-50불)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택시가 보다 쾌적한 편이다.

이외에 시외버스 및 철도도 있으나 철도는 배차간격이 길고 시설이 열악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며 버스는 도시간 직행인 인터시티 버스 외에는 냉방이 되어 있지 않은데다 극심한 혼잡, 치안 등의 문제로 외국인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3) 국제/국내 통신

스리랑카에는 5개의 이동전화회사가 경쟁 중이다. 이동 통신 가입이 용이하며 가격도 저렴하다. 입국시 공항에서도 단기 대여가 가능하다. 단기 출장일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화기를 로밍해 오면 이곳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로밍폰 이용 요금은 1분 기준 음성 발신은 3,370원, 현지 음성 발신은 400원이며 모든 음성 수신은 1,672원이다. SMS발신은 한 건당 200원이다. 스리랑카는 GSM방식을 사용하는데, 시내에서 선불제 SIM카드를 300루피(약 3천원)에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고 한국으로의 전화요금은 분당 약 50루피(약 500원)이다. 장기 출장의 경우엔 5000루피 이하의 저렴한 전화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로밍 서비스에 비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4) 특사우편 (Courier)

한국까지 문서인 경우 약 29불(500g), 소포인 경우 약 56불(500g)이며 서비스 회사로는 하기의 회사가 있음.

- IML (UPS 현지 에이전트) : 140 Vauxhall St, Slave Island, (T) 94-11-233-7733
- DHL : John Keells, 130 Glennie St. Slave Island, (T) 94-11-254-1285
- Mountain Hawk Express (Fedex): 300 Galle Road, Kollupitiya, (T)94-11-257-7055
- TNT Express: Vauxhall St, Slave Island, (T)94-11-244-5331

사. 호텔/식당

1) 고급호텔

- Colombo Hilton (Five Star)
 - P O Box 1000, No. 2, Sir Chiththampalam A. Gardiner Mawatha, Colombo 1
 - Tel. (011) 2544644, 544657, E-mail: hilton@srilanka.net
 - 콜롬보 비즈니스 지구 중심가에 위치, 고층은 인도양이 내려 보임. 콜롬보 5스타 호텔 중 가장 최고급 호텔로 평가 받고 있어, 요금도 가장 높은 편임. 식당의 종류가 가장 많고 음식 및 서비스의 수준이 가장 높음.
- Cinnamon Grand (Five Star)
 - 77, Galle Road, Colombo 3 (Tel (011) 2437437, 2449280)
 - E-mail: grand@cinnamonhotels.com / Web:www.cinnamonhotels.com)
 - Keells 슈퍼마켓, 현대식 상가, 고급 아파트와 연접하고 있으며 인도양이 내려다 보임. 고위층
- Cinnamon Lakeside (Five Star)
 - 115, Sir Chittampalam A. Gardiner Mawatha, Colombo 2
 - Tel (011) 2544200/2449184,
 - Email: lakeside@cinnamonhotels.com, Web: http://www.cinnamonhotels.com)
 - 인도양과 인접하지 않으나 뒷면에 호수와 인접

- Taj Samudra(Five Star)
 - 25, Galle Face Center Road,Colombo 3
 - Tel: (011) 2446622/2446348, E-mail: taj@sri.lanka.net)
 - 인도양이 내려다 보이며, 인도의 Tata 그룹에서 운영하는 체인호텔임
- GALADARI (Five Star)
 - 64,Lotus Road, Colombo 1(Tel: (011)2544544/2449875)
 - E-mail: info@galadarihotel.lk Web: www.galadarihotel.lk
 - 콜롬보 비즈니스 지구 중심가에 위치, 인도양이 내려 보임, 다소 낡음. 유일한 성급 무슬림 호텔로 중동 투숙객이 많음.
- Ceylon Continental (Five Star 에서 Four Star 로 조정)
 - 48,Janadhipathi Mawatha, Colombo 1
 - Tel: (011) 2421221/2447326
 - E-mail:hotel@ceyloncontinental.com
 - 콜롬보 비즈니스지구 중심가에 위치, 인도양이 내려 보이는 전망이 가장 뛰어난 곳에 위치함. 최근 개보수하였음.
- Gall Face Hotel
 - 2,Kollupitiya, Colombo 3
 - Tel (011) 2541010-6/2541072,74,
 - E-mail:reservation@gallefacehotel.net / Web site: www.gallefacehotel.com
 - 1864년 세워진 호텔로 영국 식민지 시절의 정취가 배어나는 호텔임, 인도양과 바로 인접, 호텔 야외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바로 석양을 볼 수 있음. 구관과 신관이 있으며 신관이 다소 비싼편임.
 - * 상기 호텔중 Five Stars 호텔은 싱글 170달러(조식포함) 이상 수준 (2011.4월부 정부에서 요금하한선을 25% 상향조정)

2) 이 외의 저가 호텔이나 아파트 식 숙박처

- Grand Oriental Hotel
 - 2 York Street, Colombo 1
 - Tel (011) 2320391-3, 2447640,
 - E-mail: goh@slt.net.lk, Web:www.grandorientalhotel.com
 - 콜롬보 항구 옆에 포트지구에 있으며 식당은 항구가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음. 방 가격은 싱글이 89불, 더블이 97불 정도(조식포함) 이다. 낡았음
- Hotel Nippon
 - 123,Kumaran Ratnam Road, Colombo 2
 - Tel: (011) 2431887-8/2332603
 - 룸레이트는 정상가격이 싱글 3,700루피(약 37,000원), 트윈 4,150루피(조식포함) 수준
 - 싱글 28불, 트윈 32불(네트기준, 별도) 수준
- Sea View Hotel 또는 아파트
 - 21 Sellamuttu Avenue, Colombo 3
 - Tel (011) 2573533, 2574782, E-mail:sella@slt.net.lk
 - 룸레이트는 에어컨장착싱글룸의 정상가격이 Rs 3,500루피(약35,000원), 더블 4,000 루피 임

- Hotel Juliana
 - Hotel Juliana, Galle Rd., Colombo 3
 - Tel (011) 5334222
 -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저가 호텔로 한식/일식 식당이 있음. 요금은 4만원 수준임

3) 한식당

- 한국관(HANGOOKGWAN) : 25, Havelock Road, Colombo 5, 전화: 94-11-2587961

4) 중식당

- Peach Valley : No.27, Flower Road, Colombo 7, 전화: 94-11-2672888
- 88 Chinese Restaurant : 98/1, Havelock Road, Colombo 5, 전화: 94-11-2593017
- Long Feng (* Cinnamon Lakeside Hotel 내 위치)
 - 주소: 155, Sir Chittampalam Gardiner Mw, Colombo 2
 - 전화: 94-11-2544200

5) 일식

- Nihonbashi : No11, Galle Face Terrace, Colombo 3, 전화: 94-11-2323847

6) 스리랑카 전통식당

- Raja Bojun : Ceylinco Seylan Towers, 90, Galle Road, Colombo 3, (T) 94-11-2452657
- The Curry Leaf : Hilton Colombo, Colombo 1, (T) 94-11-2544644 (ext: 2376)
 - * 스리랑카 전통 음식은 인도음식과 크게 유사하나 스리랑카 만의 전통 메뉴가 많으며 향료가 발달되어 있으며 맵고 짭 음식이 많다. 주식은 쌀과 카레이다.

아. 관공서 관행

문서위주로 일이 처리되며 업무 처리속도는 상당히 느리나 세밀한 편이다. 실무자의 의견이 업무 처리시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편이며 후진국이지만 영국의 오랜 식민지배 영향으로 일처리가 합리적이며 정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그러나 국세청, 세관 등 일부 이권부서의 경우 부정부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해결이나 더딘 일 처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과 인간적으로 친해져 거리감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족을 초청하여 간단한 식사를 대접하여 친밀감을 제고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행정의 전산화가 상당 수준 발달하여 업무처리 속도가 많이 늘었고, 정보가 비교적 정확 하다. 관료주의 장벽이 인접국인 인도나 파키스탄에 비해 아주 약하다.

국회의원이나 지방 선거직 행정관리들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구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중요하기 여기기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당히 호의적이다.

자. 공휴일

1) 휴일 지정 방식

스리랑카는 불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기독교가 공존하는 나라임으로 각 종교의 기념일/축제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어 일년에 약 26일의 공휴일(Public Holiday)이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포함 연간휴일이 125-130일 정도이다. 많은 공휴일이 음력을 따르기 때문에 양력 기준으로는 매년 다르다. 그밖에 특정 집단만 휴무일로 하는 공휴일도 있다.

2) 출장일정 고려사항

우리나라의 구정에 해당하는 싱할라 및 타밀신년(4.13-14)이 2일 연휴이다. 5월에는 베삭 포야데이라고 하는 석가탄신일로서 연휴로 주어진다. 날짜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양력으로는 매년 상이할 수 있다. 신년(4월) 및 베삭포야데이(5월)는 공식적으로 2일간의 공휴일이 주어지지만 학교도 단기 방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휴일 앞뒤로 휴가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동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반면 7-8월 여름휴가 시즌의 경우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장기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비즈니스 방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 아울러 10월중순경 캔디(Kandy)지방에서 열리는 페라헤라 축제는 해당지역의 호텔에만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서 특별히 피해야 할 국가적인 축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스리랑카 공휴일 현황

일 자	공 휴 일 명	비 고
1.15(토)	Tamil Thai Pongal Day	
1.19(수)	Duruthu Poya Day(음력 보름)	
2.4(금)	National Day (독일기념일)	
2.16(수)	Milad-Un-Nabi (Holy Prophets Birthday)	
2.17(목)	Navam Poya Day(음력 보름)	
3.2(수)	Maha Sivarathri	은행,공공부문만 휴일
3.19(토)	Medin Poya Day(음력 보름)	
4.13(수)	싱할라/타밀 신년	스리랑카 출장지양
4.14(목)	싱할라/타밀 신년	스리랑카 출장지양
4.17(일)	Bak Poya Day(음력 보름)	
4.22(금)	Good Friday	은행,공공부문만 휴일
5.1(일)	노동절	
5.17(화)	Wesak(베삭) Poya Day	스리랑카 출장지양
5.18(수)	Wesak Poya Day	스리랑카 출장지양
6.15(수)	Posan Poya Day	
7.14(목)	Esala Poya Day	
8.13(토)	Nikini Poya Day	
8.31(수)	Id-UI-Fitr (Ramazan Festival)	은행,공공부문만 휴일
9.11(일)	Binara Poya Day	
10.11(화)	Vap Poya Day	
10.26(수)	Deepavali Festival	은행,공공부문만 휴일
11.6(일)	Id-UI-Alha (Hadji Festival)	은행 공공부문만 휴일
11.10(목)	IL Poya Day	
12.10(토)	Unduvap Poya Day	
12.25(일)	성탄절	

차. 여행 시 유의사항

1) 응급

콜롬보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 시 개인 응급회사인 MEDI-CALL(011-2575475)을 호출하면 앰불런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1회당 300 루피(약 3,000원)이나, 수도권과 원거리 지역은 현지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 한국처럼 119, 112 등 어느 지역에서나 호출 가능한 네트워크 응급 체계는 없다. 현지에서 필요의약품의 구입이 가능하나 출장자의 경우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등 필수 상비약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한국인이 콜롬보에서 주로 이용하는 병원은 다음과 같다.

○ Lanka Hospital

- 주소: 578, Elvitigala Mawatha, Narahenpita, Colombo5,
- Tel: (011) 4513054
- 시설은 가장 양호하나 분야별로 의사들의 편차가 많고, 오진으로 시설과 달리 의외로 고생하는 사람이 상당함. 치과 피부과 등은 타 병원이나 전문 개인병원으로 현지인들 사이에 명성이 높은 곳을 수소문하는 것이 바람직함.

○ Nawaloka Hospital

- 주소: 23, Saugathodaya Mawatha, Colombo 2
- Tel: (011) 2544444/7

2) 특산품

최근 원석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으나 스리랑카는 루비, 사파이어 등의 보석이 유명한 편이며, 홍차산지로 유명하다. 스리랑카는 세계최대 홍차 수출국으로 실론차는 세계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바, 차를 선물로 하는 것이 큰 부담 없이 무난하다. 대표적인 브랜드로, 딜마 (Dilmah), 므레스나(Mlesna), 제스티(Zestea) 등이 있다. 또한 캐슈넛의 품질 및 맛이 세계적인 수준이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100g 당 약 200 루피(약 2,000원)이다.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포장으로 나와 있다. 판매처는 일반 슈퍼마켓, 시내 주요 쇼핑 센터, 실론 티보드, 국제공항 출국장내 면세점 등으로 어디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국제 공항 출국장내 면세점 가격이 시내쇼핑 센터 가격보다 비싼 편이므로 가급적 시내에서 구매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신용카드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통용되기 때문에 비즈니스급 호텔 투숙, 콜롬보 주요 쇼핑몰, 음식점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아준다. 그러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지방의 영세상가, 음식점, 소액 구매 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카드 사기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한 현지화를 지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장기체류시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 사본
 -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 내역이 명시된 고용주의 레터 사본
 - 본인 명의로 된 전기세 혹은 전화세 영수증(이동통신 제외) 사본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EDEX EXPO 2011 (National Higher Education and Careers Expo)**
 - Consecutive year : 9 th in the series
 - Period : 22th to 24th February 2011
 - Venue : BMICH
 - Web : www.edex.lk
 - Items : Domestic education, International education and Careers /Recruitment in post secondary, diploma, graduate And post-graduate fields .
 - Organizer : Sri Lanka Institute of Architects
 - Address : EDEX Secretariat, Rajakeeya Mawatha, Colombo 7
 - Telephone : 94 11 5521497
 - Fax : 94 11 2683100
 - Email : info@edex.lk, web@edex.lk
 - Contact Person : Mr. Ranjith Amarasinghe – Secretary

- **ARCHITECT 2011**
 - Consecutive year : 29 th in the series
 - Period : 23 th to 27th February 2011
 - Venue : BMICH
 - Web : www.slia.lk
 - Items : Display of building materials and accessories.
 - Organizer : Sri Lanka Institute of Architects
 - Address : 120/7, Vidya Mawatha, Colombo 7. Sri Lanka
 - Telephone : 94 11 2697109
 - Fax : 94 11 2682757
 - Email : sliaevents@sltnet.lk
 - Contact Person : Mr. Nimal Gunawardana – Event Coordinator
 - Mobile : 94 77 3170235

- **Medicare 2011 – 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
 - Consecutive year : Second in the series
 - Period : 4th to 5th March, 2011
 - Venue : BMICH
 - Web : www.medicare.lk
 - Items : Medical Equipment & Pharmaceuticals Healthcare.
 - Organizer : Aitken Spence Conventions & Exhibitions
 - Address : No. 305, Vauxhall Street, Colombo 02.
 - Telephone : 94 11 2308308
 - Fax : 94 11 2331816
 - Contact Person : Mz. Ziyen Ameen – Asst manager
 - Email : ziyan@aitkenspence.lk

- **Hair & Beauty Exhibition 2011**
 - Consecutive year : Frist in the series
 - Period : 18th to 20th March, 2011
 - Venue : BMICH
 - Web : www.phaba.lk

- Items : hair and Beauty industry such as hair style, nail art etc
 - Organizer : Professional Hair Dresses & Beauticians Association
 - Address : No.53, Vipulasena Mawatha, Colombo 10
 - Telephone : 94 11 4938257
 - Fax : 94 11 4938257
 - Email : shirandil@yahoo.com
- **Boat Show Sri Lanka 2011**
- Consecutive year : Second in the series
 - Period : 24th to 26th April 2012
 - Venue : BMICH
 - Web : www.boatshowsrilanka.org
 - Items : leisure, marine, tourism, fishing and other related industries
 - Organizer : Boat Building Technology Improvement Institute Lanka Ltd.
 - Address : 4th Floor, Automobile Association Building, No. 40, Sir Mohamed Macan Marker Mawatha, Colombo 03
 - Telephone : 94 11 2390560-2
 - Fax : 94 11 2390563
 - Email : sudesh@saexhibitions.com
 - Contact Person : Mr. Sudesh Lenadora – Asst Project Manager
 - Mobile : 94 77 3647494
- **Machinery 2011**
- Consecutive year : 6th in the Series – Annual Exhibition
 - Period : 10th to 12th Jun 2011
 - Venue : BMICH
 - Web : www.smed.lk/machinery
 - Items : Machinery, Automobiles, Ancillary Equipments, Processes New Production Methods, New Technology, IT for SME's
 - Organizer : The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Sri Lanka (FCCISL) and its SME arm,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ers (SMED)
 - Address : Level 4, No. 53, Vauxhall Lane, Colombo 2
 - Telephone : 94 11 2304287-9
 - Fax : 94 11 2304291
 - Email : www.fccisl.lk
 - Contact Person : Mr. Niron Perera – Program Coordinator – Marketing
 - Mobile : 94 77 7330342
 - Email : niron@fccisl.lk or sme2010@fccisl.lk
- **INCO Exhibition 2011**
- Consecutive year : 9th in the series
 - Period : 24th to 26th June 2011
 - Venue : BMICH
 - Web : www.inco.lk
 - Items : 전기, 엔지니어링, 텔레콤, 농업, 해양 등
 - Organizer : The Institution of Incorporated Engineers
 - Address : 490, Oceanica Tower, Galle Road, Colombo 03
 - Telephone : 94 11 4736708

- Fax : 94 11 4734298
- Email : inco@wow.lk
- Contact Person : Mr. P C T Thilakarathne
- Mobile : 94 77 7741073

○ **HOME & YOU Life Style Fair 2011**

- Consecutive year : 14th Consecutive year
- Period : 30th June to 3rd July 2011
- Venue : BMICH
- Web : www.aitkenspenceconventions.com
- Items : sensational household, interior decor and stylish furnishings.
Furniture, Interior, Decorations, Electronic Equipments, Sanitary ware, Floor & Wall Tiles, Air conditioners etc
- Organizer : Aitken Spence Conventions & Exhibitions
- Address : No. 305, Vauxhall Street, Colombo 02
- Telephone : 94 11 2308308
- Fax : 94 11 2331816
- Email : ziyan@aitkenspence.lk
- Contact Person : Mr. Ziyen Ameen – Asst Manager
- Mobile : 94 77 7788931

○ **Bridal Fair 2011**

- Consecutive year : 15 th in the series
- Period : 1st to 3rd July, 2011
- Venue : SLECC
- Web : www.slecc.com
- Items : wedding market, professional fashion shows, demos, etc
- Organizer : Sri Lanka Exhibition & Convention Centre
- Address : No. 12, D R Wijewardana Mawatha, Colombo 10
- Telephone : 94 11 2343239
- Fax : 94 11 2343237
- Email : sales@slecc.com
- Contact Person : Mrs. Shanthi Outschoorn – Director

○ **CONSTRUCT 2011**

- Consecutive year : 11th Consecutive Year
- Period : 19 th to 21 th August 2011
- Venue : BMICH
- Web : www.constructexhibition.com or www.saexhibitions.com
- Items : materials & Machinery used in Construction industry
- Organizer : Lanka Exhibition & Conference Services (Pvt.) Ltd together with The National Construction Association
- Address : 4th Floor, Automobile Association Building 40, Macan Marker Mawatha, Colombo 03
- Telephone : 94 11 2390560/2
- Fax : 94 11 2390563
- Email : rikaz@saexhibitions.com
- Contact Person : Mr. H M M Rikaz – Project Executive
- Mobile : 94 77 3865233

○ **PROFOODS / PROPACK 2011**

- Consecutive year : 9th in the Series
- Period : 26th to 28th August 2012
- Venue : BMICH
- Web : www.profoodpropack.com
- Items : technology & packaging, agricultural machinery, seeds, services, education and fertilizer
- Organizer : Lanka Exhibition & Conference Services (Pvt.) Ltd
- Food Processors Association & Ministry of Industrial Development
- Address : 4th Floor, Automobile Association Building, 40, Macan Marker Mawatha, Colombo 03, Sri Lanka
- Telephone : 94 11 2390560/2
- Fax : 94 11 2390560/2
- Email : nirodha@saexhibitions.com
- Contact Person : Ms Nirodha Vidyaratne – Project Executive
- Mobile : 94 77 3147660

○ **FACETS 2011 (Sri Lanka International Gem Jewellery Show)**

- Consecutive year : 21st year (Since 1991)
- Period : 8th to 11th September 2011
- Venue : BMICH
- Web : www.facetssrilanka.com
- Items : wide variety of sapphires and gemstones from producers and wholesalers from all the main producing areas of Sri Lanka
- Organizer : Sri Lanka Gem & Jewellery Association
- Address : 28, No. 38, Frankfurt Place, Colombo 04
- Telephone : 94 11 2597226 / 2597470
- Fax : 94 11 2597250
- Email : facets@facetssrilanka.com
- Contact Person : Mr. Ziqufi Ismail – Mobile 077 9865233

○ **TECHNO 2011 (Premier Engineering Technology Exhibition)**

- Consecutive year : 26th Consecutive year since 1985
- Period : 7th to 9th October 2012
- Venue : BMICH
- Web : www.techno.lk
- Items : Agricultural & Plantation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s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Automobile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Information Technology, Household Items, Office Equipment, Scientific Items
- Organizer : The Institution of Engineers, Sri Lanka
- Address : 120/15, Wijerama Mawatha, Colombo 07. Sri Lanka
- Telephone : 94 11 2698426, (3 Lines)
- Fax : 94 11 2699202
- Email : iesltechno@sltnet.lk
- Contact Person : Mr. Malik Kannangara – Manager Sales & Marketing
- Mobile : 94 77 7771005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Organization	Web Site	Main Function
1.	Central Bank of Sri Lanka	www.cbsl.lk	스리랑카 금융분야의 핵심 기관
2.	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	www.srilankabusiness.com	수출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제 1의 국가 조직
3.	Board of Investment	www.boi.lk	외국, 자국 투자자 모두를 위한 중앙 촉진점
4.	The Ceylon Chamber of Commerce	www.chamber.lk	자국, 외국인 사업적 만남을 위한 중앙 정부의 핵심 조직. 전문위원회, 제휴 조직, 비즈니스 상담 등의 업무 담당.
5.	Sri Lanka Customs Department	www.customs.gov.lk	국경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 핵심 조직. 그 주요 기능은 수입 촉진, 관세법 또는 그와 관련된 규칙이나 제재를 강화하는 일임.
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ri Lanka	www.slmfa.gov.lk	외교문제(국제관계)에 관여하는 정부 기관
7.	Department of Commerce, Sri Lanka	www.doc.gov.lk	정부 무역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스리랑카의 상호 무역 관계, 지역간 또는 다자간 무역 관계를 개발, 진흥시키는 기관
8.	Ministry of Finance & Planning	www.treasury.gov.lk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재무상의 그리고 경제적인 정책, 계획, 전략을 공식화하고 이행하는 기관
9.	Inland Revenue, Sri Lanka	www.inlandrevenue.gov.lk	자발적인 납세를 촉진해 적법하게 세금을 모으고 고결하고 효과적인 세금제도를 통해 공공의 자신감을 향상시킴. (그 세금제도는 세금과 관련되는 규제를 공정하게, 확일화 해서, 정중하게 관리하고 그 덕분에 유익한 세금문화를 부양시키는 제도임)
10.	Department of Labour	www.labourdept.gov.lk	긍정적인 직업윤리, 보다 나은 노사관계 진흥을 통한 국가경제의 전반적 번영의 향상을 활발하게 공헌하기 위한 조직. (여기서 말하는 “보다 나은 노사관계”란 창의적 접근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사회 안전이 확실하게 된, 그리고 직업 현장에서 조화가 보장된 그러한 관계를 뜻함)
11.	The Associated Newspapers of Ceylon Ltd.	www.dailynews.lk	1918년 개간한 스리랑카의 국가적 신문

#	Organization	Web Site	Main Function
12.	Department of Meteorology	www.meteo.gov.lk	정부기관, 개인분야 그리고 국가적인 관심사항과 국제적 표준에 맞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기상학, 항공 기상학, 해양 기상학, hydro 기상학, 농업 기상학, 기후(풍토)학, 천문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13.	Department External Resources	www.erd.gov.lk	기술적 협력이 포함된 공식적인 발전 지원의 Mobilization을 책임짐
14.	Dept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www.immigration.gov.lk	나라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 개인의 적법성을 증명하고 정의 내리는 기관.
15.	National Policy Planning Department	www.nppd.gov.lk	국가의 물리적 정책, 계획, 전략을 공식화하고 확실히 하며 그러한 국가적 정책, 계획, 전략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관.
16	Sri Lanka Tourism Development Authority	www.srilankatourism.org	스리랑카 관광산업 포털사이트로서 해외관광객 통계, 유망 관광지, 물론 개발 프로젝트도 소개